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文學碩士 學位論文

현대중국어 비이동 『S+来/去+VP』 구문 연구

2021年 2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花 明 姣

현대중국어 비이동 『S+来/去+VP』 구문 연구

指導敎授 朴 正 九

이 論文을 文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20年 10月

서울大學校 大學院
中語中文學科 語學專攻
花 明 姣

花明姣의 碩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20年 12月

委 員 長 _____ 이 옥 주 _____ (印)

副委員長 _____ 두 염 빙 _____ (印)

委 員 _____ 박 정 구 _____ (印)

국문초록

현대중국어에서는 공간적 이동의미가 없는 ‘S+来/去+VP’ 구문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고 사용빈도도 상당히 높다. 본 연구는 이동을 나타내지 않는 ‘S+来/去+VP’ 구문의 전체 어법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이에 주로 주어와 목적어의 선택제약, 동사의 선택제약, 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성, 구문의 의미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고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에서는 문제를 제기하고 연구방법 및 내용을 제시했다. 2장에서는 명사구의 선택제약을 연구하기 위해 주어와 목적어의 지시성을 살펴봤다. 3장에서는 동사구의 선택제약을 고찰하기 위해 동사의 의미와 상적 특성을 살펴봤다. 4장에서는 어떠한 동보형식이 구문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동사구 내의 보어의 의미자질 및 문법화 정도를 살펴봤다. 5장에서는 정보구조를 바탕으로 ‘S+来/去+VP’ 구문의 초점구조 유형을 귀납하고 유형에 따라 구문의미를 정리했다. 6장에서는 범언어적인 관점에서 ‘come’, ‘go’ 류 동사의 문법화 과정을 고찰하여 중국어의 이동의미가 없는 ‘来’, ‘去’에 어떠한 의미기능이 있는지, 서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탐색하였다.

본고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S+来/去+VP’ 구문에서 주어(S)는 일반적으로 한정적이다. 다만 S가 누구인지를 강조할 때, 소수 특수한 경우에 비한정적인 성분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S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목적어에 한정적인 성분이 나타나고, S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는 한정적이거나 비한정적인 명사성 성분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둘째, ‘S+来/去+VP’ 구문에 출현하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자주성], [-종결성] 자질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S를 강조하는 경우의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타동성] 제약이 잘 준수되고 있다. 반면 S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 자동사도 출현할 수 있다.

셋째, 정보구조 이론을 통하여 S를 강조하는 경우 이 구문은 주로 주어-초점구조이고 구문 전체에 책임 의미가 있다. 이때는 행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보통 뚜렷한 강세를 수반할 수 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화제에도 대조가 있고 앞에

전제적인 정보가 없을 때 문장은 문장-초점구조다. 반대로 S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 이 구문은 주로 서술어-초점구조이지만 발어문으로 사용되는 'S+来/+VP' 구문은 문장-초점구조이다.

넷째, 주어-초점구조가 아닌 경우 '来', '去'가 사용되는 맥락에는 현저한 차이가 존재한다. '来'의 사용 환경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일상적이며 발화할 때 대화 참여자들은 모두 동작을(VP) 수행하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 이러한 [+현장성]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하나의 가상 공간에서 모이는 것도 허용한다. 구문은 발화하고 나서 대화 참여자들끼리 가까운 미래에 무언가를 같이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去'의 사용 환경은 추상적이고 문어적인 색채가 강하다. 게다가 '来'에 비해 '去' 뒤의 VP는 불확정적이고 'S+去+VP'는 [-현장성]의 특성을 가진다. 해당 구문은 화자가 청자/독자에게 상대적으로 먼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조언하거나 권유할 때 사용된다. 이러한 '먼 미래'는 불확정성과 관련된다.

마지막으로, 유형론적인 관점에서 'come', 'go' 류 미래표지의 문법화 과정에 방향성이 있는 원인을 정리하고 나아가 중국어 '来/去'를 분석하여 대조 및 검증하였다. 'come'류는 주로 가까운 미래표지로 발전하고, 'go'류는 먼 미래표지로 발전할 수 있다. 현대중국어에서 '来/去'는 이러한 경향성이 있지만, 지금은 주로 의도성을 지니고 아직 미래표지로는 발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동의미가 없는 '来'는 [+현장성]과 관련되고 현장성은 실제적 공간과 가상 공간 모두를 포함한다. 공간적 이동의미가 없는 '去'는 [+추상성]과 관련되며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내며 심리적인 추상적 이동으로 실현된다.

학 번: 2017-26843

주요어: 비이동 '来/去', 지시성, 자주성, 종결성, 타동성, 상황 유형, 어휘화, 문법화, 유형론, 정보구조, 구문의미

목 차

국문초록 ····· i

제1장 서 론 ····· 1

1.1. 문제 제기 ····· 1

1.2. 선행연구 ····· 5

1.3. 연구방법 및 내용 ····· 10

제2장 주어와 목적어의 지시성 ····· 12

2.1. 주어의 지시성 ····· 14

2.2. 목적어의 지시성 ····· 22

제3장 동사의 의미자질과 상적 특성 ····· 30

3.1. 동사의 의미자질 ····· 30

3.1.1. 타동성(Transitivity) ····· 30

3.1.2. 자주성(Volitionality) ····· 35

3.2. 동사의 상적 특성 ····· 39

제4장 결과보어 및 방향보어의 공기 제약 ····· 53

4.1. 결과보어의 공기 제약 ····· 53

4.1.1. 결과보어의 의미지향 ····· 53

4.1.2. 결과보어의 문법화 ····· 56

4.1.3. 어휘화와 종결성 ····· 64

4.2. 방향보어의 공기 제약 ····· 76
4.2.1. 의미자질에 따른 분류 ····· 76
4.2.2. 방향성과 종결성 ····· 82

제5장 『S+来/去+VP』 구문의 정보구조 특성 ····· 88
5.1. 정보구조와 문장형식 ····· 88
5.2. 『S+来/去+VP』 구문의 초점구조 ····· 93
5.2.1. 주어가 초점인 경우 ····· 93
5.2.2. 주어가 초점이 아닌 경우 ····· 102

제6장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来/去'의 문법화 ····· 111
6.1. 범언어적 이동동사의 문법화 ····· 111
6.2. 중국어 '来/去'의 문법화 기제 ····· 117

제7장 결론 ····· 122

【参考文獻】 ····· 125

【中文摘要】 ····· 131

표 도식 목차

<표1-1> 선행연구에 나타나는 주요 관점 정리 ····· 9
<표2-1> 명사구의 지시성 (Li & Thompson[1981]) ····· 12
<표2-2> 명사구의 지시성 (徐烈炯[1995]) ····· 13
<표2-3> 명사구 한정성의 형식적인 분류 (陈平[1987]) ····· 13
<표2-4> ‘S+来/去+VP’ 구문에 나타나는 주어의 지시성 ····· 22
<표2-5> 공간 이동이 있는 경우 목적어의 지시성 ····· 29
<표2-6> 공간 이동이 없고 S를 강조하는 경우 목적어의 지시성 ····· 29
<표2-7> 공간 이동 없고 S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 목적어의 지시성 ····· 29
<표3-1> 상황유형 (Smith[1997]) ····· 39
<표3-2> 동작유형, 상태유형 동사의 동작성 ····· 47
<표3-3> ‘S+来/去+VP’ 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 분류 ····· 52
<표4-1> ‘S+来/去+VP’ 구문에 ‘吸引住’, ‘记住’의 수용도 ····· 60
<표4-2> ‘吸引住’, ‘记住’에 결과보어 ‘住’의 문법화 정도 ····· 60
<표4-3> ‘S+来/去+VP’ 구문에서 ‘解决掉’의 수용도 ····· 61
<표4-4> ‘v+결과보어’의 유형 ····· 65
<표4-5> ‘v+결과보어’의 유형별 융합도 ····· 66
<표4-6> 유형Ⅰ 동작유형의 문법적 특징 ····· 68
<표4-7> vr형식 융합도의 경향성 ····· 75
<표4-8> 刘月华(1998)에 근거한 결과의미가 있는 방향보어의 재분류 ····· 79
<표4-9> 刘月华(1998)에 근거한 상태의미가 있는 방향보어의 재분류 ····· 80
<표4-10> 刘月华(1998)에 근거한 방향보어의 재분류 ····· 82
<표4-11> ‘S+来/去+VP’ 구문과 동사 및 방향보어와의 공기 제약 ····· 86
<표4-12> 자질에 따른 동사의 유형 분류 ····· 87
<표5-1> 초점-구조 범주의 화용적 표명 (Lambrecht[1994]) ····· 92
<표5-2> ‘来’, ‘去’ 사용 환경의 차이 ····· 110

<표5-3> ‘S+来/去+VP’ 구문의 초점구조 유형 ····· 110
<표5-4> ‘S+来/去+VP’ 구문의 의미 ····· 110
<표6-1> 범언어적 ‘come(to)’ 류의 미래표지 (Heine & Kuteva[2002]) ····· 113
<표6-2> 범언어적 ‘go(to)’ 류의 미래표지 (Heine & Kuteva[2002]) ····· 114
<표6-3> 영어 be going to, 네덜란드어 gaan의 문법화 방향성 (Hilpert[2008]) ··· 116
<표6-4> 범언어적으로 come(to), go(to)의 문법화 경로 (Hilpert[2008]) ····· 116
<표6-5> 공간의미가 없는 ‘来/去’의 추상화 차이 ····· 120
<표6-6> 현대중국어 ‘来’, ‘去’의 주요 기능 ····· 121

<도식3-1> ‘爱/了解’ 등 겸상동사의 도식 ····· 45
<도식3-2> 두 가지 동보형식의 도식 ····· 50
<도식4-1> 세 가지 vr형식의 생성 시기와 순서 (石毓智[2003]) ····· 55
<도식6-1> 미래시제 표지의 문법화 경로 (Heine[1995]; Bybee 외[1994]) ····· 112
<도식6-2> ‘来v/去v’의 원형의미 ····· 118

제1장 서 론

1.1. 문제 제기

언어는 인간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며, 인간의 인지적 산물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적이다. 이동을 나타내는 '오다/가다'는 사람들에게 필수 불가결한 동작 행위이기에, 거의 모든 언어가 화자의 시공간적 입장을 기준점(point of reference)으로 삼는 가장 기본적인 직시적(deictic) 이동동사를 갖는다. 게다가 높은 빈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많은 언어에서 이동동사로부터 다양한 의미가 파생된다. 이동동사는 다양한 언어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변화하는데, 마찬가지로 중국어의 '来/去'에도 여러 문법적 기능이 존재한다. 본고는 현대중국어에서 공간적인 이동의미가 없는 'S+来/去+VP' 구문을 연구하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구문을 범언어적인 시각으로 분석하여 중국어 '来/去'가 문법화하는 내재적 기제를 규명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는 유형론적으로 이동동사의 문법화 경로 유형에 일종의 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는 '来/去'가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S+来/去+VP' 구문이 갖는 어법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하며, 공간적인 이동의미가 있는 'S+来v/去v+VP' 구문은 보조적인 수단으로만 사용할 것이다.[1] 이동의미가 없는 'S+来/去+VP' 구문의 다양한 현상을 간단히 살펴보자.

(1) a. 我来/去处理这件事。 a′. 这件事我来/去处理一下。
이 일은 내가 처리하겠다.
b. 我来v/去v处理(一)件事。 b′. *(一)件事你来v/去v处理。
나는 일을 처리하러 왔다/간다.

(2) a. 我来/去承担责任。 a′. 责任我来/去承担。
책임은 제가 질게요.
b. *一个人来/去承担责任。 b′. *责任一个人来/去承担。

1) 본고는 공간적인 이동의미가 있으면 '来v/去v'로 표시할 것이다.

예문(1)에서 a는 성립할 뿐만 아니라 'O+S+来/去+V' 구문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반면 b는 그렇지 않다.[2] 예문(1b)는 목적어 자리에 '(一)件事'를 사용하였고, '来/去'는 이동의미가 있는 '来v/去v'로만 해석된다. 예문(2)에서는 S 자리에 '一个人'이 출현하면 비문이 된다. 다시 말해 'S+来/去+VP' 구문에서 주어와 목적어의 지시성에 제약이 있다.

그리고 동사 역시 다양한 제약을 받는데 다음의 예문을 통해 동사에 따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겠다.

(3) a. 我们来了解一下这本书的结构。 a′. *我们来知道一下这本书的结构。
이 책의 구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b. 他不爱你，我来爱你。 b′. *我来恨你。
그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내가 너를 사랑할게.

예문(3)의 동사는 전통적으로 상태동사로 분류되고 동작성이 약하다. 그러나 같은 상태동사여도 동사에 따라 사용상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는 (3a)와 (3a′)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知道', '了解'는 의미가 유사하지만 '知道'는 구문에 사용할 수 없는 반면 '了解'는 사용할 수 있다. 예문(3b)에서 '爱', '恨'은 반의어인데 '爱'만 허용되고 '恨'은 허용되지 않는다.

'来/去' 뒤에 동보형식이 오는 경우에도 제약이 존재한다.

(4) a. 今天饭由你来煮吧！ a′. *今天饭由你来煮熟吧！
오늘 밥은 네가 해!
b. *我定的规矩，我来打。 b′. 我定的规矩，我来打破。
내가 정한 규칙은 내가 깨뜨릴게.
c. 我来拦那辆车。 c′. 我来拦住那辆车。
내가 그 차를 막을게.

예문(4)는 동사에 보어성 성분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눈 것이고 예문에서

2) 본고는 목적어가 맨 앞에 출현할 경우는 'O+S+来/去+V'로 표시할 것이다.

보이듯이 세 가지 상황이 존재한다. 예문(4a)에서 'S+来/去+VP' 구문에 '煮'는 나타날 수 있는데 보어가 있는 '煮熟'는 나타날 수 없다. 이와 달리 예문(4b)에서 '打'는 나타날 수 없지만 보어가 있는 '打破'는 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예문(4c)의 '拦', '拦住'는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4′) a. 由你来添上文字.
네가 문자를 첨가하도록 해.
b. 生命像一张白纸，由自己去涂上艳丽的色彩。
생명은 종이와도 같아서 내가 화려한 색을 입혀야 한다.
c. *这个问题我来回答上来。

예문(4′)는 동사가 방향보어와 결합한 경우이다. 모든 방향보어가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같은 방향보어여도 구문과의 결합에 있어 받는 제약이 다르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해 이동의 의미가 없는 'S+来/去+VP' 구문에서 주어와 목적어를 선택할 때 일정한 제약이 존재하고 동사 역시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앞에 제시한 바와 같이 'S+来/去+VP'에서 '来/去'는 일반적으로 서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来'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去'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아래 예문을 살펴보자.

(5) a. 咱们去v一起看一下大屏幕！
우리 함께 스크린을 보러 가자!
b. 咱们来一起看一下大屏幕！
우리 함께 스크린을 봅시다!
(6) a. 在这样残酷的环境下，你得去拼搏!
이런 잔혹한 환경에서, 너는 필사적으로 싸워야 해!
b. *在这样残酷的环境下，你得来拼搏!

예문(5)를 보면 '去'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来'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문장의 의미가 달라진다. 전자는 이동의미를 가지고 후자는 비이동의미를 갖는다. 예문(6)은

‘去’만 사용할 수 있고 ‘来’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리고 성립하는 문장은 비이동의미를 나타낸다. 정리하면 ‘来’, ‘去’는 모두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7) a. 我们来v/去v休息一下。
우리 잠깐 쉬러 왔어/갈게.

b. 我们来休息一下吧！
우리 좀 쉬자!

b′. 我们去v休息一下吧！
우리 쉬러 가자.

예문 (7a)에서와 같이 문장이 ‘우리 잠깐 쉬러 왔어/갈게’의 의미를 나타낼 때 ‘来/去’는 이동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7b)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 좀 쉬자’는 청유를 나타낼 때의 ‘来’는 비이동의 특징을 가지고 이때의 ‘我们’은 ‘咱们’과 같다. 그리고 ‘去’의 경우에는 (7a), (7b′)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이동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차이는 ‘我们’에서 기인된다. 구체적으로 예문(7a)의 ‘我们’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7b)와 (7b′)에서는 청자와 화자 모두를 지칭하고 있다. 한 마디로 ‘我们+来/+VP’는 ‘我们’이 무엇을 지칭하는지에 따라 구문의 의미가 달라지지만 ‘我们+去/+VP’는 그렇지 않다.

종합하면 ‘S+来/去+VP’ 구문은 크게 두 가지 구문의미를 가지며 이들은 주어와 동사, 목적어에 서로 다른 제약을 준다. 따라서 필자는 주어(S), 동사(V), 목적어(O)를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고 구체적으로 주어와 목적어의 지시성, 동사의 의미와 상적 특성, 동사 뒤에 보어가 올 때의 보어의 의미자질 및 문법화 정도, 정보구조 등을 고찰하여 해당 구문의 전반적인 어법 특성을 귀납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로써 ‘S+来/去+VP’ 구문의 구문의미를 밝힐 것이며 나아가 범언어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이동의미가 없는 ‘来’, ‘去’에 어떠한 기능이 있고, 서로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찾아내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현재까지의 연구에서는 공간적 이동의미가 없는 ‘S+来/去+VP’ 구문을 연구한 성과가 많지 않고 대부분은 예문을 통해 ‘来/去’의 의미기능을 밝혔다.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来v/去v’뿐만 아니라 이동의미가 없는 ‘来/去’도 목적의미를 나타낸다고 주장된다. Chao(1968:479)에서는 ‘来v打球’의 ‘来v’가 연동구문의 첫 번째 동사이고 목적을 표시하는 작용이 있다고 하였다. 朱德熙(1982:166)는 ‘来v+VP’의 형식을 연동구문으로 보고 ‘他来v帮我修电视。’ 등 예를 제시하면서 ‘来v’는 위치이동의 목적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张伯江(2000:133-134)에서는 ‘来/去+VP’를 연동구문으로 보지 않고 영어 ‘be going to’와 비슷하다고 했으며 ‘来/去’는 전문적으로 목표의미를 표시하는 표지라고 분석했다. 王国栓(2005)에서는 이동의미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이동, +목적]의 ‘来v’와 이동의미가 없고 [+목적]만 나타나는 ‘来’로 분류했다. 우리는 공간 이동의미가 있는 ‘来v/去v’에 목적의미가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공간 이동의미가 없는 ‘来/去’가 전형적인 목적의미를 나타낸다는 점은 동의하지 않는다. 예문(8)처럼 ‘来/去’에 공간적인 이동의미가 없으면 문장은 목적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来/去’가 목적의미를 지닌다는 것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8) a. 责任我来/去承担。
책임은 내가 질게.
b. 咱们来玩儿局游戏吧！
우리 게임 한 판 하자!
c. 趁阳光正好，趁青春尚在，我们应该勇敢地去奔跑，去欢笑！
햇빛이 좋을 때, 청춘일 때, 우리는 용감하게 달리고, 웃어야 한다!

둘째, 일부 학자들은 ‘来’를 초점 표지로 보았다. 鲁晓琨(2006)은 정보구조의 관점으로 ‘S+来+VP’에 있는 ‘来’가 대조초점 표지이고, 신정보인 S를 강조하고 표시한다고 했고 이는 VP를 수행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닌 S임을 의미한다. 이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는 ‘来’를 S를 강조하는 초점표지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예문(8a)

처럼 S를 강조할 때 '来'뿐만 아니라 '去'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去'를 초점표지로 분석한 선행연구는 없다. 뿐만 아니라 예문(8a)와 달리 예문(8b)를 보면 행위자인 S는 생략해도 되고 행위자를 강조하지 않는다. 따라서 예문(8b)에서 출현하는 '来'는 대조초점 표지로 볼 수 없다.

셋째, '来/去'를 미래 표지로 본다는 관점도 있다. 黄宣范(1997)은 이동의미가 없는 '来'는 금방이라도 닥칠 듯한 사실(imminent performance)'을 나타내는 표지로 쓰이기도 한다고 했다.[3] 石毓智・白解红(2007)에서는 '来/去'를 미래시제 표지로 보고 있고 목적의미가 있는 예도 있다고 했다. 王统尚(2009)에서는 중국어의 다양한 미래시제 표지에 대해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가까운 방향을 표현하는 동사에서 발전해 온 미래시제 표지로는 '垂', '待'가 있고 준미래시제 표지로는 '来'가 있으며 먼 방향을 표현하는 동사에서 발전해 온 미래시제 표지로는 '将'을 들 수 있고 준미래시제 표지 '行'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본고는 'S+来/去+VP' 구문이 일반적으로 미실현의 상태를 표현하고 미래의미를 나타낸다는 것을 인정한다. 그러나 '来/去'가 전형적인 미래표지로 불릴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

넷째, '来/去'를 추상적 심리적 이동으로 본 학자들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허성도(2002)에서는 중국인의 공간의식에 근거하여 '来/去+VP' 구문의 존재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국인은 구체적 행위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특수한 사유체계를 가지고 있다. 즉, 중국인은 어떤 행위가 발생하려면 반드시 그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공간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행위자가 행위를 발생하는 현장에 없으면 행위자가 먼저 행위 발생의 공간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사유한다. '来/去' 구문은 이러한 사유형태를 나타내는 문형이다. 그리고 공간적인 이동의미가 없는 '来/去'는 추상적 심리적인 이동이고 '来'는 부드러운 어기를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필자 생각에 '去'는 추상적 심리적인 이동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지만 '来'는 그렇지 않다. 예컨대 공간적인 이동이 없는 '咱们来玩儿局游戏吧！'에서처럼, '来'는 추상적 심리적인 이동으로 이해될 수 없다.

다섯째, '来/去'가 의지를 나타낸다고 주장하는 관점도 있다. 汤延池(1979)에서는 방향의미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 '来'는 권유나 제안과 같은 의미를 표시한다고 지

3) 박지혜(2009) 재인용.

적하였다. 吕叔湘(1984:308-309)에서는 '来+VP' 구문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来'를 생략해도 구문의 의미는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郭春贵(1987)는 인칭의 문제를 고려했고 허화된 'S+来/去+VP' 구문에서 S가 1인칭일 때는 '来/去'가 '적극적인 주동 의지'를 나타내고 주어가 2인칭일 때는 요청이나 권유의 의미를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马庆株(1997)에서는 '来+VP'에 있는 '来'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VP가 나타나는 동작을 하기 위해 이동하다'라는 목적의미를 가진 구문이고, 다른 하나는 이동의 의미가 없고 'VP가 나타내는 동작을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구문이다. 辛承姬(1998)에서는 방향동사인 '来v' 뒤에 처소명사가 올 수 있고 동사 VP는 행위자가 '来v'한 목적이라고 했다. 즉, '来v'는 [+목적성]의 특징이 있다. 허화된 '来' 뒤에는 처소명사가 나타날 수 없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함'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것이다. 그리고 '来'는 동작을 실행하는 사람의 의지를 표현하고 말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S와 동사 사이에 다른 성분이 들어올 수 없다고 제시하였다. VP는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동작과 심리동사이다. 刘月华(2001:703)에서는 '来'를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목적의미가 있는 동사인 '来v'고, 또 하나는 실제적인 이동의미 없이 의향(意愿)의미를 표시하여 말투를 부드럽게 하는 표지이다. 陈贤(2007)에서는 동사인 '来v/去v'는 '来v/去v+(처소 명사)+VP' 구조에 속하고 공간이동 및 동작의 목적을 표현한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공간이동 의미가 없는 '来/去'는 목적을 표현하지 않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来'는 주어가 어떤 일을 하려는 의지를 강조하는 기능이 있고 '让S来' 형식으로 자주 나타나며 말투를 누그러뜨리는 작용이 있다. S에는 일반적으로 인칭대명사가 많이 출현하고 주어와 '来'의 긴밀 정도가 매우 강하며 '来'는 아직 문법화하고 있어서 '来v'와 '来'는 구분하기가 힘들다. 相元真莉子(2010)는 'NP+来+VP'에서 '来'는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표현하는 낱말이라고 주장하고, VP는 발화자 생각에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하는 일이며 NP는 행위자라고 지적하였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는 '来/去'가 다른 동사 앞에 사용되면 구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도대체 주어인 행위자의 의지인지 화자의 의지인지를 명확히 지적하지 않아서 모호하다. 그 후에 일부 학자들은 '我'의 예문을 위주로 연구해서 '来/去'가 행위자의 의지를 강조한다고 여겼다. 相元真莉子(2010)는 비교적 명백하게 '来/去'가 발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보여준다고 제시

했다. 박지혜(2009)는 '来/去'를 생략하더라도 구문은 '어떤 일을 하려고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고 지적하였다. 하지만 생략 여부로만 검증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본다.

(9) a. 我要吃这个。
나는 이것을 먹을 거야.
b. 我吃这个。
나는 이것을 먹을게.

예문(9b)에서 '要'는 생략될 수 있는데 생략 전후의 의미 차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要'가 발화자의 의지를 못 나타낸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는 논거 불충분이나 논리성 부족의 결과로 이어진다. 따라서 본고는 '来/去'의 의지의미를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동의미를 지닌 '来v/去v'에서 어떻게 이동의미가 사라지고 의지의미가 나타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陈晓蕾(2010)는 '我+来+V(P)' 구문을 분석하였고, 구문에 발화자가 주동적으로 책임을 지려하는 의미와 발화자가 행위권을 표명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런 구문의미는 '来'에서 비롯되었고 '来'가 [+책임] 의미를 더 강조시킨다고 하였다. 김주희(2011)는 더 확장해서 모든 인칭대명사를 고찰하여 이 구문이 기본적으로 '실현되어야 할 동작 행위를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주어 위치에 출현한 행위자가 책임지고 실행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来'는 행위자 S를 표시하는 '행위자 표지'라고 했다. 구문 전체가 '책임의미'를 나타낸다는 견해 역시, 예문(8a)와 예문(8b-c)를 비교해보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따라서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상 논의들은 모두 유의미하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대해 지지하는 부분도 있고,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다. 정리하면 '来v/去v'에 이동의미가 있으면 학자들의 의견은 거의 Chao(1968:479), 朱德熙(1982:166)와 같고 '来v/去v'가 뒤의 동사의 '목적'을 표시한다고 주장한다. '来/去'에 이동의미가 없을 경우 학자들의 연구 결과는 아래와 같이 귀납될 수 있다.

<table>
<tr><td>张伯江(2000:133-134), 王国栓(2005)</td><td colspan="2">목적의미</td></tr>
<tr><td>吕叔湘(1984:308-309), 马庆株(1997), 刘月华(2001:703), 陈贤(2007) 등</td><td rowspan="4">의지</td><td>어떤 일을 하려고 함</td></tr>
<tr><td>郭春贵(1987) 등</td><td>1인칭: 적극적인 주동의지
2인칭: 요청/권유</td></tr>
<tr><td>汤延池(1979) 등</td><td>来: 권유/제안</td></tr>
<tr><td>辛承姬(1998), 陈贤(2007) 등</td><td>来: 행위자의 주동적 의지를 강조</td></tr>
<tr><td>相元真莉子(2010)</td><td></td><td>来: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td></tr>
<tr><td>黄宣范(1997), 石毓智・白解红(2007), 王统尚(2009) 등</td><td colspan="2">(준)미래시제 표지</td></tr>
<tr><td>허성도(2002) 등</td><td colspan="2">추상적 심리적 이동</td></tr>
<tr><td>鲁晓琨(2006) 등</td><td colspan="2">来: 대조초점 표지</td></tr>
<tr><td rowspan="2">陈晓蕾(2010) 등
김주희(2011) 등</td><td colspan="2" rowspan="2">구문의미 [+책임]</td></tr>
<tr><td>来: 책임의미 강화</td></tr>
<tr><td>来: 행위자 표지</td></tr>
<tr><td colspan="3">일부 학자는 '来'가 말투를 부드럽게 하는 기능이 있다는 것에 동의함</td></tr>
</table>

〈표1-1〉 선행연구에 나타나는 주요 관점 정리

이상에서 'S+来/去+VP' 구문에 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서 대부분의 논문은 주로 단수형 인칭대명사 특히 '我'의 예문을 사용해서 연구했다. 즉, S를 강조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온 반면, 행위자인 S가 누구인지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은 관심을 기울여 왔음을 알 수 있다.[4] 따라서 후자에 대한 연구도 필요해 보인다. 필자는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크게 S를 강조하는 경우와 S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로 나누었다. 그리고 선행연구에서는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명사구, 동사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하지 않았고 어떠한 동사성 성분과 명사성 성분이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고는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앞에서 제시한 한계를 보완하고, 좀 더 깊이 있고 유의미한 연구를 이루고자 한다.

4) 김주희(2011)에서는 'S+来+VP' 구문에 S가 청자와 화자를 모두 포함하는 '我们'인 경우를 관찰했고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동작행위를 같이 하자고 제안함'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1.3. 연구방법 및 내용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먼저 구문에서 출현할 수 있는 동사를 추출하는 작업과 연구 범위 등을 설명하겠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고에서는 비이동 'S+来/去+VP' 구문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来/去' 앞에 전치사구나 동사구가 존재할 경우는 논의에서 배제할 것이며, 가장 기본적인 구문 형식을 집중적으로 연구할 것이다.[5] 다만 S를 강조할 때 S 앞에 출현하는, 행위자 역을 도입하는 전치사 '由/让'의 예문은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

(10) a. 用理性去说服人，用暴力去消灭暴力。 (BCC)
이성으로 사람을 설득하고, 폭력으로 폭력을 소멸시킨다.

b. 卢梭主张政府必须依据法律来治理国家。 (BCC)
루소는 정부가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서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 尽一切力量来完成计划。 (现代汉语八百词)
온 힘을 다해 계획을 완수한다.

d. 身为领薪下属，就得努力帮老板去想如何执行推进改革。 (BCC)
월급을 받는 부하로서 사장을 도와 어떻게 개혁을 추진할지를 생각해야 한다.

둘째, 'S+来/去+VP' 구문에 대한 예문은 주로 북경대학 중국언어학연구센터가 개발한 CCL 코퍼스[6], 북경어언대학 국제한어교육기술개발센터가 제공한 BCC 코퍼스[7]를 통해 추출했다. 'Baidu'를 통해 추출한 예문들은 모국어 화자들의 검증을 받아 자연스러운 예문만 선택하여 실었다.

셋째, 객관적인 판단과 분석을 위해, 어감에 따라 문장 수용성의 차이를 보이는 예문에 한해서 중국인 화자 22명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어감 설문조사를 했다.[8]

5)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후속 연구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다룰 것이다.
6) http://ccl.pku.edu.cn
7) http://bcc.blcu.edu.cn
8) 결과보어가 없는 문장을 포함하여, 총 66개 문장에 대해 어감 조사를 실시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S+来/去+VP’ 구문의 다양한 언어 현상을 여러 가지 이론을 이용하여 해석할 것이다. 먼저 Li & Thompson(1981), 徐烈炯(1995), 陈平(2015) 등의 지시성에 대한 이론으로 주어 및 목적어의 지시성을 분석하였다. Hopper & Thompson(1980), 马庆株(1988) 등의 자주성에 대한 개념과 Smith(1997), 陈前瑞(2008), 左思民(2009)의 상(aspect)에 대한 이론으로 동사의 의미적 특성과 상적 특성을 탐색하였다. 또한 Chao(1968), 陆俭明(1997), 吴福祥(2001), 石毓智(2003), 박정구(2003), 董秀芳(2017) 등의 결과보어에 대한 연구를 기반으로 ‘S+来/去+VP’ 구문에 출현할 수 있는 결과보어를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외에 刘月华(1998)의 방향보어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S+来/去+VP’ 구문에 출현할 수 있는 방향보어에 대해 분류하고 고찰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Lambrecht(1994)의 정보구조 이론(Information Structure)을 통해 ‘S+来/去+VP’ 구문의 초점구조를 분석하였으며 구문의미를 귀납하였다. 마지막으로 Bybee 외(1994), Botne(2006), Hilpert(2008), Heine 외(2017)가 제시한 ‘come-future’, ‘go-future’의 문법화 경로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来/去’의 기능과 차이점을 밝혔다.

본고는 일곱 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술 순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제2장에서는 ‘S+来/去+VP’ 구문에서 주어와 목적어 위치에 어떠한 명사성 성분이 출현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기 위해 주어와 목적어의 지시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제3장에서는 코퍼스를 통해 ‘S+来/去+VP’ 구문이 동사 선택에 있어 어떤 제약이 있는지를 고찰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타동성, 자주성, 그리고 Smith(1997)가 제시한 동사의 상황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동사의 상적 특성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제4장에서는 ‘S+来/去+VP’ 구문에 어떠한 동보식 동사가 출현할 수 있는지를 자세하게 살피면서, 동사의 선택제약을 입증할 것이다.

제5장에서는 주로 Lambrecht(1994)의 정보구조 이론을 바탕으로 ‘S+来/去+VP’ 구문의 정보구조를 살필 것이며 구문에 어떠한 초점구조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면서, 구문의미를 제시하고자 한다.

제6장에서는 범언어적인 시각으로 이동동사가 어떻게 미래시제 표지로 발전하는지에 대해서 고찰할 것이며 중국어 ‘来/去’와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중국어 ‘S+来/去+VP’에서 ‘来/去’의 주요 기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제2장 주어와 목적어의 지시성

이 장에서는 'S+来/去+VP' 구문에 명사성 성분 주어와 목적어의 지시적인 의미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Saeed(1997:18)는 개체를 식별하기 위한 명사와 대명사의 사용에 있어서 지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런 지시적 의미를 가지는 가장 전형적인 언어 표현은 명사구이다. Chafe(1970:187-188)에서는 화자가 지시대상의 실체에 대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청자도 알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정적(definite) 지시 표현을 사용한다고 했다. 반면 청자가 알지 못한다고 추측하면 비한정적(indefinite) 지시표현을 사용한다. Li & Thompson(1981)에 의하면, 명사구는 지시적(referential)으로 쓰일 수도 있고 비지시적(nonreferential)으로 쓰일 수도 있다. 비지시 명사구는 어떤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질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명사구가 어떤 실체(entity)를 가리키는 경우는 지시적이다. 이러한 실체는 물질적이거나 혹은 개념적인 것일 수도 있고, 사실적인 것 혹은 가정(假定)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단수 혹은 복수일 수 있다. 그리고 지시적인 명사구는 다시 한정적인 것과 비한정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한정명사구는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알고 있는 실체를 가리킨다.

<table>
<tr><td rowspan="3">명사구</td><td colspan="2">비지시적</td></tr>
<tr><td rowspan="2">지시적</td><td>한정적</td></tr>
<tr><td>비한정적</td></tr>
</table>

〈표2-1〉 명사구의 지시성 (Li & Thompson[1981])

그리고 비한정 명사구는 다시 특정(specific) 명사구와 비특정(non-specific) 명사구로 나눌 수 있다.[9] 특정 명사구는 지시체에 대해 화자만 알고 있을 경우에 사용되고 비특정 명사구는 화자와 청자가 지시체에 대해 모두 아는 경우에 쓰인다. 徐

9) Definite: The speaker thinks both he and the listener knows the noun.
Indefinite: a. Specific: The speaker thinks only he knows the noun.
b. Non-specific: The speaker thinks neither he nor the listener know the noun.

烈炯(1995:254-257)은 중국어 명사구의 지시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table>
<tr><td colspan="3">총칭(Generic)</td></tr>
<tr><td rowspan="3">개체지시(Nongeneric)</td><td colspan="2">한정(Definite)</td></tr>
<tr><td rowspan="2">비한정(Indefinite)</td><td>특정(Specific)</td></tr>
<tr><td>비특정(Nonspecific)</td></tr>
</table>

〈표2-2〉 명사구의 지시성 (徐烈炯[1995])

본고는 주로 이상 관점을 참고해서 중국어 명사구의 지시성에 대해 분석을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陈平(1987)은 한정성 유무에 따라 지시표현을 아래의 일곱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고[10] 각 유형의 한정성을 다음 표와 같이 제시했다.

형식	한정적	비한정
A 인칭대명사	+	
B 고유명사	+	
C '这/那'+(양사)+명사	+	
D 맨명사(bare noun)	(+)	(+)
E 수사+(양사)+명사	(+)	(+)
F '一'+(양사)+명사		+
G 양사+명사		+

〈표2-3〉 명사구 한정성의 형식적인 분류 (陈平[1987])

저자는 형식에 입각하여 A, B, C를 전형적인 한정 형식으로, F, G를 전형적인 비한정 형식으로 분류하였다. D, E류는 상황에 따라 한정적인 성분이 될 수도 있고 비한정적인 성분도 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분류 방식을 가지고 주어의 지시

10) D조의 맨 명사는 수사, 양사, 지시사 등 부가성분을 가지지 않는 명사를 가리킨다. E조의 수사는 '一', '二'와 '几' 등 수량사를 가리킨다. F조의 '一'는 E조의 정규 수사보다 허화된 수사이다. 종종 경성으로 읽어 강세를 가질 수 없다.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a. 如果大家有一碗饭就够了，我也不要求给我两碗饭。(E)
b. 我就递上了(一)支烟。(F)

성에 대해 하나씩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정성과 관련이 있는 총칭성(generic)에 대해서도 볼 것이다.[11] 총칭적 명사구는 특정 개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류(kind)를 일컫고 특정 속성(property)을 공유하는 지시대상들로 이루어진 단체를 의미한다. 총칭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Stockwell, Schachter & Partee(1973)는 총칭 명사구를 '명사의 부류를 지시하고 특정 대상을 가리키지 않는' 비지시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Dahl(1973:9)은 명사구는 그 자체에 총칭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술어에 의해 총칭성을 부여받는 것이라고 하였다. 陈平(2015)에서는 총칭 용법은 복잡한 개념인데, 비록 어떠한 특정 개체를 가리키지 않지만, 하나의 특정한 종류를 가리킨다고 하였고, 어떤 의미에서는 한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중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본고는 Dahl과 陈平의 주장에 입각하여 분석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에서 본고는 '한정'을 완전히 통사적인 형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용적인 의미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것이다.

Lambrecht(1994:6, 77-78)는 확인가능성(identifiability)을 제시하였는데 확인가능성이란 발화 시 청자 마음속 담화 지시체의 심적 표상의 상태에 대한 화자의 추정과 관계된다. 이는 확인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으로 이분되는데 확인가능한 지시체는 발화 시 화자와 청자의 마음속에 공유되는 지시체인 반면에, 확인불가능한 지시체는 화자만 인지하고 있는 지시체라고 설명하였다. 본고에서의 '한정'은 발화환경에 따라 달라지고 단순히 한정과 비한정으로 나뉘지 않으며 하나의 연속체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가능성과는 개념적으로 구분되지만 정도의 차등을 갖는다는 공통점을 가진다.[12]

2.1. 주어의 지시성

CCL에서 추출한 언어 자료를 토대로 보았을 때 주어는 주로 대명사나 고유명사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인칭대명사인 경우를 보자.

---

11) generic: The speaker refers to a kind of noun but not to a particular referent of the noun.
12) 한정성/비한정성의 대조는 원칙적으로 '예', '아니오'의 문제이지만 확인가능성은 정도의 문제다.

(11) a. 我来养你。
제가 당신을 책임지겠습니다.
b. 你来回答我的问题。
제 질문에 대답해보세요.
c. 由他去实现复辟资本主义的美梦。
그가 자본주의 부흥의 꿈을 실현시킬 것입니다.
d. 保卫祖国、建设祖国的重担由我们去挑。
조국을 수호하고 건설하는 무거운 책임은 우리가 질 것입니다.
e. 我们来处理吧。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예문을 통해 의문대명사의 경우를 보자.[13)]

(12) a. 那么谁来保证我的安全呢？
그러면 누가 제 안전을 보증하죠?
b. 谁去作主解决，何时解决，怎样解决？不得而知。
누가 책임지고 해결하고, 언제 해결하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재귀대명사의 경우를 보자.[14)]

---

13) '谁'는 일반적으로 화자가 누가 동작을 할지에 대해 모르는 상황에서 청자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즉, 화자의 머릿속에 자신은 모르고 청자만 안다고 가정한 것이다. 이때는 '지시성' 정의의 전제를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谁'의 지시성을 확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고는 '谁'를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

14) Li & Thompson(1981:137)에 의하면, '自己'는 '자신'을 의미하고 재귀대명사로 쓰일 경우 '(대명사)+自己'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즉, 이러한 형태는 지시하는 대상과 문장의 주어가 지시하는 대상이 공지시적임을 의미한다고 했다.
a. 李四责备(他)自己。
b. 我跟(他)自己生气。
c. 他给(他)自己写了一封信。
따라서 재귀대명사의 지시성은 앞에 나타난 문장의 주어에 달려 있으며 일반적으로 한정적인 성분으로 여긴다. 본 고에서는 재귀대명사의 지시성을 따로 분석하지 않겠다.

(13) a. 都该由那些人自己来决定。
모두 그 사람들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b. 是非黑白，你自己去评断！
시비와 흑백은 스스로 판단하세요!

다음 예문을 통해 주어가 고유명사인 경우를 보자.

(14) a. 自然应该由比尔博来结束这一切。 (인명)
당연히 빌보가 이 모든 걸 끝내야 합니다.
b. 由柯湘去发现矛盾、解决矛盾。 (인명)
커샹이 모순을 발견하고 해결할 것입니다.
c. 全球贸易规则主要由世界贸易组织来制定。 (기관명)
전 세계 무역 규칙은 주로 세계무역기구가 제정한다.
d. 中国的事务只能由中国来解决。 (국명)
중국의 사무는 중국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e. 这笔赔偿应由平安保险公司去付。 (기업명)
배상은 보험회사가 지불해야 한다.

예문을 통해 주어 자리에 주로 유정성을 가진, 사람을 대표하는 대명사 특히 인칭대명사와 고유명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陈平(1987)에서는 중국어 명사구의 지시성에 대해 일곱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인칭대명사/고유명사/'这/那'+(양사)+명사 형식은 강한 한정 형식에 속한다. 해당 형식의 강한 한정성에 대해서는 陈平(1987)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이 언급하였다.[15] 王

15) 인칭대명사는 다시 1인칭대명사(我/我们/咱们), 2인칭대명사(你/你们), 3인칭대명사(他/她/他们)로 나눌 수 있다. 1/2인칭대명사는 일반적으로 화자와 청자를 가리킨다. 대화에서 문맥이 없어도 대화 참여자들이 지칭물을 알고 있어서 한정적인 성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3인칭대명사는 일반적으로 화자와 청자를 제외한 제삼자를 가리키는 데에 사용되고 대화 참여자가 모두 공유하는 지식 배경 아래 존재하는 제삼자를 가리키거나 이미 앞 문장에 나온 명사를 가리켜서 한정적인 성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유명사가 지칭하는 것은 세상에서 유일한 사물이라서 화자와 청자의 머릿속에 공유된 정보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서 아무런 전제가 없어도 대화 참여자들은 그 지칭물을 인지하고 있고 따라서 한정적인 성분이다.

红旗(2015)에 의하면, 체언 성분의 지시성에 강약의 차이가 존재하고 지시대명사, 인칭대명사, 고유명사, 일반명사, 동사/형용사는 지시성의 연속체(continua)를 이룬다. 이 중 지시대명사/인칭대명사/고유명사는 지시성이 강하다. 이상의 서술을 정리하면 주어 자리에 한정성이 강한 성분이 자주 온다. 이어서 주어가 전형적인 한정형식이 아닌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다.

먼저 주어 자리에 '수사+양사+명사' 형식이 오는 경우를 고찰해보자.

(15) a. *一个人来/去承担责任。 a′. *责任一个人来/去承担。
b. *一个学生来/去承担责任。 b′. *责任一个学生来/去承担。

예문에서 '一个人/一个学生'은 화자와 청자가 모두 모르는 지시체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때 주어는 비특정적이고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16] 그러나 단지 수량의 미만 가진 '수사+양사+명사' 형식은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16) a. 这个项目得两个人来/去负责。有意向的人请举手。
이 프로젝트는 두 사람이 책임져야 해요. 의향이 있는 사람은 손을 들어주세요.
b. 一会儿打扫寝室。我负责擦灰。地一个人来扫，一个人来拖。你们分吧
잠시 후에 기숙사를 청소해야 해요. 나는 먼지를 닦을게요. 바닥은 두 사람이 분담해서 한 명은 쓸고 한 명은 닦아야 하니 둘이서 상의해서 정하세요.

위의 예문을 보면 모두 업무를 분배하는 상황을 나타내고 일을 분담하는 데 필요한 사람 수를 나타낸다. 이때 수사는 단순히 수량만 나타낼 뿐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17] 때문에 해당 형식의 지시성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예문(15)와 다른 것은 예문(16)에서 '수사+양사+명사'는 불

16) '一个学生'은 상황에 따라 특정적일 수도 있다. '一个学生来v找你。'는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수사+양사+명사'가 표시하는 실체는 화자만 알고 청자는 모르는 것이다. 따라서 '学生'은 비한정적이고 특정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17) '一锅饭可以吃十个人。'과 비슷하게 여기서 '十个人'도 단지 수량의미만 나타낸다.

특정 개체를 나타내지만 일을 분담할 때 청화자가 모두 현장에 있기 때문에 결국 지시표현이 나타내는 바는 그들 중에 있고 이들이 속한 집단은 한정적이게 된다. 그러므로 지시대상이 상대적으로 확인가능하다.[18)]

발화 상황에 따라 '수사+양사+명사'가 지칭하는 지시체가 조금 더 명확한 경우도 존재한다. 다음 예문을 보자.

(17) a. 都已经决定好了。这件事两个人来/去处理就行了，你们不要再议论了。
이미 다 결정됐어요. 이 일은 두 사람이 처리하면 되니까 너희들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

b. (모든 일은 내가 했어. 너는 반드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해!)
不行！两个人做的事，怎么能由一个人来/去承担！这责任应该我们两个人来/去负！
안 돼! 두 사람이 한 일을 어떻게 한 사람이 책임지게 해! 이 책임은 우리가 함께 져야 해.

이처럼 '수사+양사+명사'가 가리키는 실체는 발화환경에 따라 활성화되어 한정성을 가질 수 있다. 예문 (17a)에서 화자는 이미 일을 맡길 두 사람을 생각해 놓은 상태이고 청자들 역시 '两个人'에 대해 알고 있다. 예문(17b)도 마찬가지로 '一个人'은 청자를 가리키고 '两个人'은 청자와 화자를 뜻한다. 요컨대 한정성이 있거나 단순히 수량의미를 가진 '수사+양사+명사' 형식은 'S+来/去+VP'에 출현할 수 있다.

다음으로 주어가 비한정적이면서 특정적인 명사구(화자만 알고 청자가 모르는 실체)인 경우를 '有'와의 결합양상을 통해 고찰할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보자.

(18) a. ?有个人来v/去v处理这件事。 a′. *这件事有个人来/去处理。
b. ?有些学生来v/去v处理这件事。 b′. *这件事有些学生来/去处理。

(19) a. 有人来/去处理这件事，你别担心！ a′. 这件事有人来/去处理！
이 일을 처리할 사람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

---

18) Lambrecht(1994:109)에 따르면 예문(15)에서 '一个人/学生'은 확인불가능한-최신 고정(brand-new anchored)의 지시체이고, 예문(16)에서 '一/两个人'은 확인불가능한-고정 지시체(unidentifiable anchored)에 속한다.

b. 有学生来/去处理这件事，你不用管！ b′. 这件事有学生来/去处理！
이 일을 처리할 학생이 있으니 걱정하지마!

예문(18)과 예문(19)를 비교해 보면 S는 '有+수사+양사+명사'일 때 'S+来/去+VP' 구문에 출현할 수 없다.[19] 하지만 S가 '有+맨명사'일 때는 구문에 출현할 수 있고 문장은 '누군가 이 일을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뜻이다. 이러한 경우에 '人/学生'은 화자가 알고 있는 대상이고 청자만 모르는 상태이다.

'有+수사+양사+명사'와 '有+맨명사'는 '的'와의 결합과 정반의문문(正反疑问句)에서의 사용양상도 다르다.

(18′) a. *有处理这件事的一个人。
b. *没有处理这件事的一个人。
c. *有没有处理这件事的一个人？
(19′) a. 有处理这件事的人。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있어.
b. 没有处理这件事的人。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없어.
c. 有没有处理这件事的人？
이 일을 해결할 사람이 있어?

예문을 보면 '有+맨명사' 형식은 '有/没有+V的+N'으로 전환할 수 있지만 '有+수사+양사+명사' 형식은 '有/没有+V的+N'으로 전환할 수 없다. 朱德熙(1982:168)도 연동구문 '有+N+V'에 대해 분석한 바 있는데 구문의 특징으로 '有+V的+N'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 예로 '有可能下雨=有下雨的可能', '有钱买书=有买书的钱' 등을 들었다. 蔡维天(2004)은 술어 '有'와 관형어 '有'를 구분하였고 '有人'의 '有'는 술어로, '有些'에서의 '有'는 관형어로 분류했다. 전자는 부정문과 정반의문문에서 사용할 수 있고 후자는 부정문과 정반의문문에서 사용할 수 없다.[20]

---

19) '有个人来/去处理这件事'는 문말에 '了'를 붙이면 성립할 수도 있지만, 이동의미가 있는 '来v/去v'로만 이해된다.
20) 저자의 분류를 수형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따라서 필자는 ‘S+来/去+VP’ 구문에서 S가 ‘有+맨명사’인 경우는 연동구문으로 여길 것이다. 정리하면 ‘S+来/去+VP’ 구문에 특정적인 ‘有+수사+양사+명사’ 형식이 나타날 수 없다. 특정적인 ‘有+맨명사’ 형식은 나타날 수 있지만 ‘有’는 동사이며, 구문은 일종의 연동구문이다.

다음은 주어가 개체를 지시하지 않고 총칭인 경우를 살펴보겠다. 총칭의 전형적인 형식은 맨명사다. 다음의 예문을 보자.

(20) a. ?学生来/去处理这个问题。 a′. ?这个问题学生来/去处理。

b1. 学生是学习活动的主体，学习活动应该由学生来/去主导，而不是老师。
학생은 학습활동의 주체이기 때문에 학습활동은 교사가 아니라 학생이 주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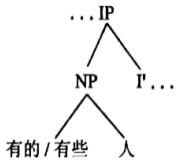
b2. 孩子的未来只能由孩子自己来/去创造。
아이의 미래는 아이 스스로 만드는 수밖에 없다.

c1. 这个问题我们学校的学生来/去处理。
이 문제는 우리 학교 학생들이 처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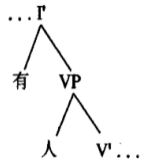
c2. 学生们来/去处理这个问题。
이 문제는 학생들이 처리할 것이다.

예문(a)의 맨명사 ‘学生’은 ‘学生是祖国的花朵’에서 처럼 단지 부류를 의미하고 문장이 부자연스럽다.[21] 예문(b1)에서는 학생과 선생님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다. (b2)는 ‘只能’이 있어서 비록 언급되지 않았지만 ‘孩子’, 그리고 이와 구분되는 그룹을 대조시키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두 개의 개체/그룹이 대조를 이룰 때 이들은 비록 맨명사 형식이지만 한정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대조가 있을 때 총칭의미가 있는 맨명사는 한정된 종류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石毓智

관형어 ‘有’



술어 ‘有’



21) 하지만 만약 청자가 ‘学生’과 대조되는 그룹을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문장은 성립한다.

(2003)는 Langacker(1991:101)의 관점을 기반으로 한정성 개념의 핵심 요소는 하나의 인지적 영역의 일부 구성원을 표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수학의 각도로 보면 인지적 영역은 '집합'이고, 구성원은 '원소'이다. 따라서 한정성은 하나의 집합에서 일부 원소를 확립하는 것이다. 한정성은 반드시 '집합'과 '원소' 두 요소가 있다고 했다. 이로 인해 총칭적인 맨명사는 단독적으로 나타나면 한정적이지 않다. 만약 다른 대립적인 그룹과 조합하여 하나의 큰 집합을 이룬다면 총칭의미가 있는 맨명사는 특정된 한 종류를 의미해서 한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어가 한정적인 자질을 갖게 되면 문장은 더 자연스러워진다. 예문(c1)에서 '学生' 앞에는 수식 성분 '我们学校'가 사용되었다. 이런 경우 수식 성분으로 인해 지시체의 범위를 좁힐 수 있어 한정적인 성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주어는 복수표지를 사용함으로써 한정성을 얻기도 한다. 童盛强(2002), 石毓智(2003)에 의하면, '们'은 복수표지뿐만 아니라 한정적인 지시의미를 지닌다. '们'이 사람을 나타내는 명사(구) 뒤에 부가되면 한정적인 집단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따라서 예문(c2)는 '学生' 뒤에 한정성이 있는 '们'을 사용하여 이 구문에 들어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어가 비한정적인 '一+(양사)+명사'와 '양사+명사'인 경우를 보자.

(21) a. *一学生来/去处理这件事。 a′. *这件事一学生来/去处理。
b. *个学生来/去处理这件事。 b′. *这件事个学生来/去处理。

위의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주어 위치에 '一+(양사)+명사' 또는 '양사+명사' 형식이 출현할 때 문장은 모두 비문이 된다.

지금까지 'S+来/去+VP' 구문에 나타나는 주어(S)의 지시성을 살펴보았다. 특별한 경우(표2-4 4번)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S 자리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전형적인 한정 유형1(표 1번)이고 전형적인 비한정 유형3(표 3번)은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 유형2(표 2번)은 문맥이나 한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통해 한정성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만 문장이 성립한다. 요컨대 S는 유정적(animate)인 사람으로서[22] 대부분이 한정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정성이 강할수록 문장은 더 잘 받아들여진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2) 환유를 통해 사람으로 이루어진 기관, 나라, 기업 등도 나타날 수 있다.

유형		한정성	성립 여부
1	인칭대명사 / 고유명사 / 지시대명사	+	√
2	맨명사 / 수사+양사+명사	+	√
		-	X
3	有+수+양+명 / '一'+(양)+명 / 양사+명사	-	X
4	연동구문: 有+맨명사	-	√
	수량의미: 수사+양사+명사	?[23]	√

〈표2-4〉'S+来/去+VP' 구문에 나타나는 주어의 지시성

2.2. 목적어의 지시성

분석 결과 S를 강조할 때 'S+来/去+VP'는 'O+S+来/去+V' 구문으로 바꿀 수 있고 두 구문에서 목적어는 생략할 수 있다. 즉, 목적어가 'O+S+来/去+V'와 같이 화제 위치에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Li & Thompson(1981:15, 85)에서는 표준중국어를 화제 부각 언어(topic-prominent language)라고 주장했다. 화제는 문장이 진술하는 대상이다. 그리고 화제는 항상 문장의 맨 앞에 나오며, 화자는 항상 청자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을 화제로 제시한다. 따라서 화제는 일반적으로 한정적이다. 이를 가지고 미루어 본다면 'O+S+来/去+V'에서 목적어가 화제 위치에 나타나기 때문에 한정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어서 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목적어의 한정성을 고찰해보자.

먼저 목적어가 '(一)+양사+명사' 형식인 비한정적 성분인 경우를 살펴보자.

(22) a. 他来v/去v处理(一)件事。 a′. *(一)件事他来/去处理。
그는 어떤 일을 처리하러 왔/갔다.
b. 我来v/去v接(一)个人。 b′. *(一)个人我来/去接。
나는 어떤 사람을 데리러 왔/갔다.
c. 我来v/去v承担(一)点责任。 c′. *(一)点责任我来/去承担。

23) 지시성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로 표시하였다.

나는 어떤 책임을 지러 왔/갔다.

비한정적일 경우 ‘O+S+来/去+V’ 구문은 성립할 수 없다. ‘S+来/去+VP’ 구문은 문장이 성립하더라도 공간적 이동의미를 나타낸다. 즉, 비한정적인 성분은 공간적 이동의미가 없는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 또한 문장은 행위자 S를 강조하지 않고(누가 VP를 할 것인지) 행위자가 할 동작을 강조한다.

다음은 목적어가 ‘这/那’+양사+명사’ 형식인 한정적 성분인 경우이다.[24)]

(23) a. **我**来/去承担这个责任。 a′. 这个责任**我**来/去承担。
이 책임은 내가 지겠다.
b. **他**来/去处理那件事。 b′. 那件事**他**来/去处理。
그 일은 그가 처리할 것이다.
c. **我**来/去接那个女孩儿。 c′. 那个女孩儿**我**来/去接。
그 여자애는 내가 데리고 올게.

목적어가 한정적일 경우 문장은 모두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S는 강세를 가질 수 있다. 이때 문장은 행위자 S를 강조하기 때문에 ‘谁’를 가지고 이에 대해 질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来/去’에는 공간적 이동의미가 거의 없는데 특히 ‘来’의 이동의미는 완전히 사라진다. ‘去’의 경우 목적어가 구체적일 때(23bc) ‘去’는 공간적 이동의미를 수반하지만, 문장이 행위자를 부각시켜서 이동의 의미는 중요시되지 않는다. VP가 추상적인 동작일 때 ‘去’는 공간적 이동의미를 완전히 상실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는 다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구문은 ‘~가 ~을 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VP는 행해질 동작을 나타내는데, 동작은 반드시 ‘去’라는 동작이 선행되어야만 행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쉽게 말해 VP의 조건으로서 ‘去’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은 동작을 나타내지 않는다. 이때의 ‘去’는 행위자의 의향을 뜻하므로 추상적이고 시간적인 이동의미로 볼 수 있다. 둘째, 이동의미가 없는 ‘来/去’는 음성적으로 약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이들이 동사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방증한다.

24) 본장에서는 강세가 있는 부분을 굵은 글씨로 표시할 것이다.

다음은 목적어가 맨명사인 경우이다.

(24) a. **我**来/去洗碗。
그릇은 내가 씻을게.
a′. 碗**我**来/去洗。

b. **你**来/去装箱子。
상자는 네가 담아.
b′. 箱子**你**来/去装。

c. **我**来/去承担责任。
책임은 내가 질게.
c′. 责任**我**来/去承担。

목적어가 맨명사의 형식을 가질 때 문장은 목적어가 한정적일 때와 많은 공통점을 가진다. 먼저 행위자 S가 강조되고 강세를 갖는다. '去' 역시 (23)에서와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구체적일수록 이동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비록 목적어가 맨명사이지만 문맥에 의해 활성화되어 화자와 청자가 모두 아는 실체를 가리기고 따라서 한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S+来/去+VP'는 발어문으로 사용할 수 없고 목적어를 전제하는 맥락을 필요로 한다. 결론적으로 목적어가 맨명사일 때 목적어는 한정적인 지시체를 가리키고 총칭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된다.

S에 강세가 없는 경우, 구문에는 변화가 생기며 이러한 변화는 'O+S+来/去+V'에서는 발생하지 않고 'S+来/去+VP'에서만 발생한다.

(25) (他来v/去v做什么？ 그는 뭐하러 왔어/갔어?)

a. 他来v接那个女孩儿。
그는 여자애를 데리러 왔다.
a′. 他去v接那个女孩儿。
그는 여자애를 데리러 간다.

b. *那个女孩儿他来v接。
b′. *那个女孩儿他去v接。

(25a)에서 S에 강세가 없으면 '来/去'는 모두 공간적 이동의미가 있는 '来v/去v'로 이해된다. 따라서 문장은 두 개의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동작을 보여준다. 문장에서 S는 강조되지 않고 술어 부분이 강조되며 이에 대해 '做什么'로 질문할 수 있다. S는 선행 담화에서 언급되거나 직시적인 상황에 사용된다. 그리고 (25b)에서 알 수 있듯이 구문은 'O+S+来/去+V'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来v/去v’는 ‘来’와 ‘去’를 중복하여 사용하는 ‘S+来1/去1+VP+来2/去2’ 구문에서도 출현한다.[25)]

(26) a. ? 他来v承担这个责任。 a′. 他来1承担这个责任来2了。
그는 책임을 지러 왔다.
b. ? 我去v承担那个责任。 b′. 我去1承担那个责任去2。
나는 책임을 지러 간다.
(27) a. ? 他来v承担责任。 a′. 他来1承担责任来2了。
그는 책임을 지러 왔다.
b. ? 我去v承担责任。 b′. 我去1承担责任去2。
나는 책임을 지러 가겠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목적어가 구체적일 때 구문은 이동의 의미를 띤다. (26)~(27)은 추상적인 목적어를 사용한 예이다. 목적어가 추상적일 때 이동을 나타내는 ‘来/去’가 하나만 오면 문장은 매우 부자연스러운데 이는 목적어가 추상적일수록 ‘来/去’의 이동의미가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말에 또 하나의 ‘来/去’를 더하면 매끄러워진다.

陆俭明(1985)은 공간적 이동의미가 있는 ‘去+VP’와 ‘VP+去’를 비교했다. ‘去+VP’는 행위자가 무엇을 하는지를(VP) 강조하고 행위자의 이동을(去) 강조하지 않는다. 이와 달리 ‘VP+去’는 행위자의 이동을 강조하고 이동의 방향성이 강하다. 张和友・曹婉(2015)에서는 ‘来1+VP+来2’ 구문은 ‘来+VP’에서 파생되었고 목적의미를 표현하는 구문이라고 주장했다. ‘来1’은 본래 동사고 [+이동]의 의미가 있었는데 VP가 나타내는 구체적인 동작이 더 강조되면서 ‘来1’은 문법화가 시작하여 점점 물리적인 이동의 의미를 잃었다. 이로 인해 두 번째 ‘来2’가 나타났고 ‘来1’은 목적표지로 발전하였다. 본 연구는 위의 관점을 지지하여 ‘来1/去1’을 목적표지로 보고, ‘来2/去2’를 방향의미를 나타낸다고 간주하였다.

다음은 목적어가 주변성(周遍性)을 가진 ‘所有’, ‘一切’ 등 총칭양화사를 갖는 경우다. 徐烈炯(1998:192-196)에 따르면, 총칭양화사(universal quantifiers)는 화제성이

25) 해당 구문에서의 첫 번째 ‘来/去’는 ‘来1/去1’로, 두 번째 ‘来/去’는 ‘来2/去2’로 표시하겠다.

가장 강한 성분이다. 이는 강제적으로 전치하는 경향(强制前置倾向)이 있고 특히 구어에서 이러한 경향성이 더 뚜렷하다. 상해 방언에서는 총칭양화사가 반드시 문두나 술어 앞에 출현한다.

(28) a. 你不要为难他，所有费用**我**来承担。
그를 난처하게 하지 마. 모든 비용은 내가 부담할게.
b. 事情已经发生了，你别担心，一切责任**我**去承担。
일이 이미 발생했으니 걱정하지 마.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29) a. 你们大胆去做，一切责任**我**去承担。
너희는 하고 싶은 대로 해, 모든 책임은 내가 질게!
b. 不要害怕浪费钱，所有费用**我**来承担。
돈을 낭비하는 것을 두려워 마, 모든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
c. 一切由你**自己**来/去决定。
모든 것은 네가 스스로 결정해.

주변성을 나타내는 '所有费用', '一切责任'은 문맥에 따라 이미 전제된 것일 수도 있고 곧 도래할 것일 수도 있다. 풀어 말하면 예문(28)에 있는 '모든 비용'이나 '모든 책임'은 선행 사건으로 인해 이미 발생하여 청화자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지시체이고 따라서 한정적이다. 예문(29)에 있는 '모든 비용'이나 '모든 책임'은 발화 시점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동작을 실행하면 반드시 초래할 결과나 대가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들은 이에 대해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주변성 성분은 모두 청화자가 맥락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지시체이고 한정적인 것으로 간주해도 무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S에 강세가 없을 경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경우 구문은 이동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러나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S에 강세가 없어도 구문이 공간적인 이동의미가 없는 'S+来/去+VP' 구조를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은 S가 발화자와 청자를 모두 포함하는 1인칭 복수 '咱(我)们'인 경우이다.

(30) a. 咱们来喝一杯吧！ a′. *一杯咱们来喝吧。
우리 한잔합시다!

b. 咱们去v喝一杯吧！ b′. *一杯咱们去v喝吧。
우리 한잔하러 갑시다!

(31) a. 我们来玩游戏吧！ a′. *游戏我们来玩吧！
우리 게임을 하자!

b. 我们去v玩游戏吧！ b′. *游戏我们去v玩吧！
우리 게임을 하러 가자!

(32) a. 我们来看那部新剧吧！ a′. *那部新剧我们来看吧！
그 새 드라마를 봅시다.

b. 我们去v看那部新剧吧！ b′. *那部新剧我们去v看吧！
그 새 드라마를 보러 갑시다!

예문(30)은 목적어가 '양사+명사'인 경우이고, 예문(31)은 목적어가 '맨명사'인 경우이며, 예문(32)는 목적어가 '那+양사+명사'인 경우다. 예문을 통해 목적어가 구체적이면 앞의 세 형식이 'O+咱(我)们+来/去+V' 구문에 모두 나타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咱(我)们+来/去v+VP' 구문에는 나타날 수 있다. 구문에서 '咱(我)们'은 대화 참여자들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맥락에서 대조의미가 부각되지 않으며 '一起'와 자주 같이 출현하여 청유나 제안의 어기를 나타낸다. '来/去v'를 보면 '来'에는 이동의미가 전혀 없지만, 동작이 구체적이어서 '去v'에는 공간적 이동의미가 있다. 즉, 목적어가 구체적인 경우에만 '咱(我)们+来+VP' 구문에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는 청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화자의 제안을 나타내기 때문에 발어문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때 청자와 화자는 모두 같은 실제적인 공간에 있기 때문에 '양사+명사', '맨명사'의 형태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활성화되어 있다. 즉, 목적어가 한정적이다. 그러나 가끔 목적어가 청자는 모르고 화자만 아는 것을 지시할 수 있고 청자와 화자가 모두 모르는 것을 지시할 수도 있다. 예컨대 예문에서 동작의 대상인 음료와 게임, 드라마는 화자가 자신이 특정하고 있는 것을 제안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저 해당 동작을 하자는 제안을 나타낼 수도 있다. 즉, 목적어는 특정적일 수 있고 비특정적일 수도 있다.

다음으로 목적어가 추상적일 때의 양상을 살펴보자.

(33) a. *我们来/去实现个梦想！ a′. *个梦想我们来/去实现！
b. 我们来/去一起实现梦想！ b′. 梦想! 我们来/去一起实现！
우리 함께 꿈을 이루자!
c. 我们来/去一起实现这个梦想。 c′. 这个梦想！我们来/去一起实现。
우리 함께 이 꿈을 이루자!

목적어가 추상적이면 전형적인 비한정적인 '양사+명사' 형식만 '我们+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없고 '맨명사', '这+양사+명사' 형식은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这+양사+명사' 형식은 전형적인 한정적 형식이므로 이것이 이미 전제된 지시체를 지시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맨명사'의 경우 해당 구문에 사용되었을 때 청화자가 모두 알고 있는 대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한정적이다. 그러므로 두 형식은 모두 발어문으로 사용할 수 없다. 한 마디로 목적어가 추상적일 때 한정적인 목적어만 나타날 수 있다.[26)]

이상의 주요 관점은 네 가지로 귀납할 수 있다.

① S를 강조하는 경우 이동의미가 없는 'S+来/去+VP'를 나타내려면 목적어가 반드시 한정적이어야 한다. 목적어가 비한정적이면 구문은 공간적 이동의미로 해석된다.

② S를 강조하는 'S+来/去+VP' 구문에서의 S는 강세를 수반한다. 이때는 행위자가 누구인지가 강조되기 때문에 '来/去'의 이동의미가 희석된다.

③ S를 강조하지 않는 'S+来/去+VP' 구문에 S는 일반적으로 대화 참여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목적어가 구체적이면 '来'만 사용할 수 있고 목적어는 한정, 특정, 비특정적일 수 있다. 목적어가 추상적이면 '来', '去'를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来'는 이동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去'는 추상적, 시간적인 이동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목적어는 반드시 청자와 화자가 모두 인지하고 있는 지시대상이다.

④ 목적어가 구체적인지, 추상적인지에 따라 '去'의 의미가 다른데 목적어가 구체적일 경우 '去'는 공간적인 이동의미를 갖는다.

26) 2장에 나타나는 언어 현상들은 정보구조와 관계가 있고 5장에서 더 나아가 다룰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다시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공간 이동 있음: S 안 강조			
목적어 지시성	S+来v/去v+VP	O+S+来v/去v+V	S+来1/去1+VP+来2/去2
비한정	√	X	√
한정			

〈표2-5〉 공간 이동이 있는 경우 목적어의 지시성

공간 이동 없음: S 강조		
목적어 지시성	S+来/去+VP	O+S+来/去+V
한정	√ S-강세 (대조의미)	
'去': 사건이 추상적일수록 공간적인 이동의미가 약해짐.		

〈표2-6〉 공간 이동이 없고 S를 강조하는 경우 목적어의 지시성

공간 이동 없음: S 안 강조 (청화자 모두 포함할 수 있음)				
목적어 지시성		S+来/去+VP		O+S+来/去+V
		来	去	
구체	비한정 한정	√	X (공간 이동)	X
추상	비한정	X		
	한정	√		

〈표2-7〉 공간 이동 없고 S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 목적어의 지시성

제3장 동사의 의미자질과 상적 특성

이 장에서는 'S+来/去+VP' 구문에 출현하는 동사구의 선택제약을 규명하기 위해 동사의 의미와 상적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먼저 타동성과 자주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3.1. 동사의 의미자질

3.1.1. 타동성(Transitivity)

Li & Thompson(1981:141-167)은 동사구의 유형을 목적어가 없는 경우와 하나만 있는 경우, 그리고 둘 있는 경우 세 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각각 자동사(intransitive verb phrase), 타동사(transitive verb phrase), 이중목적어동사(ditransitive verb phrase)다. 자동사는 목적어를 갖지 않고 형용사성 동사(adjectival verb)와 계사(copula)를 포함한다.[27] 타동사는 의미상 두 개의 참여자를 요구하고 하나가 다른 하나에게 어떤 행동을 가한다. 어떠한 일을 행하는 참여자는 주어이며, 행동이 가해지는 대상은 직접목적어이다. 이중목적어동사는 두 개의 목적어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는 직접목적어이고 다른 하나는 간접목적어이다.

2장의 분석에 따르면 행위자 S가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S+来/去+VP' 구문에서 주어와 목적어는 동사의 필수논항이다. 목적어는 한정적인 성분이며, 화제 자리에 위치할 수 있고, 생략이 가능하다. 즉, 동사가 타동사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다.

우선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를 살펴보자.

---

27) 'S+来/去+VP'의 동사에 형용사성 동사와 계사는 나타날 수 없다.
a. *张三来/去很胖。
b. *我来/去是中国人。

(34) a. 我来v/去v坐一会儿。
좀 앉으려고 왔어/좀 앉으러 갈게.
b. 你来v/去v休息会儿吧。
이리 와서/저기 가서 좀 쉬어.
c. 我来v/去v游泳。
수영하러 왔어/가.
d. 我来v/去v旅行。
여행하러 왔어/가.

(35) a. *让帝国主义来哭泣吧！ a′. 让帝国主义去哭泣吧！
제국주의가 울도록 내버려 두어라!
b. *让那些帝国主义反动派来嚎叫吧! b′. 让那些帝国主义反动派去嚎叫吧!
저 제국주의 반동파들로 하여금 울부짖게 해라.

예문(34)에서 '来/去'는 모두 이동의미가 있는 '来v/去v'로 해석된다. 예문(35)를 보면 목적어가 추상적인 'S+去+VP' 구문에 자동사가 사용되었고 문장이 성립한다. 하지만 S 앞에 '让'을 사용할 수 있는데 행위자를 도입할 수 있는 표지 '由'로 바꿀 수 없다. 그리고 S는 뚜렷한 강세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문장이 S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마디로 'S+来/去+VP'에 자동사가 출현하면 구문은 S를 강조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동사가 타동사일 때와 자동사일 때를 비교해보자.

(36) a. **我**来/去跑剩下的50米。 a′. 剩下的50米**我**来/去跑。
나머지 50m는 내가 달릴게.
b. 我来v/去v跑步。 b′. *步我来v/去v跑。
나는 달리기를 하러 왔어/갈게.

(37) a. **我**来/去洗碗。 a′. 碗**我**来/去洗。
설거지는 내가 할게.
b. 我来v/去v洗澡。 b′. *澡我来v/去v洗。
샤워하러 왔어/갈게.

예문(36a-b)의 동사는 모두 달린다는 뜻이다. (36a)에서 동사는 타동사고 'O+S+

来/去+V'에 출현할 수 있다. (36b)에서의 '来/去'는 모두 이동의미가 있는 '来v/去v'다. 동사는 자동사고 구문은 'O+S+来/去+V'로 바꿀 수 없다. 예문(37a-b)는 모두 '洗'를 사용했는데 '洗澡'는 하나의 자동사인 반면 '洗碗'의 '洗'는 타동사고 '碗'은 목적어이다. 예문(37a)는 설거지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강조하고 'O+S+来/去+V'로 바꿔 쓸 수 있다. 예문(37b)에서 '来/去'는 공간적인 이동의미가 있는 '来v/去v'로만 이해할 수 있고 'O+S+来/去+V' 형식으로 바꿀 수 없다. 따라서 S를 강조할 때 구문이 타동사를 선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다른 피행위자를 도입할 수 있으면 타동성이 생겨 자동사인 '洗澡'도 'S+来/去+VP' 구문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38) a. 我来洗澡，你来换尿布。
내가 (아이에게) 목욕을 시켜 줄 테니 네가 기저귀를 갈아.
b. 我来v洗澡。
샤워하러 왔어.

예문(38a)에서 '洗澡'는 S가 샤워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행위자, 예컨대 아이에게 샤워를 시켜준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문장은 타동성을 가진다. 그리고 '换尿布'와 '洗澡'는 명확한 대조를 이루며 한정적이다. 뿐만 아니라 예문(39)처럼 만약 맥락에 대조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명확한 대조적 형식도 존재하면 '来' 구문에 두 개의 자동사가 올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예문은 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예문(39b)처럼 이러한 '대조'가 없으면 문장이 매우 어색하다.

(39) a. 我来哭，你来喊。
내가 울 테니 네가 소리쳐.
b. *我来哭。

다음으로 동사가 두 개의 목적어를 갖는 이중목적어동사구인 경우를 살펴보자. 이런 형식은 이중타동구문이라고 한다. Goldberg(1995:43-46)는 이중타동구문의 주어 논항은 자발적 개체여야 한다고 했다. 자발적 주어란 의도적 행위와 전달을 하

는 행위주체를 의미한다. 아래 예문(40)을 통해 동사가 이중목적어동사구일 때 문장이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0) a. 我来/去寄这封信给他吧。　　a′. 这封信我来/去寄给他吧。
이 편지는 내가 그에게 부칠게.

마지막으로 S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를 보자.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해당 유형에서는 S에 청자와 화자를 모두 포함하는 '我(咱)们'이 자주 출현하고 동사 위치에는 타동사가 올 수 있다.[28] 아래의 예문을 통해 자동사의 경우를 알아보겠다.

(41) a. 这么热的天，我们来游泳吧！
날도 더운데 우리 같이 수영하자!
b. 别闹了，咱们来开会吧！
조용히 해주세요.! 회의 시작합시다!
c. 太累了！咱们来休息一下吧！
너무 힘들어! 우리 좀 쉬자!

(42) a. 我们正青春，勇敢地去奔跑，去欢笑，不要害怕失败。
우리는 한창 청춘이니, 용감하게 달리고, 웃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b. 你(们)应该自己去成长！自己去成功！
스스로 성장하고! 스스로 성공하고 해야 한다!
c. 为了梦想，我得去拼搏，去奋斗！
꿈을 위해, 나는 싸워야 하고 분투해야 한다.
d. 去追去闯去乘风破浪，就算鞋很脏也要笑得像国王，去疯去狂去变成光，少年只属于远方。
쫓고 부딪치며 용감하게 나아가라, 설령 신발이 더러워질지라도 군주

28) 타동사인 예문은 아래와 같다.
a. 我们来/去一起迎接明天的朝阳。우리 함께 내일의 해를 맞이하자.
b. 你应该继续去完成你曾经的梦想，勇敢地去挑战自己！
너는 꿈꾸던 것을 계속 이루어나가고 용감하게 자신에게 도전해야 돼!
c. 去实现你的价值！ 너의 가치를 실현해!

처럼 웃어라! 미칠 것처럼 별빛이 되어라, 소년은 단지 아득한 곳(먼 미래)에 속하니까.

예문(41)과 (42)를 비교해보면 'S+来/去+VP' 구문에 자동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来'와 '去'는 서로 바꿔 쓸 수 없고 사용 환경이 같지 않다. '来' 구문은 구어체로 많이 사용하고 사용 환경이 구체적이고 대화 참여자들은 반드시 사건이 발생하는 공간에 있어야 한다. 예를 들면 '我们来游泳吧!'라는 말을 할 때 청자와 화자는 반드시 함께 현장(수영장)에 있다. '我们去游泳吧!'로 바꾸면 공간적 이동이 있는 '去v'가 된다.

S를 강조하지 않는 'S+去+VP' 구문은 문어체에서 많이 사용하고 일반적으로 '咱们'을 사용하지 않는다. 이는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충고하거나 격려하는 의미를 나타내고 사용 환경이 추상적이다. 그리고 문장에서 S와 '去' 사이에 일반적으로 '得/应该/可以' 등이 나타난다. 고찰해보니 S는 '我们'뿐만 아니라 '你', '你们' 등 다양한 인칭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42b). 여기서 '你'는 청자만 가리킬 수도 있고 발화자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你'는 화자를 포함한 이 말을 듣거나 글로 읽는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종합하면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S를 강조하는 경우 동사는 타동사를 선호한다. 자동사를 사용하면 문장은 S를 강조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동의미가 있는 '来v/去v'를 나타낸다.

② 명확한 대조형식이 있으면 'S+来+V' 구문에 일부 자동사까지 출현할 수 있다.

③ S를 강조하지 않을 때 'S+来+V' 구문은 주로 '我(咱)们'을 대동한다. 하지만 'S+去+V' 구문에는 일반적으로 '咱们'이 나타나지 않고 '我', '我们', '你', '你们' 등이 사용된다.

④ S를 강조하지 않을 때 자동사와 타동사가 모두 나타날 수 있다. 다만 '来' 구문과 '去' 구문의 사용 환경이 서로 다르다. 'S+来+V' 구문은 매우 일상적이고 구어적이다. 그러나 'S+去+V' 구문은 추상적이고 문어적인 색채가 짙고 추상적인 이동을 나타낸다.

3.1.2. 자주성(Volitionality)

자주성은 의지성이라고도 한다. Hopper & Thompson(1980:264, 268)은 자주성은 행위자가 의지적, 자발적으로 행한 목적성이 있는 동작을 의미하며, 행위자가 의도적으로 행한 동작은 피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서술했다. 그리고 의지성이 있는 주체는 주로 사람이며, 동물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马庆株(1988)는 중국어 동사를 크게 자주동사와 비자주동사로 구분하였다. 자주동사는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행할 수 있는 동작 행위이다.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책임지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롭게 지배할 수 있는 동작 행위는 의식적인 행위이다. 이러한 동사는 [+자주], [+동작]의 의미특성이 있다고 했다. 반면에 비자주동사는 행위자의 주관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동작 행위이다. 즉, 행위자가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동작 행위이고 변화와 속성을 나타낸다. 이런 동사는 [-자주], [+변화], [+속성]의 의미특성이 있다고 했다. 자주동사인지 비자주동사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동사 앞뒤에 '来/去'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

V+来/去	VO+来/去
来/去+V+来/去	来/去+VO+来/去
来/去+V	来/去+VO

'S+来/去+VP'는 상기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동사에 자주성이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다음 예문을 통하여 동사의 자주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동사가 비자주동사인 경우다.

(43) a. *你来/去怕他。
b. *我来/去懂他。
c. *我来/去知道这件事。
d. *你来/去梦见他。
e. *我来/去缺乏斗志。

예문(43)을 통해 동사에 행위자가 자유롭게 지배할 수 없는 비자주동사가 나타나면 문장은 모두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어서 다음 비교를 통해 동사의 자주성이 문장 성립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44) a. (你不想见的话)我来/去见他。 a′. (你不想见的话)他！我来/去见。
네가 그를 만나고 싶지 않다면, 내가 만나게.
b. 我来/去当这个班长。 b′. 这个班长我来/去当。
반장은 내가 맡을게.

(45) a. *我来/去看见他。 a′. *他我来/去看见。
b. *我来/去成为这个班长。 b′. *这个班长我来/去成为。

예문(44)와 예문(45)는 동사의 의미가 비슷한데 예문(44)에서는 자주동사를 사용하였고 예문(45)에서는 비자주동사를 사용하였다. 동사가 자주동사일 때 문장은 모두 성립하지만 비자주동사일 때 문장은 모두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S+来/去+VP' 구문에 비자주동사가 올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특수한 경우도 존재한다.

(46) a. *我来恨你。 a′. *我去恨你。
b. 如果他不爱你，那我来爱你。
만약 그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사랑할게.
b′. 如果他不爱莉莉，那你去爱她呀。
만약 그가 리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네가 그녀를 사랑해줘.

예문(46)을 보면 'S+来/去+VP' 구문에 '恨'은 들어갈 수 없지만 '爱'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爱'는 자주성을 가질 수 있는 반면 '恨'은 자주성을 가질 수 없다.

(47) a. 我会试着爱你。
너를 사랑하도록 노력해 볼게.
b. *我会试着恨你。

예문(47)처럼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행위자가 어느 정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객관적인 사정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이다. 미워하는 것은 어떠한 원인이 있어야 하고, 행위자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하는 동작 행위이기 때문에 자주성이 없다. 이는 한국어에 '사랑해 주다'와 같은 자주적인 표현은 존재하지만 '미워해 주다'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동사가 '生', '死'인 경우를 살펴보자.

(48) a. *你来生。 a′. *你去生。
b. *你来死。 b′. 你去死。
너 죽어!

(49) a. 这次，让我来死吧!
이번에는, 내가 죽을게!
b. 我来死，比较值。
내가 죽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c. 我来替你死。
내가 너 대신 죽을게!

예문(48)을 통해 '生'은 'S+来/去+VP' 구문에 모두 나타날 수 없고 '死'는 'S+去+VP' 구문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어나는 것은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지만 생을 마감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生'은 자주성을 가질 수 없고 '死는 자주성을 가질 수 있다.[29] 이는 '자살'이라는 낱말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 그리고 (49)와 같이 주동적으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去死'라는 예문은 많이 찾을 수 있다.[30] 이때 '去'는 의지를 나타내지만 주로 시간적인 이동을 의미한다. 하지만 (49)처럼 만약 청화자 중 반드시 한 사람이 희생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去'뿐만 아니라 '来'도 사용할 수 있

29) 马庆株(1988)는 '去死去'와 '鸡死了'의 '死'가 다르다고 했다. '去死去'의 '死'가 자주성을 갖는 것은 임시적인 활용 현상이라고 했는데 이는 곧 '去死去'의 '死'에 자주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30) CCL을 통해 '대명사+去+死'의 예를 총 158개 추출했다. '대명사+来+死'는 총 8개를 추출했는데 모두 공간 이동의미가 있는 '来v'다.

다.[31]이때 문장은 누가 죽을 것인지를 강조하며 주어 위치에 1인칭대명사 '我'가 오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강한 의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의지성이 있는 '死'는 'S+来+VP'에 출현할 수도 있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동사가 '死'일 때, '来'와 '去'가 한 문장에 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문(50)에서 '我来'의 '来'는 행위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去死'의 '去'는 미래를 향한 시간적인 이동을 의미한다.[32]

(50) 我来替你去死。
내가 너 대신 죽을게!

S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에 자주동사만 출현할 수 있다.

(51) a. 我们来一起了解一下这个机器的内部构造。
우리 함께 이 기계의 내부 구조를 좀 알아봅시다.
b. *我们来一起知道一下这个机器的内部构造。

예문(51)을 통해 의미가 비슷해도 자주성이 있는 동사만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고 자주성이 없는 동사는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来/去+VP'의 동사는 자주성을 가진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그리고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동사는 타동성 제약보다 자주성 제약을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1) 전쟁 상황에 사용할 수 있고 전쟁 관련 게임을 할 때 사용할 수도 있다.
32) '死' 외에 다른 예시도 있다.
a. 你心中的黑暗由我来去驱除。네 마음속의 어둠은 내가 없앨게.

마찬가지로 '来'와 공간이동의미가 있는 '去v'도 기능이 달라서 같이 출현할 수 있다.
a. 我来去v会一会万将无敌的山大王。내가 가서 천하무적인 산대왕을 만나보겠다.
b. 由我来去v处理吧。내가 가서 처리할게.

3.2. 동사의 상적 특성

본 절은 동사의 상적 특성에 대해 분석하기에 앞서 우선 Smith의 상 체계에 대해 간단하게 보겠다. Smith(1997)에 따르면 문장이 나타내는 상적 정보는 '관점상(viewpoint aspect)'과 '상황상(situation aspect)'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황상은 동사의 배열(verb constellation)로 표현되고 상 표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어휘 내용이 갖는 시간적 특성에 따라 상황을 유형화한 것이다. 상황유형은 시간 자질(temporal properties)인 '상태성(static)', '지속성(duration)', '종결성(telicity)'을 기반으로 분류된다. 상태성에 따라 상황유형은 정태적 상황과 동태적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상태(state)'와 그 외의 네 가지 상황유형을 포함하는 개념인 '사건(event)'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지속성에 따라 지속적 상황과 순간적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지속성은 어떤 상황이 일정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나타낸다. 종결성에 따라서는 종결(telic) 사건과 비종결(atelic) 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Smith(1997:19)는 종결 사건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진행되고, 목표를 달성하면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 사건이 완성된다는 것을 가리킨다고 했다. 반대로 종결점을 가지지 않는 사건은 언제든지 정지도 될 수 있고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목표란 '사건'이 내재하는 종결점을 뜻하고 이는 '자연 종결점(natural final point)'이다. 자연 종결점이 없는 사건은 '임의종결점(arbitrary final point)'을 가진다. Smith(1997:20)에서는 시간 자질로 다섯 개의 상황유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상태성(static)	지속성(durative)	종결성(telic)
상태유형(States)	+	+	-
동작유형(Activity)	-	+	-
순간유형(Semelfactive)	-	-	-
달성유형(Accomplishment)	-	+	+
성취유형(Achievement)	-	-	+

〈표3-1〉 상황유형 (Smith[1997])

본 절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동사의 상적 특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동작유형을 살펴보자. 동작유형은 신체적, 정신적 활동을 포함하고 동적인 특성을 갖고 미종결의 의미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웃다', '달리다', '생각하다' 등이 있다. 동작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동작은 임의 종결점을 가지고 동작이 중지되기 전까지 지속된다. 또한 동작유형은 'S+来/去+VP' 구문에 가장 많이 출현하는 유형이다. 코퍼스를 살펴본 결과 구문에 출현할 수 있는 동작유형의 동사는 다음과 같다.

做 干 弄 搞 办 管 当 听 唱 喝 吃 瞧 见 管 说 问 念 读 咬 骂 喊 叫
吹 跑 背 找 接 打 拿 抱 取 扛 抬 挑 扶 搀 搬 切 送 发 举 推 拉 提
守 顶 扫 倒 捏 洗 擦 换 抓 捉 捡 挡 搓 排 拣 拍 摆 播 掀 摇 拆 掷
折 劈 挖 牵 装 补 投 查 端 撕 摘 掏 卷 撞 收 划 放 烧 刷 盖 修 添
填 煮 洗 刷 贴 包 喂 交 赶 教 雇 救 编 买 卖 还 签 骑 赔 陪 建 记
画 冒 学 治 付 认 养 凑 选 催 解 杀 开 关 敲 领 看 量 改 修 替 猜
尝 算 试 烤 答 演 扮 寻 分 挣 谈 劝 点 结(계산하다) 出(지불하다)
想(생각하다) 泡(담그다) 带(돌보다) 担 负 定 受 处理 帮助 办理 操办
履行 承担 负责 承受 承当 承包 掌管 决定 照看 照顾 保管 看管 担任
扮演 充当 说明 解释 解答 告诉 叙述 补充 讲述 宣布 汇报 提醒 重述
回答 宣读 责备 描述 采访 通知 介绍 号召 报道 盘问 答复 考虑 回想
思考 思索 想象 分析 制定 防御 提供 实施 顶替 记录 培养 创造 整理
执行 资助 开发 准备 拯救 判断 惩罚 指挥 解决 指挥 示范 展示 掩护
批判 证明 组织 揭发 主持 对付 攻击 检查 安排 选择 接受 接待 抚养
转达 引用 守护 弥补 模仿 保卫 保护 经营 动员 布置 筹划 协调 察看
研制 应付 张罗 解放 接送 从事 支援 调查 开拓 捕捉 感谢 保护 支配
引导 评定 评价 掩护 联系 消灭 翻译 陪伴 打发 拥抱 继承 驾驶 开导
指点 接手 接替 结束 发现 欣赏 伺候 招呼 招待 服侍 支付 寻找 分配
追求 收拾 测量 代替 修改 등등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동사 자리에 다양한 동작유형의 동사가 나타날 수 있고 아래는 이에 해당하는 예문들이다.

(52) a. 上学的费用，就让我来承担吧！
학비는 내가 부담할게!
b. 对于那些需要群众约定俗成的东西，应该由群众自己去制定。
대중이 약속해야 하는 일반적인 사항은 대중이 스스로 정해야 한다.
(53) a. 这些问题值得人们去思索、去探讨。
이러한 문제들은 사람들이 깊이 생각하고 탐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b. 关于这一点我来想想办法吧。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방법을 생각해볼게.

예문(53)과 같이 '猜, 考虑, 思考, 回想' 등은 뇌에서 일어나는 사고활동이어서 의지적인 활동이다. 陈平(1988)은 이러한 동사들을 동작유형으로 분류하였다. 龚千炎(2000:12-31)에서는 동사를 크게 정태(静态)와 동태(动态)로 분류했다. 그리고 '猜, 考虑, 思考, 回想' 등을 심리활동동사(心理活动动词)로 정의하여 동태적 동사로 하위분류하였다. 이는 해당 동사들에 동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작유형에 속하는 동사들은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동작의 중첩은 어떤 행동을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잠시상은 구문적인 면에서 동사를 중첩해서 사용하는 것을 나타낸다. Li & Thompson(1981:232-236)은 동사 중첩의 세 가지 제약을 제시했다. 첫째, 동사는 반드시 동작성 동사여야 한다. 둘째, 동사는 반드시 의지동사여야 한다. 셋째, 동보복합어는 중첩을 통해 잠시상을 나타낼 수 없다.[33] 朱景松(1998)은 동사 중첩은 동작성을 강화시키고 동작 행위의 주체가 매우 강한 능동성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자주성은 동사가 중첩의 필요조건이라고 했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33) Li & Thompson(1981:28-28)에서는 형태론적 결합방식으로서의 중첩이란 형태소가 반복되어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다. 중첩되어 새로 생성된 단어는 의미적으로나 통사적으로 원래의 형태소와 구별된다고 했다. 의지동사가 중첩되면 행위자가 어떤 일을 '좀' 한다는 의미를 나타낸다. 그리고 형용사, 동보복합어, 비의지동사는 절대로 잠시상을 나타내기 위해 중첩될 수 없다고 제시했다.

(54) a. 先别紧张，我来查查。
긴장하지 마, 내가 찾아볼게.
b. 咱们大家来讨论讨论吧！
우리 모두 토론해보자!
c. 彼得，你来读读这篇文章。
피터, 네가 이 글을 좀 읽어봐.

Smith(1991:285-286)는 잠시상을 일종의 유표적인 동작유형으로 간주하고 상황상과 관점상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했다. 陈前瑞(2008)에 따르면, 중국어 동사 중첩은 하나의 폐쇄된 상황유형이고 자연적인 종결점이 없어서 [+동작], [+지속], [-종결]의 의미 특징이 있다. 즉, 동사 중첩은 동작유형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34] 그러므로 결과성이 없고 동작성과 자주성이 모두 강한 동사 중첩은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동사가 반드시 타동성을 지녀야 한다. 타동성이 없는 동사 중첩은 'S+来/去+VP' 구문에 들어가면 예문(55)처럼 공간적인 이동의미가 있는 '来v/去v'로 이해된다.

(55) a. 我来v坐坐。
좀 앉으러 왔어.
b. 你去v躺躺。
가서 좀 누워.
c. 我去v游游泳。
나는 수영 좀 하러 갈게.

다음으로 상태유형을 살펴보자. 상태유형은 시간 축에서 매 순간 균질적인 특성이 있으며 상태가 안정적으로 지속한다. '소유', '성질', '심리 상태'. '습관' 등이 이에 속한다. 예를 들어 '알다', '있다', '사랑하다' 등이 있다. 상태유형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판단, 존재, 비교, 속성 등 다양한 관계를 나타내는 동사다.

34) 陈前瑞는 동사 중첩은 단지 동작 자체의 짧은 지속과 관련된다고 하였고 대상에 대한 처치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아서 종결성을 지니지 않는다고 했다. Smith와 다른 것은 陈前瑞는 잠시상을 단계상으로 분류하였다.

이런 유형은 기타 두 가지에 비해 강한 정태성을 지닌다. 또 하나는 신체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사람의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다. 구체적인 것은 아래와 같다.

관계동사	是 有 姓 叫 等于 当作 作为 具有 属于 显得 不如 不及 好像 仿佛 在 不如 相反 符合 등등
신체적 상태동사	饿 聋 瞎 瘸 醉 病 困 累 疲惫 등등
심리적 상태동사	爱 忘 嫌 恨 愁 喜欢 了解 认识 熟悉 怀念 知道 热爱 佩服 满意 欣赏 体贴 关心 尊敬 尊重 信任 羡慕 嫌弃 憎恨 讨厌 同情 理解 相信 懂 明白 心疼 害怕 觉得 轻视 怀疑 想念 思念 想(그리다) 惊讶 诅丧 担心 伤心 孤独 焦虑 后悔 抱歉 悲伤 高兴 快乐 愉快 欣喜 嫉妒 失望 失望 惊慌 愤然 등등

관계동사와 신체적인 상태동사는 모두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 예를 들어 ‘*我来是小明。’, ‘*我去知道。’, ‘*我去累一下。’ 등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의지로 통제할 수 있는 심리적 상태동사는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左思民(2009)에서는 하나의 동사가 두 개의 상황유형에 속할 수 있다고 했다. 저자는 이러한 동사를 ‘겸상동사(兼相动词)’라고 명명하였고 이들은 동작의 시작과 상태의 지속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가 제시한 예문은 (56)과 같다.

(56) a. 我还不认识他。 (상태)
나는 아직 그를 모른다.
b. 我现在就想认识他。 (동작)
나는 당장 그를 알고 싶어.

그리고 예문(57)~(58)처럼 '认识', '了解'와 같은 상태유형은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고 '一下'와 함께 출현하기도 한다.

(57) a. 我们想了解了解情况。
우리는 상황을 알고 싶어.
b. 他想认识认识你。
그는 너를 알고 싶어 해.
(58) a. 他决定深入到群众中细致了解一下。
그는 대중 속에 깊이 들어가 자세하게 이해해 보기로 결정했다.
b. 让学生们互相认识一下。
학생들을 서로 인사시켜.

따라서 자주성을 가질 수 있는 '认识', '了解' 등은 동작성을 갖는다. 이러한 동사는 아래 예문(59)와 같이 'S+来/去+VP' 구문에도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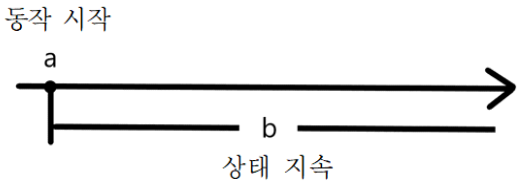
(59) a. 首先，让我们来认识一下笛子。
먼저 피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b. 在回答这个问题之前，让我们来了解一下驱动程序的概念。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드라이브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자는 자주성을 가질 수 있는 '爱', '喜欢' 등도 겸상동사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즉, 이들은 사랑/좋아하는 동작을 나타낼 수도 있고 사랑/좋아하는 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그리고 예문(60)과 같이 '一下'와 함께 출현해도 되고 중첩해도 된다.

(60) a. 他只是短暂地爱了我一下。
그는 잠시 나를 사랑했을 뿐이다.
b. 我那么喜欢你，你就不能稍微喜欢一下我吗?
내가 너를 그렇게 좋아하는데, 너도 나를 좀 좋아해 줄 수 없니?

c. 我也很可爱啊，所以生活，能不能也爱爱我啊！
나도 사랑스러운데, 인생아! 나 좀 사랑해 줄 수 없겠니!

따라서 심리적인 활동을 나타내는 '爱', '喜欢'도 동작성이 있다.[35] 그리고 실제로 살펴본 결과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예로 '他不爱你，我来爱你。', '让我来喜欢你，好不好？', '由于你不敢爱他，你就让我去爱他。'를 들 수 있다. 여기서 '爱', '喜欢'은 동작성을 가지고 상태를 나타내는 '我一直很爱你', '他已经喜欢你很久了'와 구분된다. 도식적으로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도식3-1〉'爱/了解' 등 겸상동사의 도식

도식에서 a점은 '爱', '了解' 등이 동작으로서 기능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고 이는 하나의 행위를 나타내며 동작유형인 경우이다. 그리고 이들은 '~한 상태에 있음'을 나타낼 수 있어 동작 후의 상태 지속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때는 상태유형이다. 동작유형에 속한 '爱', '了解' 등은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일부 심리적 상태동사는 중첩형식이 없지만, 가끔 '一下'와 함께 출현할 수 있다. 예로 '信任', '尊重', '热爱' 등이 있다. 이런 심리적 상태동사는 동작성이 미약하고 일반적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낸다. 이들은 동작성은 비록 약하지만, 사

35) '熟悉', '怀念'도 포함된다. 이들은 '一下'와 같이 사용할 수 있고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어서 동작성이 있다. 동사성이 있는 '怀念'은 '回忆'와 비슷하고 심리활동동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很怀念'은 되는데 '很回忆'는 안 되는 것으로 보아 '怀念'에는 정태성이 있지만 '回忆'에는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 于虹，你来熟悉座舱的设备。위홍, 너가 좌석 설비를 숙지해둬.
b. 有许多新东西需要我们去熟悉。有许多新的问题需要我们去处理。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익혀야 하고,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처리해야 한다.
c. 我们来怀念一下那些美好的旧时光吧！ 아름다웠던 시절을 추억해보자.

람의 의지로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어서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61) a. 他首先就应该去热爱生活，去关心人。
그는 우선 삶을 사랑하고 남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b. 这一切都是我们应该去信任，去爱护的。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신뢰하고 사랑해야 할 것들이다.
c. 您让广大的老百姓怎么来信任您啊！
많은 백성들이 당신을 어떻게 믿겠어요?

일부 동작성이 없고 소극적인 의미를 갖는 심리적 상태동사도 ‘S+去+VP’ 구문에 한해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羡慕’, ‘嫉妒’, ‘轻视’ 등이 있다.

(62) a. 我们不要去羡慕别人所拥有的幸福。
남이 가진 행복을 부러워하지 말자.
b. 不要去嫉妒他人的成功。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마.
c. 不要去轻视任何人。
누구도 경시하지 마.

예문(62)와 같이 부정의미가 있는 심리적 상태동사 앞에는 보통 부정사 ‘不/别/不要’가 수반되어야 하며, 명령의 어기가 있다.

*去憎恨	*去焦虑	*去羡慕	*去嫉妒	*去轻视
不去憎恨	不要去焦虑	别去羡慕	不去嫉妒	不要去轻视

吕叔湘(1980:90, 83-84)에서는 ‘别’에는 ‘충고하여 그만두게 하다’의 뜻이 있고 행위자나 발화자가 어떠한 동작이 일어나기를 바라지 않을 때 사용한다고 했다. 따라서 부정사 ‘不/别/不要’는 의지적인 성분이고 뒤의 사건은 사람이 의지로 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부정사+동사’는 자주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동작성을 수

반하며 ‘S+去+VP’ 구문에 들어갈 수 있다. 해당 경우는 S를 전혀 강조하지 않고 생략할 수 있다. 행위자는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발화자도 포함할 수 있다.

동작성/자주성이 없는 심리적 상태동사는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

*去满意	*去欣喜	*去舍得	*去高兴	*去孤独
*不去满意	*不去欣喜	*不去舍得	*不去高兴	*别去孤独

종합하면 동작성은 동작유형에서 자주 언급되는 개념으로 [+동작], [-동작]으로 이분되지 않고 정도의 차이를 둔 연속체이다. 그리고 이는 상태유형에도 해당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태유형 안에서도 동작성을 갖는 동사와 그렇지 않은 동사, 동작성이 강한 동사와 약한 동사로 구분된다. 따라서 동작유형과 상태유형을 도식적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약 동작성 강 정태 ←→ 동태		
是/等于 满意/孤独 焦虑/嫉妒 尊敬/信任	爱/喜欢/认识	考虑/思考 做
상태유형	겸상동사	동작유형

〈표3-2〉 동작유형, 상태유형 동사의 동작성

결론적으로 동작성/자주성이 있는 상태유형이 ‘S+来/去+VP’ 구문에 출현하고 동작성/자주성이 전혀 없는 상태유형은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 일부 동작성이 없는 심리적 상태동사는 부정사를 통해 자주성을 부여받을 수 있고 따라서 ‘S+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으며 이때 ‘去’는 추상적, 시간적인 이동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순간유형을 살펴보자.[36] 순간유형은 결과가 없는 단일 단계의 사건으

36) 순간유형은 반복적으로 지속 가능한 상황으로 기술될 수 있어서 일부 학자들은 순간유형은 동작유형에 포함된다고 했다.

로 동적이고 순식간에 발생하여 동작의 시작과 완료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 Smith에 따르면 순간유형은 내재적으로 시간적인 경계가 있지만, 상태의 변화를 포함하지 않고 따라서 '순간유형'은 자연종결점을 지니지 않는다. 예를 들면 '咳嗽', '敲' 등이 있다.[37] 아래 해당 예문을 살펴보자.

(63) a. 这一巴掌必须由我来扇！
이 싸대기는 내가 후려갈겨야 해.
b. 这个三分球你来投吧！
이 3점 슛은 네가 던져!
c. 这一刀我来捅！
이 한 칼은 내가 찌를게!

예문(63)에 나타난 동사는 모두 순간적 동작을 나타낸다. 칼로 사물을 찌르는 행위는 순식간에 이뤄진다. 뺨을 때리는 것도 빠른 동작이고 시작점과 끝점이 거의 겹친다. 다음은 순간유형이 반복적인 행위로 이해되는 경우이다.

(64) a. 门我来敲！
문은 내가 두드릴게!
b. 你不扇她，那我来扇！
네가 때리지 않는다면 내가 때릴게.
c. 别弄脏了您的手，还是我来捅吧！
손을 더럽히지 마세요, 제가 찌르겠습니다.

위의 예문을 보면 순간적인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였고 이러한 경우에도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순간유형은 'S+来/去+VP' 구문에 출현하여 일회성인 순간동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순간동작의 반복 실행을 나타내기도 한다.

다음으로 [+종결] 특성을 가진 성취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성취유형은 순간적인 사건으로 상태의 변화를 불러온다. 해당 유형은 결과 상태만 강조하고 과정은

37) 그리고 Saeed(2003:156)에서 순간동사와 지속부사가 같이 쓰이면 반복(iterative)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사건이 기술된 기간 안에 반복되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했다.

함축된다. 전형적인 성취 사건은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상태 변화로 중국어 예로 '发生', '看见', '输' 등을 들 수 있다. 성취유형은 일반적으로 비자주적이다. 따라서 성취유형에 속한 대부분의 동사는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 다음 예문을 살펴보자.

(65) a. *我来赢。 a′. *你去输。
b. *我去发生。 b′. *你去消失。
c. *我来看见她。 c′. *你去碰见他。
d. *我来想到。 d′. *你去捡着。

다만 '死'의 경우 비록 성취유형에 속한다고 알려져 왔지만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누군가의 죽음/희생이 필요한 상황에서 청화자 중 한 사람이 그것을 자처하겠다는 의미를 나타낸다면 이러한 자주성이 있는 '死'는 'S+来/去+VP'에 올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달성유형을 살펴보자. 달성유형은 과정과 결과(상태의 변화)로 구성된 종결적 상황유형으로 두 요소를 분명하게 나타낸다. 중국어에서 달성유형은 보통 동보형식이고 예로 '打破', '吃饱' 등을 들 수 있다. Mezhevich(2003:166-170)에서는 이러한 상태의 변화는 '결과 상태'라고 하였고, 이러한 구문을 '결과 구문(resultative construction)'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결과구문은 반드시 '원인사건+결과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사건(complex event)으로 구성된다. 결과사건은 원인사건으로 인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결과성을 가지고 결과성은 종결성을 내포한다. 즉, 결과성이 있으면 종결성도 있음을 의미한다.

'S+来/去+VP' 구문에는 일부 동보형식만 들어갈 수 있다. 다음 예문을 비교하자.

(66) a. *你来写错这个字。
b. *我去吃饱那个汉堡。
c. *她的东西只能由我来摔破。
(67) a. 品种和制法由我们来改良。
품종과 제조법은 우리가 개량하겠습니다.
b. 你做错了事，关系还要我来改善。
네가 일을 잘못한 건데, 내가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한다니.

c. 由亚洲去推动后新冠时期全球复苏战略。
아시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글로벌 회생 전략을 추진한다.

d. 由我来说服李家。
내가 이씨네를 설득할게.

보다시피 예문(66)은 모두 비문이고 예문(67)은 모두 성립할 수 있다. (67)에 나타나는 동사는 결과성이 약하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구문에서 상기 동보형식은 동작으로 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고 동작만 나타내며 이는 하나의 단일사건으로 볼 수 있다. 반면 (66)의 '写错/吃饱/摔破'는 원인사건과 결과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사건이다. 이상의 서술은 아래의 도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도식3-2〉 두 가지 동보형식의 도식

Li & Thompson(1981:240)은 동보식이 종결점을 내재하기 때문에 잠시상과 의미적으로 충돌한다고 하였다. 이는 곧 중첩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玄玥(2011)는, 동보식은 잠시상뿐만 아니라 진행상과 지속상 표지와도 공기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예로 '*他打伤打伤了李四。', '*他正在走累。', '*走累着。'를 들었다.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 예문(66)과 예문(67)의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중첩	*写错写错(这个字)。	*吃饱吃饱(那个汉堡)。	*摔破摔破(她的东西)。
진행	*正在写错(这个字)。	*正在吃饱(那个汉堡)。	*正在摔破(她的东西)。
지속	*写错着(这个字)。	*吃饱着(那个汉堡)。	*摔破着(她的东西)。

중첩	改良改良(土壤)	改善改善(生活)	推动推动(这件事)	说服说服(他)
진행	(技术)正在改良	(关系)正在改善	正在推动(建设)	正在说服(村民)
지속	改良着(技术)	改善着(生活)	推动着(发展)	说服着(自己)

예문을 보면, 예문(66)의 '写错/吃饱/摔破'는 결과성을 가지고 종결점이 있으며 달성유형에 속하고, 예문(67)의 '改良/改善/推动/说服'는 결과성이 없고 종결점도 없어서 동작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동작유형에 속하는 동보형식은 보어가 하나의 예상되는 끝점(목표점)과 같다. 이는 문맥에 따라 결과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 목표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데 임의종결점이 있을 때 끝점은 결과의미를 나타내고 없을 때 끝점은 목표의미를 나타낸다.[38] 뿐만 아니라 보어 뒤에는 다른 보어 성분이 또 나올 수 있다. 다음 예시를 살펴보자.

(68) a. 终于改良好了！
드디어 잘 고쳤구나!
b. 不开会就推动不了工作。
회의를 열지 않으면 일을 추진할 수 없다.
c. 在婚姻法颁布后，并不是都已经改善成了和睦的家庭关系。
혼인법 제정으로 모두 원만한 가족관계로 개선된 것은 아니다.
d. 他这个人固执得很！你是说服不了他的。
그 사람은 너무 고집이 세! 너는 그를 설득시킬 수 없다.

예문(68)을 통해 예문(67)의 동사들이 동작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改良/改善/推动/说服'가 나타내는 사건 과정은 균질적으로 진행되고 임의적 종결점이 있다. 정리하면 달성유형은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없고 일부 결과성이 약한 동보형식은 종결의미가 없어서 동작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지금까지 동사의 상황유형에 대해 고찰했다. 종합하면 'S+来/去+VP' 구문에 동작유형, 순간유형 그리고 자주성/동작성을 가질 수 있는 상태유형이 출현할 수 있으며 결과성이 있고 [+종결] 자질이 있는 성취유형과 달성유형은 출현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종결]과 [+동작]의 자질을 갖는 상황유형만 'S+来/去+VP' 구문에 들어갈 수 있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38) 결과의미: 改善了我们的生活。 목표의미: 想改善一下生活。
우리의 생활을 개선하였다. 생활을 개선하고 싶다.

<table>
<tr><th>유형</th><th colspan="3">자질</th><th>성립 여부</th></tr>
<tr><td rowspan="2">상태</td><td rowspan="3">[-종결]</td><td>[+상태]</td><td>[-자주][-동작]</td><td>X</td></tr>
<tr><td rowspan="4">[-상태]</td><td rowspan="3">[+자주][+동작]</td><td>√</td></tr>
<tr><td>동작</td><td>√</td></tr>
<tr><td>순간</td><td>√</td></tr>
<tr><td>달성</td><td rowspan="2">[+종결]</td><td rowspan="2">[-자주][-동작]</td><td>X</td></tr>
<tr><td>성취</td><td>X</td></tr>
</table>

〈표3-3〉‘S+来/去+VP’ 구문에 출현하는 동사의 상황유형 분류

제4장 결과보어 및 방향보어의 공기 제약

앞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동보형식은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본 장은 보어를 결과보어와 방향보어로 나누어 각각 구문과 어떠한 공기 제약이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39]

4.1. 결과보어의 공기 제약

본 절은 주로 어떠한 결과보어가 동사 자리에 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앞서 언급했듯이 동사는 타동성을 가져야 한다. 예문을 분석한 결과 vr형식의 타동성은 보어의 의미지향과 관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4.1.1.에서는 보어의 의미지향을 살펴보겠다.[40]

4.1.1. 결과보어의 의미지향

보어는 문장의 여러 성분과 의미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이들의 잠재 술어(隐性谓语)가 될 수 있다. 陆俭明(1997)은 보어의 의미지향(补语的语义指向)을 아래와 같이 제시했다.

행위자 지향: 砍累了。찍다 (행위자가)지쳤다.
도구 지향: 砍钝了。찍어서 (도끼가)무뎌졌다.
동작 지향: 砍快了。빠르게 찍었다.
피행위자 목적어 지향: 砍坏了。찍어서 망가뜨렸다.[41]

---

39) 본 장에서는 동사 자리에 나타날 수 있는 결과보어를 'r'로 표시하고 보어와 결합하는 동사는 소문자 'v'로 표시한다. 즉, 동사(V)='vr'.
40) 본 절의 예문은 주로 '来'를 사용했고 대부분은 '去'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去'는 공간적 이동의미를 쉽게 나타낼 수 있다.
41) '坏'는 피행위자를 지향할 수 있고 도구를 지향할 수도 있다.

马真・陆俭明(1997)에서는 보어가 행위자나 동작을 지향하면 대부분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즉, 타동성이 없다. 예를 들면 '*吃快饭了', '*干累活儿了' 등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만일 보어가 피행위자 목적어를 지향하면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고 했다. 즉, 타동성이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织坏了一件毛衣(스웨터 한 벌을 잘못 뜨개질하였다)。'가 있다. 石毓智(2003:161-162)에서는 해당 관점을 지지하여 보어를 주어 지향, 술어 동사 지향, 목적어 지향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42)]

행위자 지향: 我写累了。나는 쓰다 지쳤다.
술어 동사 지향: 他吃晚了。그는 밥을 늦게 먹었다.
피행위자 목적어 지향: 他打死了一只苍蝇。그는 파리 한 마리를 때려죽였다.

아래 예문을 통해 'S+来/去+VP' 구문에 행위자를 지향하는 보어와 술어 동사를 지향하는 보어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69)

지향	r	v+r
주어	懂	这本书我来看(*懂)。 이 책은 내가 읽을게.
	会	谁来学(*会)。 누가 배울까.
	错	这个问题你来回答(*错)。 이 문제는 네가 대답해.
	对	这道题小明来做(*对)。 이 문제는 샤오명이 풀어.
	饱	汉堡我来吃(*饱)。 햄버거는 내가 먹을게.
	累	这活儿我来干(*累)。 이 일은 내가 할게.

a. 别把桌子砍坏了。책상을 찍어서 망가뜨리지 마.
b. 他那把刀砍坏了。그의 칼은 찍다 망가졌다.

42) 石毓智(2003:162)에 의하면, 세 가지 vr형식의 발전과정은 같다. v와 r은 처음에 두 개의 독립적인 통사 단위였지만 점차 하나의 통사 단위로 융합된다. 15세기 전에 동사와 보어의 융합과정이 거의 완성되었다. 세 가지 vr형식의 융합의 정도에는 차이가 존재한다.

동사	慢	这件事我来做(*慢)。 이 일은 내가 할게.
	晚	这些资料你来整理(*晚)。 이 자료들은 네가 정리해라.
목적어	破	这个僵局谁来打破。 이 교착 상태를 누가 타개할 것인가.
	倒	帝国主义由我们来打倒。 우리가 그를 타도하겠습니다.

예문에서 '看懂, 学会, 回答错, 做对, 吃饱, 听清楚, 做慢, 整理晚' 등은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 결과보어 '懂, 会, 对, 错, 饱, 清楚' 등은 목적어를 지향하지 않고 S를 지향하며 결과보어 '慢, 晚' 등은 술어 v를 지향한다. 이때 목적어는 v의 영향을 받지 않고 피영향성이 떨어지며 vr형식의 타동성도 약해지기 때문에 'S+来/去+VP' 구문에 출현할 수 없다. 石毓智(2003:162-165)에서는 vr형식의 타동성은 v와 r의 융합 정도와 관계가 있다고 했고 vr형식의 피행위자 목적어 대동 여부가 동사와 보어의 융합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설명하였다. 즉, 피행위자를 가질 수 있으면 vr형식의 융합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는 뜻이다. 저자는 세 가지 vr형식의 생성 시기와 순서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vr피행위자	→	vr동사	→	vr행위자[43]
8세기		10세기		14세기

〈도식4-1〉 세 가지 vr형식의 생성 시기와 순서 (石毓智[2003])

저자는 vr피행위자 유형은 8세기쯤에 제일 먼저 생성되었고 융합 정도가 가장 높다. 그중에 일부 결과보어는 많이 문법화하여 음성적으로도 약화되고 동시에 동사와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다고 했다. 예로 '好, 完' 등이 있다. vr행위자 유형은 제일 늦게 생겼고 융합 정도가 낮다고 했다. 바꾸어 말하면 vr피행위자는 융합 정도가 높아서 피행위자 목적어를 가질 수 있고 타동성이 강하다. 하지만 vr행위자는 융합 정도가 높지 않아서 피행위자 목적어를 가지기 어렵고 타동성이 약하다. 뿐

43) vr피행위자-보어는 피행위자를 지향, vr동사-보어는 동사를 지향, vr행위자-보어는 행위자를 지향.

만 아니라 저자에 따르면 만약 보어가 피행위자 목적어를 지향하면 보어와 동사의 결합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 이때 동사는 피행위자에게 행하는 동작이고 보어는 동작을 실행한 후에 피행위자에게 주는 영향이다. 반면 보어가 행위자를 지향하면 형식상으로는 하나의 동사구를 이루지만 동사와 보어의 결합 관계는 의미적으로 느슨할 뿐만 아니라 서로 지향하는 대상도 다르며 동사는 피행위자에게 하는 동작이고 보어는 행위자가 동작으로 인해 받는 영향을 나타낸다.[44]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S+来/去+VP' 구문에 목적어를 지향하는 보어만 나타날 수 있다.

4.1.2. 결과보어의 문법화

'S+来/去+VP'에서 동사는 자주성을 가진다. 그리고 분석한 결과 동사에 결과보어가 출현할 때 vr의 자주성은 r의 문법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4.1.2.에서는 문법화 정도에 따른 vr의 자주성에 대해 살펴보겠다.

허화한 결과보어는 하나의 폐쇄된 유형이다. 이는 상적 의미를 가지고 동작의 완성을 나타낸다. Chao(1968:435)는 허화된 결과보어는 동작의 결과나 목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앞의 동사의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일부는 음성적으로 약화하여 모음축약과 경성화를 겪고 상 접미사(aspect suffixes)로 변하였다. 예로 '着, 见, 到, 完, 过'를 제시했다. 이러한 소수의 결과보어를 제외한 대부분의 결과보어는 기타 결과보어처럼 쓰인다. 孟琮(1987:12)은 의미가 상대적으로 허화된 결과보어로 '了, 着, 成, 动, 好, 得' 여섯 개를 제시했다. 石毓智(2003:168)는 허화된 결과보어는 접어성분(clitic)이라고 했고 그들의 음성형식은 약화하여 성조를 잃었다고 했다. 刘丹青(1997)에서는 허화된 결과보어는 후치성과 부착성이 있는 반허사(半虚词)라고 했다.[45] 즉, 허화된 결과보어는 완전히 상 표지로 문법화하지 않았고 동사와 상표지 사이에 위치한다. 그리고 刘丹青은 허화된 결과보어와 일반 결과보어를 구분하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44) 石毓智(2003:164)에서는 보어가 행위자를 지향할 때 주어가 같은 두 개의 문장으로 분해할 수 있다고 했다.

a. 我写累了。= 我写了(내가 썼다), 我累了(내가 피곤했다)。

45) 刘丹青(1997)에서는 허화된 결과보어를 '唯补词'라고 명명하였다.

(70) a. 我摔碎了花瓶。 = 我摔花瓶 + 花瓶碎了
나는 꽃병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b. 他看见你了。 ≠ 他看你 + 你见了
그는 너를 보았다.

위의 테스트를 보면 예문(70a)에서 '碎'는 일반 결과보어이고 술어성이 있는데, 예문(70b)에서 '见'은 허화된 결과보어이고 술어성이 없어서 동사와 분리하면 단일 사건을 나타내지 못한다. 본고는 해당 검증방법을 사용하여 허화된 결과보어를 아래와 같이 선정했다.

了(liǎo) 得 到 着(zháo) 成 见 好 过 完 光 住 掉

다음으로 예문을 통해 동사가 'v+허화된 결과보어'인 경우를 보자.[46]

(71) 那个绿色的橘子我来吃(*了)。
저 녹색 귤은 내가 먹을게.

(72) 手续我来办(*得)。
수속은 내가 할게.

(73) 我来买(*到)这本词典。
내가 이 사전을 사겠어.

(74) 我来找(*着)。
제가 찾겠습니다.

(75) 这篇报道我来写(*成)。
이 기사는 내가 쓸게.

(76) 你说，我来听(*见)。
말해, 내가 들을게.

(77) 这件事我来处理(*好)。[47]
이 일은 내가 처리할게.

(78) 这件事我来做(*过)。
이 일은 내가 할게.

(79) 这件事你来弄(*完)。
이 일은 네가 해.

(80) 那些废纸我来用(*光)吧。
저 이면지는 내가 쓸게.

46) (*X): 적합한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X를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X): 적합한 문장이 되려면 X를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47) 어감 테스트에 따르면 '这件事我来处理好'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36.4%로, '이 일은 내가 잘 처리할게'로 이해한다고 했다. 즉, '好'에 종결의미가 없다. 그리고 일부 참여자는 '好'를 종결의미가 있는 보어로 이해하면(处理好了=处理完了) 이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81) (我来说，)你来记(*住)。
네가 적어.

(81′) 你来吸引(?住)敌人。
네가 적을 유인해.

(82) 你别管，这事儿我来解决(?掉)。
넌 신경 쓰지 마, 이 일은 내가 해결할게.

(82′) 我只给你50份，剩下的由我来卖(?掉)！
너에게 50개만 주고 나머지는 내가 팔게!

위에 제시한 예문은 보어가 있으면 모두 자연스럽지 않다. 즉, 허화된 결과보어는 대부분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

高名凯(1948:194)는 '着, 到, 见, 得, 住' 등을 결과상(resultative)으로 지칭했다. 완성된 동작은 과정이 끝났다는 것만 표현하고 결과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결과상은 동작을 마친 후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함을 지적했다. 즉, 허화된 결과보어는 결과성이 있다는 뜻이다. 吴福祥(2001)은 허화된 결과보어는 동작(이나 상태)이 이미 실현되었거나 결과성이 있는 보어성 성분이라고 정의했다.[48] 陈前瑞(2008)에서는 '完, 好, 过' 등을 동작의 종료를 나타내는 완성상 표지라고 했고, '着, 到, 见' 등은 동작의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상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v+허화된 결과보어'는 [+종결] 자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董秀芳(2017)에서는 허화된 결과보어를 '허화완결성분'(虚化完结成分)이라고 불렀고 '허화완결성분'이 있으면 결과의미를 더 부각시킨다고 했다. 그리고 일부 'v+허화완결성분'은 성취유형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결과성은 허화완결성분에 의해 구현되면서 종결점도 나타낸다고 했다. 예를 들어 '遇见, 听见, 悟到' 등이 있다. Smith(1991:282-283)에서는 결과보어를 결과 상태(result state)와 결과 완성(result phase/completive)으로 나누었고. 결과 상태는 '饱, 清楚, 错' 등을 포함하고 결과 완성은 '见, 到, 好, 完, 成' 등을 포함하며 후자는 자주동작동사와 결합하여 성취를 의미한다고 하였다.[49]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v+허화된 결과보어'는 주로 성취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v+허화된 결과보어'가 지속성을 갖지 않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48) 吴福祥(2001)에서는 '动相补语(phase complement)'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49) Smith(1991:283)는 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동작	看	找	逃
성취	看到	找到	逃掉

동작과 새로운 상태로의 변화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상태변화는 행위자의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자주성이 없고 [+종결] 특징이 있어서 'S+来/去+VP' 구문에 들어가기 어렵다.

그리고 예문(83)처럼 일부 'v+허화된 결과보어' 뒤에 목적어가 있고 '终于'와 같은 부사와 함께 와서 [+지속] 자질을 가질 수 있으면 달성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달성유형은 'S+来/去+VP'에 올 수 없다.

(83) a. 我终于找到了那本书。
나는 마침내 그 책을 찾았다.
b. *我终于来找到那本书。

따라서 문법화 정도가 높은 허화된 결과보어가 나타나면 vr형식은 성취유형이나 달성유형에 속하며 [+종결] 특성이 있어서 구문에 출현할 수 없다. 허화된 결과보어는 자주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이루어진 vr형식은 타동성을 갖지 않는다. 왜냐하면 허화된 결과보어는 v를 지향하여 동작의 종결만 나타내기 때문이다. 吴福祥(1998) 역시 허화된 결과보어에 대해 동사만 지향할 수 있고 주로 동작의 종결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이는 필자의 주장을 입증해준 셈이다. 반대로 일반 결과보어는 주어나 목적어도 지향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같은 허화된 결과보어라도 조합에 따라 문법화 정도가 다르다. 일부 허화된 결과보어는 문법화 과정에 있어서 종결의미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사람마다 판단이 다르다. 원어민 화자 22명을 대상으로 'S+来/去+VP' 구문에 나타나는 vr형식의 수용도에 대해 어감 조사를 실시한 결과 vr형식은 동사에 따라 수용도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다.[50] 아래 표를 통해 '记住'와 '吸引住'의 수용도 차이를 보자.

50) '√': 받아들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X': 받아들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 명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我来说，)你来记		100%	你来吸引敌人(，我来打)		100%
(我来说，)你来记住。			你来吸引住敌人(，我来打)。		
수용도	√	10%	수용도	√	45.5%
	?	25%		?	31.8%
	X	65%		X	22.7%

〈표4-1〉'S+来/去+VP' 구문에 '吸引住', '记住'의 수용도

'记住'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10%로 적게 나타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절반을 넘는 65%로 나타났다. 즉, '记住'의 '住'는 문법화 정도가 높고 종결점 표지가 되어 '记住'는 성취유형에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문법화가 많이 진행될수록 보어는 목적어를 지향하지 않고 앞의 동사를 지향하게 된다. 즉, 타동성이 약해진다. '记住'의 '住'는 목적어를 거의 지향하지 않고 v를 지향하는 것으로 변했다. 이와 반대로 '吸引住'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45.5%를 차지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22.7%밖에 안 된다. 이를 통해 두 개의 '住'가 상이한 문법화 정도를 보인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住(멈추다)	吸引住	记住
일반 결과보어		허화된 결과보어

〈표4-2〉'吸引住', '记住'에 결과보어 '住'의 문법화 정도

다음으로 '掉'를 살펴보자. '掉'는 떨어진다는 뜻이다.[51] '他剪掉了衣服上的标签'은 '他剪了标签'과 '标签掉了'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 '剪掉'의 '掉'는 아직 문법화가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만 '解决掉'의 '掉'는 떨어진다는 뜻이 이미 사라져서 '这件事已经解决掉了'는 '解决这件事'와 '这件事掉了'로 나눌 수 없다. 즉, '解决掉'의 '掉'는 이미 어느 정도 문법화하여 자립할 수 없다. '解决掉'의 수용도는 아래와 같다.

51) 现代汉语词典第六版(2012:301)

你别管，这个事情我来解决。		100%가능
你别管，这个事情我来解决掉。		
수용도	√	35%
	?	35%
	X	30%

〈표4-3〉 'S+来/去+VP' 구문에서 '解决掉'의 수용도

'解决掉'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은 30%이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35%이며, 판단하기 힘들다고 생각한 사람은 35%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解决掉'의 '掉'는 '吸引住'의 '住'의 문법화 정도가 비슷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이미 어느 정도로 문법화하여 자립할 수 없지만 아직은 고도로 문법화하지 않았다.

정리하면 이러한 vr형식은 조합에 따라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도, 못할 수도 있으며 문장 수용도는 사람에 따라 다르다. r의 문법화 정도는 vr형식의 자주성과 타동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r의 문법화 정도가 높을수록 종결의미가 뚜렷하여 vr형식의 자주성이 약해지고 r이 동사를 지향하게 되며 vr형식의 타동성이 약해진다.[52)]

다음으로 vr과 v가 유사한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를 보자. 董秀芳(2017)에서 '허화완결성분'의 존재 여부가 동사구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현상을 주시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r의 문법화 정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아래는 '拦住', '扔掉'의 예이다.

'拦'과 '拦住'를 사용한 두 문장은 의미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84) a. 我来拦那辆没有牌照的汽车。
b. 我来拦住那辆没有牌照的汽车。
번호판이 없는 저 차는 내가 막을게.

52) '把'자문을 사용하면 수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는 '把'자문이 전형적인 처치문이어서 구문 전체의 타동성과 자주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拦’과 ‘拦住’는 모두 ‘S+来/去+VP’에 출현할 수 있고 서로 대체할 수 있다. 동사 ‘住’는 멈춘다는 뜻이다.[53] ‘拦住了那辆车’를 ‘拦车’와 ‘那辆车住了’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었을 때[54] ‘那辆车住了’는 비문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住’에 ‘멈춘다’는 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와 달리 ‘记住了电话号’, ‘吸引住了他’는 ‘전화번호를 외웠다/그의 관심을 끌었다’는 의미이고 멈춘다는 뜻을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拦住’의 ‘住’는 문법화 정도가 ‘吸引住’에 비해 낮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어서 예문(85)를 통해 ‘扔’과 ‘扔掉’를 보자.

(85) a. 你歇会儿，那些旧家电我来扔。
b. 你歇会儿，那些旧家电我来扔掉。
좀 쉬어, 저 낡은 가전제품들은 내가 버릴게.

‘扔’과 ‘扔掉’도 바꾸어 쓸 수 있다. ‘扔掉了那些旧家电’은 ‘扔那些旧家具+那些旧家电掉了’로 바꿔 말할 수 없지만 ‘떨어지다’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는 물건을 버릴 때 사물이 반드시 떨어지는 과정을 겪기 때문이다. 반대로 ‘解决掉问题’는 ‘掉’의 의미를 전혀 갖지 않는다. 따라서 ‘扔掉’의 ‘掉’는 문법화하는 과정에 있고 진행된 정도가 ‘解决掉’에 비해 낮음을 판단할 수 있다. 이처럼 ‘掉’와 ‘住’는 실질적인 동사 의미에서 벗어나고 자립성이 없지만 문법화의 정도가 낮아서 아직은 종결의미가 생겨나지 않은 상태이고 때문에 v와 vr에 큰 차이가 없다.

여기서 따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문법화가 진행되지 않은 ‘掉’가 떨어지거나 내려간다는 의미를 나타낼 때 ‘剪掉了标签’은 ‘剪标签+标签掉了’처럼 바꿔 말할 수 있다.

(86) a. 我来撕。
b. 我来撕掉。
내가 찢을게.

53) 现代汉语词典第六版(2012:1704)
54) 刘丹青(1994)에 의하면, ‘雨停住了’는 ‘雨住了’로 바꿀 수 있고 여기서 ‘住’는 전형적인 동사이다. 반면 ‘他站住了’는 ‘他住了’로 바꿀 수 없어서 허화된 결과보어라고 했다. 그러나 필자는 비록 ‘他住了’는 성립하지 않지만 ‘住’에는 여전히 멈춘다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87) a. (衣服上的)标签我来剪。
b. (衣服上的)标签我来剪掉。
옷의 라벨은 내가 잘라낼게.

Chao(1968:466)는 '掉'는 '下去/下来'와 같은 방향보어에 속한다고 했다. 예문에서 보듯이 v와 'v掉'는 대체할 수 있고 실제적인 결과의미가 있는 vr과 달리 이러한 'v掉'는 하나의 단일사건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掉'는 [+종결] 자질을 갖지 않는, 단순히 방향만 나타내서 부차적인 성분에 불과하다. 때문에 v와 'v掉'의 의미는 거의 같고 'S+来/去+VP' 구문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55]

필자는 董秀芳(2017)의 관점에 대부분 동의하지만 '消灭掉'의 문법화 정도가 낮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회의를 갖는다. '消灭掉'의 예를 살펴보자.

(88) a. 我来消灭他们。
b. 我来消灭掉他们。
내가 그들을 소멸시키겠다.

'消灭'와 '消灭掉'도 자유롭게 대체될 수 있다. 하지만 '消灭掉了敌人'은 '消灭敌人+敌人掉了'와 같지 않다. '消灭掉'의 '掉'는 떨어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없고 동작 의미를 완전히 상실하였다. 따라서 '消灭掉'에서 '掉'의 문법화 정도가 낮다는 것은 잘못된 분석이다. '消灭' 자체에 끝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掉'에 종결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消灭'의 종결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사료된다.[56] 끝점이 있다는 것은 아래의 예문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89) a. 拦了半天。
한참 동안 가로막았다.
b. 剪了好几下。
여러 번 잘랐다.

55) 4.2장 참고.
56) 이것은 '杀'와 '杀掉'의 관계가 유사하다.

(90) a. *消灭了半天。
b. *消灭了好几下。

'拦/扔' 뒤에는 긴 시간을 나타내는 시량사나 동작의 횟수를 나타내는 동량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예문(90)의 '消灭'는 그렇지 않다.[57] 이로써 '消灭'인 동작 자체에 끝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58]

종합해보면 vr형식은 r의 문법화 정도에 따라 'S+来/去+VP' 구문과의 결합 가능 여부가 갈린다. r이 문법화 정도가 매우 높고 종결의미가 있는 허화된 결과보어일 때 구문에 출현할 수 없다. 만약 r의 문법화 정도가 높지 않으면 원어민 화자 간에 'S+来/去+VP' 구문에 대한 어감 차이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r의 문법화 정도가 낮은 경우, 비록 실제적인 결과의미를 거의 잃어버렸지만, vr형식과 v의 뜻이 유사해서 'S+来/去+VP' 구문에 모두 출현할 수 있다.

4.1.3. 어휘화와 종결성

본 절은 어휘화를 겪고 있는 vr형식을 분석하고자 한다. 王力(1980:396)는 현대중국어에서 일부 vr형식(사성식[59])이 점차 어휘화(lexicalization)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梁银峰(2005)에서는 통시적으로 고찰하여 일부 동보복합어는 동보식 구사법(word formation)을 통해 형성되고 일부는 어휘화를 통해 형성된다고 지적했다. 우선 이러한 동사들을 분류하도록 하자. 주지하는 듯이 결과보어는 일반적으로 동사 뒤에 쓰여 동작이나 행위의 결과를 나타내고 형용사와 동사 모두 결과보어로 쓰일 수 있다.[60] 그리고 일부 vr형식은 'de'를 가진 'v de r' 형식과 대응할 수 있고

57) 现代汉语词典第六版(2012:1428)에서는 '消灭'는 소실하거나 사라진다는 뜻도 있고 사동으로 사용하여 소실시키거나 없앤다는 뜻도 있다고 정리되어 있다. 즉, 해롭거나 적대적인 사람과 사물을 제거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消灭'는 동보복합어라고 생각한다.
58) 그리고 ≪說文解字注≫에서는 '消'를 '盡也。未盡而將盡也。'로 해석하였고 ≪廣雅≫에서는 '消, 滅也。'로 해석했다. ≪說文解字注≫에서는 '灭'는 '盡也。'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역사적인 각도로 고찰해도 '灭'는 '消'의 끝점으로 볼 수 있다.
59) 王力(1980:390)에서는 피행위자로 하여금 어떤 결과에 이르게 할 수 있으므로 '사성식(causative form/使成式)'이라 부른다고 하였다. 즉, r이 피행위자인 목적어를 지향한다.
60) 형용사는 광의의 동사에 포함될 수 있다.

일부는 대응할 수 없다.

Chao(1968:435, 350)는 vr형식을 동보복합어(compound)로, ‘v de r’형식을 동보구문으로 보았다. 그리고 ‘得/不’로 확장할 수 있는 vr형식은 일종의 과도형 단어(transient words)로 간주하여 복합어라고 했다.[61] 그리고 확장가능성에 따라 분리할 수 없는 복합어, 접요사 ‘得/不’를 가질 수 있는 복합어와 확장할 수 있는 복합어 세 가지로 분류했다. 이로써 동사와 보어 간에 융합도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i & Thompson(1981)에 따르면, vr형식은 결과식 동사복합어(resultative verb compounds)고, ‘v de r’은 복합정태구문(complex stative construction)이다. 박정구(2003)에서는 vr형식을 모두 형태론적 구조로, 그리고 ‘v de r’형식을 통사론적인 구조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고 역사적으로 vr형식과 ‘v de r’형식은 각자 다른 경로를 통해 발전해왔다고 했다. 그리고 vr형식의 ‘得/不’에 의한 확장 가능성이 다른 것은 어휘 간의 차이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본 절에서는 기본적으로 위의 관점에 동의한다. 즉, 필자는 vr형식을 하나의 복합어로 여길 것이다. 그리고 Chao(1968)에서 제시한 확장가능성을 기준으로 vr형식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유형	확장가능성	융합도	예시
Ⅰ	X	강	说明, 提醒, 改良, 规定, 养活(경성)[62] 등
Ⅱ	‘得/不’만	중	打破, 打碎, 推动, 斩断, 截断 등
Ⅲ	√	약	煮(得不太)熟, 吃(得不太)饱, 开(得非常)快 등

〈표4-4〉 ‘v+결과보어’의 유형

유형Ⅰ은 동사와 보어를 분리할 수 없고 vr의 관계가 긴밀하다. 유형Ⅱ는 ‘得/不’만 vr 사이에 삽입할 수 있고 vr의 관계가 I에 비해 덜 긴밀하다. 유형Ⅲ은 ‘得/不’뿐만 아니라 다른 수식 성분과 함께 vr 사이에 들어갈 수 있어서 vr의 관계가 느슨하다.

61) Chao(1968:437-438) ‘得/不’를 삽입한 후에 가능보어로 전환된다고 했다.
62) Chao(1968:437)에서는 ‘养活’는 두 가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养’과 ‘活’를 분리할 수 없고 ‘活’를 경성으로 읽는다. 다른 하나는 분리할 수 있고 ‘活’에는 보통 일반 강세가 온다. 이는 어떤 생물을 살려낸다는 의미를 갖는다.

유형Ⅰ	유형Ⅱ	유형Ⅲ
확장 불가	'得/不'만 확장 가능	확장 가능
강 ←———	융합도	———→ 약

〈표4-5〉'v+결과보어'의 유형별 융합도

먼저 유형Ⅰ을 살펴보자. 분리할 수 없는 vr에 대한 학자들의 관점은 대체로 일치한다. 이에 속하는 vr은 성분 간 관계가 긴말하여 융합 정도가 높고 보통 하나의 단어로 사전에 수록된다. 즉, 분리할 수 없는 vr은 동보복합어로 간주된다. 해당 단어는 아래와 같다.

加热 发动 声明 证明 减轻 提醒 提高 改进 改良 改善 修整 建立 驯服 戳穿 激怒 补足 推广 澄清 说明 测定 合成 削弱 战胜 摆脱 规定 决定 解除 消除 消灭 说服 撮合 养活 纠正 制定 등등

부분 예시는 BCC를 통해 다음과 같이 추출했다.

(91) a. 这些剩菜你来加热(一下), 我去取外卖。
이 남은 음식은 네가 데워(한 번), 내가 배달을 가져올게.

b. 您来提建议我们来改进。
건의를 하시면 저희가 개선하겠습니다.

c. 由我来摆脱他们。
내가 그들을 뿌리칠게.

d. 你来解除他们的痛苦吧。
네가 그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줘.

e. 我来消除你的顾虑。
내가 너의 걱정을 없애줄게.

f. 日本的根本法应由日本人自己来制定。
일본 근본법은 일본인이 스스로 제정해야 한다.

g. 由他来证明孔雀的操守，是解决我心理负担的惟一捷径。
그가 공작의 품격을 증명하는 것이 내 마음의 짐을 없앨 유일한 지름길이다.

h. CEO决策的失误由董事会来纠正。
CEO 결정의 잘못은 이사회가 바로잡는다.

i. 我来激怒他，让他追杀我，你来支援。
내가 그를 격분시켜서 나를 쫓게 할 테니 네가 서포트해.

예문(91)을 통해 vr의 융합도가 매우 강한 유형Ⅰ은 대부분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볼 수 있다. 즉, 'S+来/去+VP' 구문에서 긴밀 정도가 강한 vr의 수용도가 높다. 그리고 3.2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러한 vr형식은 r의 결과성이 상당히 약하고 종결의미도 거의 사라졌다. 이들은 복합어로서 동작유형에 속하고 동작유형의 문법적 특징을 갖는다. 즉,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고 '一下'와 결합할 수 있다. 이외에 뒤에 다시 보어성 성분이 나올 수 있다. 다음은 vr의 문법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각 vr과 다른 성분과의 결합 여부를 살펴본 것이다.

vr	一下	正在	중첩	보어	보어유형		
					가능	결과	허화된 결과보어
补足	√	√	*	(√)	得了	*	*
养活	√	√	*	(√)	得/不了	*	*
战胜	√	√	*	(√)	得/不了	*	*
戳穿	√	√	*	(√)	不了	*	*
激怒	√	√	*	(√)	不了	*	*
说服	√	√	*	(√)	得/不了	得~	*
声明	√	√	*	√	*	得~	过
驯服	√	√	*	√	得/不了	得~	好/成
规定	√	√	*	√	不了	得~	好/过
决定	√	√	*	√	得/不了	得~	好/完/过
摆脱	√	√	*	√	得/不了	干净	掉

解除	√	√	?	√	得/不了	干净	掉/完
消除	√	√	?	√	得/不了	得~	掉/完
消灭	√	√	?	√	得/不了	得~	掉/完/光
提醒	√	√	√	√	*	得~	完/过
减轻	√	√	√	√	不了	得~	到
提高	√	√	√	√	得/不了	得~	到
加热	√	√	√	√	不了	得~	到/完/好/过
撮合	√	√	√	√	不了	得~	好/成
发动	√	√	√	√	得/不了	得~	好/过
说明	√	√	√	√	得/不了	得~	完/过
证明	√	√	√	√	得/不了	得~	完/过
改进	√	√	√	√	不了	得~	好/成/过
改良	√	√	√	√	不了	得~	好/成/过
改善	√	√	√	√	不了	得~	好/完/成/过
修整	√	√	√	√	不了	得~	好/完/成/过
建立	√	√	√	√	不了	得~	好/成
推广	√	√	√	√	不了	得~	完/过
澄清	√	√	√	√	不了	得~	好/完/过
测定	√	√	√	√	不了	得~	完/好/过
合成	√	√	√	√	不了	得~	完/好/成/过
削弱	√	√	√	√	不了	得~	完/到/过
纠正	√	√	√	√	得/不了	得~	好/过
制定	√	√	√	√	不了	得~	完/好/过

〈표4-6〉 유형Ⅰ 동작유형의 문법적 특징

융합도가 강한 vr형식은 동작성이 강하고 이들 중 절반은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으며 모두가 '一下' 혹은 '正在' 등 진행상 표지와 같이 출현할 수 있다. vr형식 뒤에는 다시 가능보어나 결과보어 등 보어성 성분[63]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성과 종결의미가 있는 허화된 결과보어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 해당 예문은 아래와 같다.

63) 방향보어도 나타날 수 있다. 예로 '制定出来/纠正过来/ 推广下去/改善起来/证明起来' 등이 있다.

(92) a. 这个，我们也决定不了。
이것은 우리도 결정할 수 없다.
b. 因为人有七情六欲，所以永远不可能摆脱得了世俗烦忧。
사람은 일곱 가지 감정과 여섯 가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세속적인 번뇌로부터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
c. 那匹野马没有人驯服得了。
그 야생마는 아무도 길들일 수 없다.

(93) a. 爸提醒得很及时。
아버지께서 제 때에 귀띔해주셨다.
b. 有些单位先进经验推广得不够深入，还没有在工人中扎根。
어떤 부서들은 선진적인 경험이 아직 널리 보급되지 않아, 노동자 가운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c. 他把院子里的花草树木，修整得整齐有序。
그는 정원의 화초와 나무를 가지런히 다듬었다.

(94) a. 关于这一点早在半年之前就已经明确地声明过了。
이 점에 관해서는 이미 반년 전에 분명히 성명하였다.
b. 倒塌了的竹篱也全部修整好了。
무너진 대울타리도 손질했다.
c. 这就把对外汉语教学事业提高到了一个从未有过的高度。
이렇게 하여 대외 중국어 교육사업을 이전에는 없었던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예문(92)는 vr 뒤에 가능보어가 온 경우고, 예문(93)은 부가 성분이 결과보어인 경우이며, 예문(94)는 허화된 결과보어를 부가한 경우이다. 성립하는 예문들은 유형 I vr 뒤에 세 가지 보어가 모두 올 수 있고 동작성을 지녀 동작유형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마지막으로 '建立'와 '建成'을 통해 융합도가 높은 vr형식과 'v+허화된 결과보어'의 차이를 살펴보자.

(95) a. 积极稳妥地建立建立动态管理机制。
적극적이고 온당하게 동태 관리 메커니즘을 세워 보다.

b. 请你好好建立一下三观!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을 잘 세워 보세요!
c. 中苏混合爬山队宿营基地全部建立好了。
중소 혼성 등산대의 야영 기지는 모두 건설되었다.
d. 两国主张尽早把东南亚建立成和平、自由和中立的地区。
양국은 동남아시아를 하루빨리 평화, 자유, 중립적인 지역으로 만들자고 주장한다.

(96) a. *建成建成
b. *建成一下
c. *建成好了
d. *建成成

예문(95)는 융합도가 높은 '建立'인 경우고 예문(96)은 '建'+허화된 결과보어 '成'인 경우이다. 허화된 결과보어는 결과성이 있어서 종결성이 나타난다. 그러나 하나의 동사로 인식되는 vr형식은 r에 결과성이 없어서 종결성이 없다. 이는 예문에서 vr형식 뒤에 동사중첩, 동량사, 다른 보어 성분이 올 수 있는 현상을 통해 알 수 있다. 그러므로 'v+허화된 결과보어'는 달성이나 성취유형에 속하고 융합도가 높은 vr형식은 동작유형에 속하며 '建成'은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없지만 '建立'는 나타날 수 있다.

다음은 유형Ⅲ을 살펴볼 것이다. 이러한 vr형식은 비교적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고 v와 r의 관계가 매우 느슨하다.

(97) a. 今天饭你来煮(*熟)吧。
오늘 밥은 네가 해.
b. 这个箱子我来装(?满)。
이 상자는 내가 담을게.
c. 她的头发我来剪(*短)。
그녀의 머리카락은 내가 자를게.
d. 我来拿(*稳)书包, 你提着袋子就行。
내가 책가방을 들 테니, 너는 자루를 들면 돼.

예문(97)을 보면 문장이 모두 자연스럽지 않고 결과보어가 없으면 동사가 구문에 잘 나타날 수 있다. 이는 동사와 보어 간의 융합도가 낮은 유형Ⅲ은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게다가 융합도가 약한 vr형식은 동작유형의 문법적 특징을 갖고 있지 않다.

(98) a. *煮熟煮熟 *装满装满
b. *煮熟一下 *装满一下
c. *煮熟好了 *装满完了
d. *煮熟得了 *装满不了

이들은 모두 '一下'와 결합할 수 없고 중첩해서 사용할 수도 없다. 그리고 해당 vr은 '正在' 등 진행상 표지나 보어성 성분과 같이 출현할 수 없으며 결과성이 강해서 [+종결] 자질을 갖고 따라서 'S+来/去+VP' 구문에 등장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vr 사이에 '得/不'만 올 수 있는 유형Ⅱ을 살펴볼 것이다. 유형Ⅱ에 속하는 v와 r의 관계는 유형Ⅰ보다 느슨하고 유형Ⅲ보다 긴밀하며 동사와 결과보어의 조합에 따라 동사와 결과보어의 융합도가 달라진다. 또한 결과보어와 동사가 모두 같더라도 맥락에 따라 융합도가 다를 수 있으며 일부 vr형식은 'S+来/去+VP' 구문에 들어갈 수 있고 일부는 들어갈 수 없다. 다음 예문을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99) a. *我来抬动这张桌子。
b. *这辆车你来推动。
c. ?我来砍断这棵树。
d. ?我来切碎这颗白菜。
e. *由我来摔破他的东西。
f. *我儿子的脑袋只能我来打破。
g. *你坐好，我来推翻你。
h. *这辆车我们来推倒。
i. *你不撞坏、我来撞坏。

(100) a. 由亚洲来推动后新冠时期全球复苏战略。
아시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글로벌 회생 전략을 추진한다.

b. 由我来斩断命运的滑稽。
내가 운명의 코미디를 끊겠다.
c. 谁来斩断“敌人”的后路。
누가 적의 퇴로를 끊어 버리겠는가.
d. 我来打碎你的幻想。
내가 너의 환상을 깨뜨릴게.
e. 这个僵局由谁来打破呢？
이 교착 상태를 누가 타개할 것인가.
f. 我定的规矩，我来打破。
내가 정한 규칙은 내가 깨뜨릴게.
g. 让我们来推翻这个理论。
이 이론을 뒤집읍시다.
h. 由我们来打倒帝国主义。
우리가 제국주의를 타도하겠습니다.

편의상 예문(99)를 A조로, 그리고 예문(100)을 B조로 나누겠다. A는 유형Ⅲ과 비슷하게 만약 결과보어가 없으면 동사가 구문에 자연스럽게 출현할 수 있다. 하지만 결과보어가 동사와 함께 나타난다면 문장이 모두 자연스럽지 않다. 이와 달리 B는 유형Ⅰ과 비슷하게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고 동사와 결과보어의 융합도가 높아서 보어가 없으면 문장이 성립하지 않는다.

A의 문장들이 표현하는 사건은 상대적으로 구체적이고 B는 추상적이다. 예를 들어 ‘打破脑袋’는 머리를 때려서 상처를 입힌다는 뜻이고 구체적인 동작이다. ‘打破规矩’는 규율을 어긴다는 뜻이고 추상적인 동작이다. 마찬가지로 ‘推动车’는 차를 민다는 의미지만 ‘推动战略’는 추상적인 전략을 추진한다는 의미이다. 梁银峰(2005)에 따르면, 동보형식을 구성하는 v1과 v2(동사와 보어)가 점점 원시적 의미(original meaning)에서 벗어나 은유적 의미(metaphorical meaning)를 파생시켰다. 원시적 의미와 은유적 의미 사이에는 과도적 단계가 존재하고 하나의 점진적 과정이라고 했다. 예문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101) a. 以梨打破头喻。≪白喻经・以梨打破头喻≫
배로 머리를 깨뜨렸다.

b. 将大智惠(慧)到彼岸，打破五阴烦恼尘劳。≪坛经≫
큰 지혜로 피안에 이르러, 오음(五陰), 번뇌(煩惱), 진로(塵勞)를 타파한다.

c. 然世之作伪假真者，往往窃持敬之名，盖不肖之实……识者病之，至有效前辈打破一敬字以为讪侮者。≪鹤林玉露≫ 卷十三
그러나 세상의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은 종종 경(敬)이라는 이름을 도둑질해 못난 실상을 더했다. (중략) 식자들이 이를 병통으로 여겼는데, 심지어는 전배들을 본받아 경(敬)이라는 글자를 무너뜨려 조롱과 멸시로 삼은 이들도 있었다.

상기 예문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예문(101a)에서 '打破'는 원시적 의미로 사용되었고 사물을 파손시킨다는 뜻이다. 이때 '打'와 '破'의 관계는 느슨하다. (101b)에서 '打破'는 '타파하다', '해제하다'의 뜻이고 과도적 단계에 속한다. (101c)의 '打破'는 기존 관례, 관습, 상황 등을 타파한다는 뜻이고 '打'와 '破'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저자의 분석을 미루어 본다면 동보형식은 사건에 따라 추상성에 차이를 두고 의미가 추상적일수록 v와 r의 관계가 더 긴밀하고 융합도가 더 높으며 단일사건으로 인식되기 쉽다. 다시 예문 (99)~(100)을 보면 동작이 추상적일수록 구문과 쉽게 결합할 수 있는데 이는 유형Ⅱ 중 융합도가 높은 vr형식만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와 B에서 출현한 vr의 융합 정도는 아래의 테스트를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

Ⅲ	饭煮熟了吗？ 밥은 다 익었니?	熟了。 익었어.	装满了吗？ 가득 채웠어?	满啦。 다 채웠어.	느슨
Ⅰ	问题纠正了吗？ 문제를 수정했어요?	*正了。	机制建立了吗？ 기제가 수립됐어?	*立了。	긴밀

Ⅱ	A	车推翻了吗？ 翻了。 车撞坏了吗？ 坏了。 차가 뒤집혔어? 뒤집혔어. 차가 충돌하여 부서졌어? 부서졌어.	느슨
	B	理论推翻了吗？ *翻了。 僵局打破了吗？ *破了。 이론이 뒤집혔습니까? 교착상태를 타개했습니까?	긴밀

표를 통해 유형Ⅱ에 속하는 A는 보어만으로 대답할 수 있고 유형Ⅲ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반면 유형Ⅱ의 B조는 보어가 단독으로 답문을 이룰 수 없고 유형Ⅰ과 비슷하다. 이로써 A조 vr의 융합도가 약하고 B조가 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아래 예문(102)~(103)을 보면 유형Ⅱ A조는 유형Ⅲ과 비슷하고 동작유형의 문법 특징이 없다. 하지만 유형Ⅱ B조는 동작유형의 문법 특징을 갖는다.

(102) a. *打破一下他的头。
b. *推倒推倒那面墙。
c. *摔碎完那个花瓶。
d. *推动推动那台车。
e. *正在撞坏那辆车。

(103) a. 这种放之四海而皆准的解读文章模式，是不是也该打破一下了？
어디에 내놓아도 다 들어맞는 이런 글을 해독하는 패턴을 깨야 하지 않을까요?
b. 你也给俺宣传宣传这事儿，推动推动。
너도 이 일을 좀 선전하고 추진시켜줘.
c. 他把天堂地狱、供佛设斋的价值全推翻掉了。
그는 천당과 지옥, 공양의 가치를 모두 뒤집어엎었다.
d. 他们把人与人之间的信任、善意、人道和气概全部破坏掉了。
그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과 선의, 인도와 기개를 모두 파괴하였다.
e. 当前过度的采伐正在破坏着生态平衡，使环境恶化。
현재 과도한 벌채가 생태 균형을 파괴하고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vr 뒤에 구체적인 목적어가 나타날 때 피행위자는 보어가 나타내는 상태로 변화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가시적이다. 그러나 추상적인 목적어가 나타날 때 보어로의 상태변화는 가시적이지 않고 은유적이다. 즉, 목적어의 추상도가 높을수록 실제적인 결과의미가 더 약해진다. 때문에 추상도가 높은 B조는 [-종결] 자질을 갖고 추상도가 낮은 A조는 [+종결] 자질을 갖는다.

정리하면 B유형은 융합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동작유형의 특징을 가지며 보어의 결과의미가 거의 사라져서 [-종결]을 가지고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A유형은 융합도가 높지 않고 동작유형의 특징이 없다. 보어는 결과의미가 강해서 [+종결]을 가지고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 유형별로 정리하면 이러한 경향성을 더 뚜렷하게 볼 수 있다.

유형	예시	융합도	보어로 단독 대답
Ⅰ	改进/说服/戳穿	높음	X
Ⅱ B	推动战略/打破僵局 打倒帝国主义	비교적 높음	X
Ⅱ A	推动车/打破脑袋/推翻车	비교적 낮음	√
Ⅲ	煮熟/装满/剪短/拿稳	낮음	√

〈표4-7〉 vr형식 융합도의 경향성

4.1절에 대한 분석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다.

① vr형식은 타동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결과보어가 목적어를 지향한다.

② vr형식은 자주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허화된 결과보어는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 하지만 vr형식은 r의 문법화 정도에 따라 'S+来/去+VP' 구문과의 결합 가능 여부가 갈린다.

③ 어휘화 과정을 겪고 있는 vr형식은 v와 r의 융합도가 높을수록 'S+来/去+VP' 구문에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4.2. 방향보어의 공기 제약

본 장은 동사 자리에 'v+방향보어'가 오는 경우에 대해서 살필 것이고 우선 방향보어의 분류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

4.2.1. 의미자질에 따른 분류

朱德熙(1982:128)에 따르면, 방향보어는 크게 단순방향보어와 복잡방향보어로 나눌 수 있다. 단순방향보어는 '上', '下', '进', '出', '回', '过', '起', '开', '来', '去' 등이 있다. 이 중에 '来', '去'는 화자를 기준으로 가까워지거나 멀어짐을 나타내고 나머지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다. 복합방향보어는 아래 표와 같이 나열했다.[64]

上来	下来	进来	出来	回来	过来	起来
上去	下去	进去	出去	回去	过去	-

그리고 马庆株・王红旗(1998)를 비롯한 일부 학자들은 넓은 의미에서 방향보어는 결과보어 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방향보어와 결과보어에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4.1장에서 언급했 듯이 전형적인 'v+결과보어' 구조는 '원인사건'과 '결과사건'으로 이루어진 복합사건이다. 그러나 'v+방향보어' 구조는 복합사건으로 볼 수 없으며, 방향보어는 단지 앞 'v'의 방향만 표현하기 때문에 부속적인 성분일 뿐이다. 구체적인 예를 보자.

(104) a. 摔碎了杯子。 = 摔杯子+杯子碎了
컵을 떨어뜨려 깨뜨렸다.

64) '开来'는 이미 단독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예로 '打开来'을 들 수 있다. 본 장에서는 '开来'을 제외할 것이다.

b. 我吃饱了。 = 我吃+我饱了
나는 배부르게 먹었다.

(105) a. 打开了门。 ≠ 打门+门开了
문을 열었다.

b. 他跑下去了。 ≠ 他跑+他下去
그는 달려 내려갔다.

'碎'는 '摔'의 결과고 '饱'는 '吃'의 결과다. 하지만 '开'는 '打'의 결과가 아니고 '下去'는 '跑'의 결과가 아니다. '他跑下去'는 단순히 '그가 달리다'와 '그가 내려간다'를 합친 것이 아니라 달리면서 내려간다는 뜻이고 '跑'는 '下去'의 이동방식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필자는 방향보어와 결과보어는 구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碎, 饱' 등 일반 결과보어는 상태변화만 나타내는 데에 반해 방향보어는 방향이나 이동, 결과 등을 나타낼 수 있어서 더욱 복합적이다. 刘月华(1998:1-32)는 문법적 의미에 근거하여 방향보어를 방향의미, 결과의미, 상태의미로 분류하였다. 그가 제시한 예시를 통해 세 가지 의미 유형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06) a. 他从楼上跑下来了。 (방향)
그는 위층에서 뛰어 내려왔다.

b1. 一万米，我可跑不下来。 (결과)
만 미터는 나는 결코 달릴 수 없다.

b2. 把你刚才说的话写下来。
네가 방금 한 말을 써.

c1. 过了许久，沸腾的会场才安静下来。 (상태)
한참이 지나서야 떠들썩했던 회의장이 조용해졌다.

c2. 万事开头难,一定要坚持下去。
모든 일은 시작이 어려우니, 반드시 꾸준히 해야 한다.

그는 방향의미는 방향보어의 기본적인 의미고 사람이나 사물의 동작을 통한 공간적인 이동 방향을 보여준다고 하였으며 '回', '回来', '回去', '出去', '进来'는 방

향의미만 지닌다고 했다. 결과의미와 상태의미는 방향의미에서 파생되었으며 결과의미는 동작의 결과와 목표의 실현을 나타내고 상태의미는 시간적인 의미를 나타낸다고 했다.

하지만 관찰을 통해 '跑下来'와 '写下来'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跑下来'의 '下来'는 보어로서 방향을 나타내고 단독으로 방향성을 가진 동사로 사용할 수 있다(他下来了). 결과의미가 있는 '写下来'(b2)의 '下来'는 동사로 사용할 수 없지만, 다소의 방향성을 갖는다. (b2)와 달리 (b1)은 방향성을 전혀 갖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상태의미가 있는 방향보어의 경우에 예문(c1)은 방향성이 없지만, (c2)는 미래를 향한다는 방향의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刘月华의 주장에 착안하여 [+방향성] 자질을 가지고 방향보어를 세분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방향성이 없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예문을 통해 결과의미가 나타나는 방향보어를 보자.

(107) a. 坐过站了。
역을 지나쳤어.
b. 看过了。
봤어요.

(108) a. 他终于买上(到)了属于自己的房子。
그는 마침내 자신의 집을 샀다.
b. 这问题太复杂，我答不上来。
이 문제는 너무 복잡해서 대답할 수 없다.
c. 一万米，我可跑不下来。
만 미터는 나는 결코 달릴 수 없다.
d. 作业太多了，学生做不过来。
숙제가 너무 많아서 학생들이 다 할 수가 없다.
e. 这些事说过去就算了。
이 일들은 말하면 그만이다.
f. 这里每一件陈设都使我想起腊梅。
이곳 모든 장식품은 다 나로 하여금 납매를 생각나게 한다.

(109) a. 这么小个车厢竟装下了这么多人。
이렇게 작은 객차에 이렇게 많은 사람을 실을 수 있다니.
b. 把床搬出去! 这个房间摆不开。
침대를 밖으로 옮겨, 이 방에 안 들어가.
c. 说起来容易，做起来难。
말하는 것은 쉽지만 실천하는 것은 어렵다.

刘月华(1998:272-281)는 예문(107)을 통해 '过'에 '초과하다', '지나다', '이기다', '완성'의 결과의미가 있다고 하였고 방향보어 '上', '上来', '下来', '过来', '过去', '起' 역시 동작을 완성한다는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실제로 예문(107)~(108)을 살펴본 결과 해당 방향보어는 결과의미를 가지지만 방향성을 상실하였다. '上'의 경우 허화된 결과보어 '到'와 의미가 같아진다. 마지막으로 예문(109)을 보면 수용 능력을 나타내는 '下/开'와 평가의미가 있는 '起来'도 방향성을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문법화 정도가 높은 방향보어는 허화된 결과보어와 유사하며 상적 의미를 나타내고 결과성이 있으며 [+종결] 자질을 갖고 방향성을 상실한다. 刘月华(1998)가 정리한 방향보어를 방향성에 근거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방향의미만 있는 방향보어: '回', '回来', '回去', '出去', '进来'			
결과의미가 있는 방향보어	上/上去/上来	접촉, 고정(贴上/写上去)	[+방향성]
	下/下来/下去	분리, 탈락, 함몰(摘下/撕下来)	
	进/进去	움푹 들어간다, 함몰(按进去)	
	出/出来	안에서 밖으로, 무에서 유로(创造出)	
	起/起来	융기(撑起来)	
	开	분리(打开)	
	上/上来/下来/过/过来/过去	동작의 완성	[-방향성]
	下/开	수용 능력, 완성	
	起来	평가	

〈표4-8〉 刘月华(1998)에 근거한 결과의미가 있는 방향보어의 재분류

다음으로 상태의미를 나타내는 방향보어를 보자. 이러한 방향보어는 상태의 변화 또는 상태의 지속을 의미한다. 상태 변화는 새로운 상태에 진입하는 것을 나타내고, 상태 지속은 진행 중인 동작이나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나타낸다. 저자는 (110)과 같이 예문을 제시했다.

(110) a. 又练上拳了！
또 복싱 시작했어!
b. 天气慢慢凉上来了！
날씨가 서서히 서늘해졌다.
c. 天气渐渐黑下来，风越刮越烈。
날이 점점 어두워지자, 바람이 갈수록 거세졌다.
d. 于是她那似乎黯淡下去的青春的生命复活了。
그랬더니 암담해 있던 그녀의 청춘이 되살아났다.
(111) a. 努力干下去，总会看到胜利。
열심히 하면 언젠가 승리를 볼 수 있다.

저자에 따르면 예문(110)은 상태의 변화에 해당하고 예문(111)은 상태의 지속에 해당한다.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때 보어는 시작하거나 멈춘다는 의미를 가지고 방향성을 상실한다. 하지만 보어가 상태의 지속을 나타낼 때 미래를 향한 시간적인 이동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상기 분석에 입각하여 상태의미를 나타내는 방향보어는 방향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해볼 수 있다.

상태 변화	정태 → 동태 (시작함)	上/上来 起/起来	[-방향성]
	동태 → 정태 (멈춤)	下/下来 下去	
동작/상태 지속	下去		[+방향성]

〈표4-9〉 刘月华(1998)에 근거한 상태의미가 있는 방향보어의 재분류

뿐만 아니라 방향보어에도 어휘화된 vr형식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促进', '推进', '输入', '输出' 등이 있다. 아래 예문을 보면 이러한 vr형식은 방향성이 있고 하나의 동사로 기능하며 'S+来/去+VP' 구조에 나타날 수 있다.

(112) a. 和平必须由印度洋地区的国家来促进。
평화는 반드시 인도양 지역의 국가가 추진해야 한다.
b. 他们未竟的夙愿需要由我们来继续推进。
그들의 미진한 숙원은 우리가 계속해서 추진해야 한다.
c. 你念一下验证码，我来输入。
인증번호를 읽어봐, 내가 입력할게.
d. 让开，我来输出。
비켜, 내가 공격할게. (게임)

예문(112d)는 조금 특수한 경우이다. '输出'는 내부부터 외부로의 전달을 의미한다. 하지만 특정 인터넷 게임에서 '输出'는 적에게 데미지를 입힌다는 뜻이고 'S+来/去+VP' 구조에 들어갈 수 있다.[65] 게임 전문용어로서의 '输出'의 의미는 두 개의 구성성분을(输와 出) 통해 도출할 수 없다. Packard(2000:217)에서는 복합어의 어휘화 정도가 높을수록 조합성분 간의 관련성이 약하다고 하였다. 반면 복합어의 어휘화 정도가 낮을수록 조합성분의 관련성이 더 강하다. 즉, 게임 용어 '输出'는 조합성분인 '输'와 '出'의 관련성이 약해서 복합어 '输出'의 어휘화 정도가 높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하여 방향보어의 문법화 경로에 대해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 방향보어는 주로 방향의미로부터 상적 의미로 문법화하고 일부는 'v+방향보어' 형식으로 어휘화한다.

지금까지 방향보어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방향성을 기준으로한 방향보어의 유형과 특징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65) '输出'는 '输出伤害'의 줄임말이다.

방향보어 유형		방향성
방향의미		√
결과의미	방향 의미	√
	완성 의미	X
상태의미	상태 변화	X
	상태 지속	√

〈표4-10〉 刘月华(1998)에 근거한 방향보어의 재분류

4.2.2. 방향성과 종결성

본 절은 앞서 제시한 방향보어의 분류기준에 근거하여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 'v+방향보어'의 유형을 알아볼 것이다. 예문은 BCC를 통해 추출하였다.[66] 먼저 방향보어-방향에 관한 예문을 살펴보자.

(113) a. 她接着又说："大少爷，让我来抱进去。"
그녀는 이어서 "도련님은 제가 안고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b. 停止的时候你来刺进去，做得到吗？
멈출 때 네가 찔러 넣어, 할 수 있니?
c. 那么秋叶小姐就由我来送回房间，翡翠就拜托志贵了哟。
그럼 아키바 아가씨는 내가 방으로 데려다줄게, 히스이를 부탁해.
d. Sakura和Rin就由我来送出去。你放心好了。
사쿠라와 린은 내가 배웅할게. 걱정하지 마.
e. 请急速前往那里报道，媒体由我来引开。
신속하게 그곳으로 가서 보도하십시오. 언론사는 제가 주의를 돌리겠습니다.

66) 조사결과에 따르면 'S+来+VP' 구문에 VP에 '来'로 이루어진 복합방향보어가 거의 오지 않지만 '出来/起来'는 가끔 나타날 수 있다. 반면에 'S+去+VP' 구문에는 '去'가 포함되는 복합방향보어가 오는 예문을 찾을 수 없었다.
a. 我把鸡蛋放进去，你来弄出来。내가 계란을 넣을 테니, 네가 꺼내.
b. 你别动！我来捡起来！ 움직이지 마! 내가 주울게!

f. 如果世间当真没有公理了，那么我们自己来讨回公道。
만약 세상에 정말 공리가 없다면 우리가 스스로 공리를 찾을게.

(114) a. 你去打进家乐福!
네가 까르푸에 쳐들어가!

b. 你去找回迷失的自己。
잃어버린 자신을 찾을 것이다.

c. 你想要的东西，可得你自己去争回来。
네가 원하는 물건은 네가 스스로 쟁취해 와야 해.

예문을 통해 방향보어-방향이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来' 구문은 이동의미가 없지만 '去' 구문은 비이동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목적어가 반드시 추상적이어야 한다.

다음으로 방향보어-결과가 방향성을 지닌는 예문을 살펴보자.

(115) a. 我想买一架单反寻找美，由你来添上文字，把它变得与唯美有关。
나는 카메라를 하나 사서 아름다움을 찾고 싶어. 네가 문자를 첨가하여 그것을 아름답게 만들어줘.

b. 李问世与毛老道的头颅必须要由我来割下！
이문세와 모노도의 머리는 반드시 내가 베겠어!

c. 如此酝酿出来的矿山地质的"恶化之",最终由谁来吞下呢?
이러한 광산 지질의 "악화"는 결국 누가 삼키게 될 것인가?

d. 德尔贝斯表示，这个问题要由两位领导人自己来作出决定。
델베스는 이 문제를 두 지도자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 现在要由泰国人民自己来担负起保护国家主权和自由的任务了。
지금은 태국 국민 스스로가 국가의 주권과 자유를 보호하는 임무를 맡아야 한다.

f. 别动，我来弄开。
움직이지 마, 내가 열게.

(116) a. 生命像一张白纸，由自己去涂上艳丽的色彩。
생명은 종이와 같아서 내가 화려한 색을 입혀야 한다.

b. 现在静下来去想有什么值得我去记录下来的，倒一时想不起来了。
이제 마음을 다잡고 무언가 기록할 만한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려했는데 오히려 생각이 안 나네.

c. 让读者自己去作出公正的评判。
독자가 스스로 공정한 판정을 내리도록 하다.

d. 一国两制的伟大事业还有待我们去写出新的篇章。
일국양제의 위대한 사업은 아직 우리가 새로운 장을 써내야 한다.

e. 切合实际情形的认知必须要由自己去体悟出来。
실제 상황에 맞는 인지는 반드시 스스로 체득해내야 한다.

f. 所以才将这剑托付给他，叫他去负起仗剑济世的任务。
그래서 이 칼을 그에게 주고 세상을 구제하는 임무를 맡겼다.

그러나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방향성]인 방향보어-결과는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서 [+종결]을 갖는다. 따라서 아래 예문(117)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문(118)을 보면 [-방향성] 자질을 갖는 방향보어-상태는 동작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서 결과성이 있고 동사의 종결점으로 볼 수 있다. 즉, [+종결]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118c)를 보면 자주성이 없는 동사도 방향보어-상태와 결합할 수 있다. 한 마디로 방향성이 없으면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없다.

(117) a. *这个我来买上。
b. *这个问题我来回答上来。

(118) a. *他们去停下了手中的锹镐。
b. *他来练上拳了！
c. *天气来黑下来，风越刮越烈。

마지막으로 방향성이 있는 방향보어-상태 '下去'를 보자.

(119) a. 这下面的话，应该由你来接下去。
다음 말은 네가 이어서 해야 돼.

b. 故事由你来续下去！
이야기는 네가 계속 이어서 말해!
c. 京剧革命的大旗，由谁来举下去？
경극 혁명의 큰 깃발은 누가 계속 들고 있어야 돼?
d. 他为你牺牲的性命、来不及走完的人生道路，就由你来走下去。
그가 너를 위해 희생한 목숨, 미쳐 다 가지 못한 인생 길은 네가 걸어가야 해.

예문을 보면 방향성이 있는 방향보어-상태 '下去'는 'S+来+VP' 구문에만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下去'뿐만 아니라 일부 지속의미가 있는 'v+着'도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120) a. 我来抱着他，陆大夫你下针！
내가 그를 안고 있을 테니 육 선생이 침을 놓으시오!
b. 你手上有伤。我来拿着。
너 손에 상처 있어. 내가 들고 있을게.
c. 你先去包扎一下伤口，这里由我来顶着！
일단 가서 붕대로 상처를 싸매, 여기는 내가 맡을게!
d. 许书记，还是由我来提着吧！
허서기, 그냥 내가 들고 있을게.
e. 今后海雅就由我来守护着！
앞으로 하이야는 내가 지킬게!
f. 你走吧！我来守着她就好。
너는 가! 내가 그녀를 지키면 돼.
g. 你去休息一下，将军由我来看着。
가서 좀 쉬어. 장군님은 내가 지치고 있을게.
h. 往后的每一天，都让我来陪伴着你。
앞으로 매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i. 你的意思是，孩子归你？你来养着？
지금 애를 당신이 데려가서 키우겠다는 소리야?

(121) a. 剩下的，自己去学着判断一下吧。
나머지는 스스로 판단하는 법을 배워보자.
b. 可以站在他后面，由他去挡着世上一切的风雨。
그의 뒤에 서서 그가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막도록 하면 돼.
c. 由他们去探索着各种各样的方法。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다.
d. 天塌下来由他去顶着！
하늘이 무너지면 그가 지탱할 거야!

‘下去’, ‘着’는 지속의미를 갖고 종결성이 없어서 ‘S+来/去+VP’ 구문에 나타날 수 있다. 이와 달리 종결성이 있는 ‘了/过’는 모두 나타날 수 없다.

종합하면 방향성이 있는 방향보어만 ‘S+来/去+VP’ 구문에 출현할 수 있다. [+방향성]이 있는 것은 방향보어가 [+종결]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tr><th colspan="2">방향보어 유형</th><th>방향성</th><th>종결성</th><th>문장 성립 여부</th></tr>
<tr><td colspan="2">방향의미</td><td rowspan="2">[+방향성]</td><td rowspan="2">[-종결성]</td><td>√</td></tr>
<tr><td rowspan="2">결과의미</td><td>방향의미</td><td>√</td></tr>
<tr><td>완성의미</td><td rowspan="2">[-방향성]</td><td rowspan="2">[+종결성]</td><td rowspan="2">X</td></tr>
<tr><td rowspan="2">상태의미</td><td>상태변화</td></tr>
<tr><td>상태지속</td><td>[+방향성]</td><td>[-종결성]</td><td>√</td></tr>
</table>

〈표4-11〉‘S+来/去+VP’ 구문과 동사 및 방향보어와의 공기 제약

지금까지 공간적인 이동의미가 없는 ‘S+来/去+VP’ 구문에 출현할 수 있는 동사에 대해 모두 분석하였다. 동사는 주로 [+자주성], [+타동성], [-종결성] 세 가지 자질을 가지며 세 가지 자질을 모두 가진 동사가 제일 전형적이다.

[+자주성]은 반드시 지녀야 하는 자질이다. 일부 자주성이 없는 심리동사는 부정을 통하여 자주성을 부여받는다. [-종결성]도 필수 불가결한 특징이다. 다만 문법화 과정에 있는 보어의 경우 완전한 종결의 의미를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마다 보어에 종결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다. [+타동성]은 S를

강조하는 경우의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잘 준수되고 있다. 반면 S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 자동사도 출현할 수 있다.

다음은 자질에 따라 동사의 유형을 정리한 것이며 유형1에 가까울수록 전형적인 동사이고 구문에 자주 나타나며 1에서 멀어질수록 전형성을 잃고 구문에 출현하는데 제한이 많아진다.[67]

유형 / 특징	1	2	3	4	5	6	7	8[68]
종결성	-	-	(+)	-	+	-	+	+
자주성	+	+	+	-	-	-	-	+
타동성	+	-	+	+	+	-	-	-
수용도	√	√	(√)	X	X	X	X	?

〈표4-12〉 자질에 따른 동사의 유형 분류

67)

유형	예시	
1	来/去	处理/承担/建立/证明/推动/打破(尴尬)/送进去/割下/守着……
2	来	爬上去/走下去/ [대조 형식:哭/喊]
	去	奋斗/拼搏/流浪/疯狂/奔跑/欢笑/成长……
3	来/去	(√) 记住/吸引住/解决掉……
4	X 恨/明白/知道/属于/嫉妒/羡慕……	
5	X 抬动/看见/看懂/建成/找着/学会/剪断……	
6	X 饿/困/病/累/伤心/后悔/愁/坐着/躺着……	
7	X 睡觉/吃饱/答错/缺乏/完毕……	

68) 유형8에 속하는 동사는 찾지 못하였다.

제5장 『S+来/去+VP』 구문의 정보구조 특성

주지하는 듯이 중국어는 영어와 같은 주어-부각형 언어와 달리 화제-부각형 언어다. Bisang(2014)은 언어의 복잡성은 명확성(explicitness)과 경제성(economy) 동기의 결과물이라고 했다. 복잡성은 명확성과 경제성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가시적 복잡성(overt complexity)과 비가시적 복잡성(hidden complexity)으로 나뉜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가시적 복잡성 언어는 명확성을 더 중시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맥락을 통해 쉽게 추론될 수 있더라도 화자는 문법 범주를 명확하게 코드화하여 발화한다. 비가시적 복잡성 언어에서는 경제성이 더 부각된다. 해당 언어에서는 문맥을 통해 의미가 쉽게 추론된다면 문장이 일부 통사 성분이 생략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한다. 다시 말해 후자에서는 화용적 작용이 많이 발생한다. 중국어는 화용적인 원리에 더 많은 영향을 받고 비가시적 복잡성 언어에 속하며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을 추구한다. 따라서 이 장은 화용적인 측면에서 'S+来/去+VP' 구문의 정보구조 특성을 알아보겠다.

기존의 정보구조 연구에서는 구정보와 신정보의 기준으로 정보구조를 고찰하였고 구정보인 성분은 화제, 신정보인 성분은 초점이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화자와 청자가 알고 있는 정보도 초점이 될 수 있고, 모르는 정보일지라도 화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화제, 초점, 강세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Lambrecht(1994)의 이론에 입각하여 'S+来/去+VP' 구문의 정보구조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5.1. 정보구조와 문장형식

본 절은 정보구조에 관한 개념을 제시하고자 한다. Lambrecht(1994:5)는 정보구조는 사태의 개념적 표상인 명제를 대화자의 심리 상태에 호응하여 어휘 문법적 구조와 대응시키고 대화자는 주어진 담화 문맥에서 이 구조를 정보 단위로 해석하게 되는 문장 문법의 한 부분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화자가 담화 맥락에서 전달하

고자 하는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청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선택하는 문장구조이다.

Lambrecht(1994:52)에서는 용어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신정보', '구정보' 대신 '전제', '단언'을 사용하였다. 전제(presupposition)는 문장이 발화될 때 청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화자가 추정하는, 문장에서 어휘문법적으로 환기되는 명제들의 집합이고 단언(assertion)은 청자가 발화된 문장을 들은 결과, 알 것이라고 또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기대되는, 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다.

저자는 초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초점(focus)은 전제를 포함하지 않고 단언의 일부이다. 아울러 초점은 화자와 청자가 공유하지 않는, 당연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는 명제의 부분이며 예측불가능(unpredictable)한 또는 화용적으로 회복불가능한(nonrecoverable) 요소이다.[69] Akmajian(1973)에서는 문장의 초점 구성성분은 새로운 정보를 표상하는데, 그 구성성분이 반드시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구성성분이 참여하는 의미적 관계가 주어진 담화세계와 관련해서 새로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70] Lambrecht(209-210)는 외연의미와 명제 사이의 이러한 화용적 관계가 초점 관계라고 했다. 초점 표시의 기능은 구성성분을 새로운 것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명제의 요소와 전체로서의 명제 사이의 초점 관계를 알리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구성성분에 강세를 주는 것은 그 지시체와 명제 사이의 관계 설정을 함의하고, 주어진 구성성분에 강세를 주지 않는 것은 이 관계를 이미 설정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을 함의한다. 저자가 제시한 예문을 보자.

(122) A: Where did you go last night, to the movies or to the restaurant?
너희는 어제 저녁에 영화관과 레스토랑 중에 어디에 갔었니?
B: We went to the RESTAURANT.
우리는 레스토랑에 갔었어.

69) 초점은 전제와 상보적인 것이다. 주어진 단언에서 전제 부분을 뺐을 때 남아있는 나머지라고 했다. [단언=전제+초점]

70) Lambrecht는 초점에 대한 관점이 이와 유사하다. 하지만 Akmajian은 화용적 단언과 초점의 개념을 구분하지 않았다. Lambrecht는 두 용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저자의 설명에 따르면 대답에서 명사구 RESTAURANT는 앞의 질문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아니지만, RESTAURANT의 외연의미가 열린 명제(open proposition) 'speaker went to x'에서 빠진 논항을 채우고 이러한 관계적 의미 때문에 '예측불가능' 혹은 '회복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이미 담화-활성화(active)된 구정보일지라도 초점으로 볼 수 있다. 발화의 요점은 청자에게 명제의 논항인 지시체들 사이의 관계의 본질을 알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Lambrecht에 의하면 새로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강세가 있는 구성성분 자체가 아니라 구성성분의 외연의미와 추상적인 명제 사이의 관계 설정이다.

강세와 초점은 구분해야 한다. 백은희(2005)는 강세가 있는 부분을 모두 초점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고 제시하면서 강세가 초점을 나타내는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즉, 강세가 초점의 절대적인 증거가 아니라는 것이다. 전영철(2006)은 강세는 초점뿐만 아니라 화제에도 올 수 있고, 강세와 초점의 개념을 하나로 보는 것은 모순된다고 했다. Lambrecht에 의하면 모든 문장은 정보적인 초점을 반드시 가져야 하므로 적어도 하나의 강세를 가지며, 강세는 필연적으로 초점 강세가 된다고 했다. 범언어적으로 보면 초점을 구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운율뿐만 아니라 어순, 형태표지 등도 있다.[71] Ladd(1980:73-80)는 강세는 정보초점을 나타내는 가장 명시적인 수단이라고 했고, 박정구(2015)는 정보구조를 문법구조와 형태로 분석할 때 운율은 보조적인 수단이지만 문법구조나 형태로 분석할 수 없을 때 운율이 정보구조를 분석하는 주요 수단이 된다고 강조하였다. 그리고 Chao(1968:23)는 중국어 강세의 주요 표현은 음역 확장과 음길이 연장 그 다음이 음세기 강화라고 했다.[72]

Lambrecht는 화제는 문장에 의해 표현된 명제가 대하는(is about) 실체로서 현재 관심이나 흥미가 있는 대상이며, 명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진술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화제는 대하여성(aboutness)을 가진다. 그러므로 화제를 판단할 때는 문장의 담화 맥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인지적으로 선호되는 화제 표현은 강세가 없는

71) 영어에서는 주로 운율을 사용하여 초점을 구현하고, 일본어나 한국어에서는 운율과 형태표지로 구현하며, 이탈리아어에서는 운율과 어순 수단을 통해 초점을 구현한다. 언어마다 초점을 구현하는 방식이 다르다.

72) 3성을 읽을 때는 더 낮게 읽고 4성을 읽을 때는 시작점을 더 높고 끝점을 더 낮게 발음한다고 했다.

대명사적 형태를 가진다. 그리고 화제는 반드시 전제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화제는 반드시 문두에 위치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화제와 초점은 서로 배척되는 개념이므로 하나의 성분이 화제이면서 동시에 초점일 수 없다고 하였다.[73)]

Lambrecht(1994:221-235)는 문장의 초점구조를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고 아래와 같이 설명을 전개하였다.

첫 번째 유형은 서술어-초점구조(서술어-평언)이다.

(123) A: What happened to your car?
너의 차에 무슨 일이 있었니?
B: My car/ It broke DOWN.
내 차가/ 그것이 고장 났어.

서술어-초점구조에서 응답에 의해 환기된 전제는 화자의 차가 논의를 위한 화제로서 화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초점은 'broke DOWN'이고 강세를 지닌다. 이처럼 서술어의 운율적 돋들림은 명제의 서술어-초점을 파악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두 번째 구조는 논항-초점구조(확인)이다.

(124) A: I heard your motorcycle broke down?
너의 오토바이가 고장 났다며?
B: My CAR broke down.
내 차가 고장 났어.

논항-초점구조의 응답에서 환기된 전제는 화자의 무언가가 고장이 났다는 것이다. 단언은 그것이 화자의 차라는 것이며 초점은 '차'이고 강세를 지닌다. 논항-초점구조는 서술어 구성성분이 반드시 강세를 수반해야 하는 서술어-초점구조의 반전(reversal)으로 특성을 규정할 수 있다.

---

73) 徐烈炯(1998)에서 제시한 '화제초점'은 실은 '대조 화제'의 개념이다. '화제초점'이라는 용어가 혼란을 많이 일으킬 수 있어서 본고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세 번째 유형은 문장 초점구조(제시 혹은 사건보고)이다.

(125) A: What happened?
무슨 일이야?
B: My CAR broke down.
내 차가 고장 났어.

문장-초점구조에서는 어떠한 화용적 전제도 형식적으로 유발되지 않으며 전제가 없다. 단언이 전체 명제로 확대되므로, 단언과 초점이 일치한다.[74] 저자는 세 가지 초점-구조 범주의 화용적 표명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냈다.

	논항이 초점	서술어가 초점
서술어 초점	-	+
논항 초점	+	-
문장 초점	+	+

〈표5-1〉 초점-구조 범주의 화용적 표명 (Lambrecht[1994])

Lambrecht는 서술어-초점구조는 무표적 초점구조로 분석되는 반면에, 논항-초점과 문장-초점구조는 유표적으로 분석된다고 했다. 박정구(2016)는 이 관점에 동의하며 중국어의 정보구조에서 주어가 화제인 것은 무표적(unmarked)이며, 주어가 화제가 아닌 것은 유표적(marked)이라고 하였다.

74) 이옥주(2007)에 따르면 문장 전체가 정보를 전달할 때 실현되는 초점 및 강세 구조(문장초점-구조)와 문장 내 특정 요소에 국한되어 실현되는 초점 및 강세 구조(논항-초점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문장 전체가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 실현되는 강세는 정상 강세이지만, 문장 내 특정 요소에 국한되어 실현되는 초점은 화용 초점 혹은 좁은 초점(narrow focus)으로 보아야 한다.

5.2.『S+来/去+VP』구문의 초점구조

이 절은 위에서 살펴본 개념을 통해 'S+来/去+VP' 구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 제시했듯이 'S+来/去+VP' 구문은 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행위자 S가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S를 강조하지 않는 것이다. 본고는 구문을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각각 분석할 것이다.

5.2.1. 주어가 초점인 경우

S가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S+来/去+VP' 구문은 일반적으로 S가 강세를 수반할 수 있다. 그리고 화자는 청자도 목적어에 대해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한정적이다. 예문을 통해 초점구조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75]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겨 팀원끼리 얘기하는 상황이며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문제가 생겼다.)

(126) a. 我来v/去v[F处理(一)件事]。 a′. *(一)件事我来v/去v处理 (비한정)
어떤 일을 처리하러 왔다/간다.

b. [F'**我**]来/去处理这件事。 b′. 这件事[F'**我**]来/去处理。 (한정)
이 일은 내가 처리할게.

(126a)에서 목적어가 비한정적일 때 '来/去'는 공간적인 이동의미가 있는 '来v/去v'로 나타난다. '(一)+양+명' 형식은 전형적인 비한정적 성분이고 보통 화제 자리에 나타나지 않고 화자가 청자에게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초점 표현이다. 그러나 Lambrecht에 따르면, 하나의 명제는 두 개의 단언을 표현할 수 없어서 두 개의 초점을 가질 수 없다. 즉, 한 절에서 하나의 초점만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S가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S+来/去+VP' 구문에서는 S가 초점이기 때문에

75) 본고에서는 초점(focus)을 'F'로 표시하였다. 강세가 있는 구성성분은 앞에 작은따옴표 (')를 붙인 굵은 글씨체로 표시하였다.

비한정적인 목적어가 출현할 수 없다.

반면 한정적인 목적어는 ‘S+来/去+VP’ 구문에 출현할 수 있다(126b). 여기서 화자는 청자들이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있다. 목적어뿐만 아니라 동사 ‘处理’도 대화 참여자에게 활성화되어 있다. 때문에 언어 환경에서 환기된 전제는 ‘발화 현장에 있는 사람 중 누군가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언은 ‘이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은 나다’이고 초점은 ‘我’고, 강세를 지닌다. 강세를 이미 활성화된 대명사 ‘我’에 놓는 것은 ‘我’가 새로운 지시체를 의미해서가 아니라 ‘我’와 전제 명제 사이의 새로운 화용적인 관계를 설정하기 위함이다.[76] 전제와 단언, 초점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전제: [X来/去处理这件事] / [这件事X来/去处理]

단언: [X = 我]

초점: 我

‘我’의 외연의미는 열린 명제에서 빠진 논항을 채우고 이러한 관계적 의미 때문에 ‘예측불가능’ 혹은 ‘회복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S를 강조하는 ‘S+来/去+VP’ 구문은 유표적인 주어-초점구조이다. Lambrecht(1994)에 따르면 논항-초점구조에서 단언의 목적은 논항과 이전에 환기된 열린 명제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고 S의 비-화제적 지위는 운율적 두드러짐에 의해 형식적으로 표시된다.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O+S+来/去+V’ 구문은 S에 강세가 없어도 성립되지만 ‘S+来/去+VP’ 구문에서 S에 강세가 없으면 공간적 이동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어서 이러한 현상을 나타내는 원인을 밝히고자 한다. Lambrecht(1994:15-16)에서는 화용적으로 무표적인 구성성분의 순서는 ‘주어-동사-목적어’이고 무표적인 문장-강세 위치는 절의 끝이라고 했다. 이동의미가 있는 ‘S+来/去+VP’ 형식은 이러한 규칙에 부합한다.

---

76) Lambrecht(1994:290-291)는 강세가 있는 대명사가 특히 대조적으로 지각되기 쉽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명사는 담화에서 일반적으로 강세가 없으므로, 무표적 초점-구조 유형에서 선호되는 화제 표현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표준에서의 일탈인 강세가 있는 대명사의 예는 자연스럽게 특별한 의사소통 신호로 해석된다. 즉, 강세가 있는 대명사는 보통 유표적인 초점-구조 유형에 나타난다.

(127) a. (我)来v[F处理这件事儿](来了)!
(나는) 이 일을 처리하러 왔어.
b. (我)去v[F处理那件事儿](去)!
(나는) 이 일을 처리하러 가.

예문(127)을 보면 서술어는 '我'에 대한 청자의 지식을 증가시키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때 '我'는 화제로 볼 수 있다. 문장에서 초점은 동사구 '处理这件事'이고 화제에 대한 평언이다. 따라서 해당 구문은 가장 무표적인 서술어-초점구조다. 또한 이러한 경우 문장은 공간적인 이동을 나타내고 '来/去'는 '오다', '가다'라는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徐烈炯(2004:240)에 의하면, 중국어 정보초점은 주로 통사 위치로 실현되므로 다른 통사 규칙을 위배하지 않는 전제하에 정보초점은 보통 심층구조를 나타내는 수형도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성분이다. 때문에 중국어 문장에서 해당 위치에 오면 이를 다시 강하게 읽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서술어 영역에 위치하는 '处理这件事'의 강세는 뚜렷하지 않아도 된다. 전제, 단언 및 초점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전제: [说话者来/去X]
단언: [X = 处理这件事]
초점: 处理这件事

그러나 Lambrecht(1994)에 의하면 의사소통의 의도와 문장의 문법적 형식 사이에는 일대일로 대응할 수 없다. 화자는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새 구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의 의도에 따라 기존의 구조를 창조적으로 사용한다. 즉, 새로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어순, 운율, 표지 등 수단을 이용하여 기준 문장 구조를 창조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미이다.

강세 - [F'我]来/去处理这件事！
어순 - 这件事[F我]来/去处理！
어순 + 강세 - 这件事[F'我]来/去处理！

행위자 S가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의도를 표현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서술어 위치에 강세를 두지 않고 '我'에 강세를 놓는 것이다. 즉, Lambrecht가 주장했던 것처럼 서술어의 운율적 두드러짐을 제거함으로써 초점이 아님을 표시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어순의 변환이며 운율과 어순 수단을 결합하여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세 가지 방법을 통해 문장을 서술어-초점구조에서 벗어나게 하고 유표적인 논항-초점구조로 만들 수 있다.

그리고 2장에서 주어(S)의 지시성을 논의할 때 문장에서 S를 강조하는 경우 초점인 행위자 S와 대립하는 집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단하게 언급하였다. 재차 언급하자면 큰 집합에서 명시되어 선택된 대상은 다른 잠재되고 선택되지 않은 대상 사이에 대조를 자연스럽게 이루게 된다. 즉, 하나의 한정된 범위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예문을 통해 주어-초점구조 유형의 대조적(contrastive)인 의미를 보자.

(丽丽와 芳芳이 小美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다.)

(128) 小美: 谁刷碗呢？
누가 설거지할까?

丽丽: (碗)[F'**我**]来刷吧！ (你们不用管了。)
내가 할게. (너희들은 그냥 쉬어.)

한정된 초점 집합	
발화자인 '丽丽(我)'	다른 구성원 '小美', '芳芳'
선택된, 명시된 것	선택되지 않은, 잠재된 후보들

예문은 세 사람이 설거지를 할 사람을 정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렇기 때문에 '谁'에 해당되는 후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세 사람으로 한정된다. 그리고 '丽丽'의 대답으로 그가 선택된, 명시된 초점이 되었고. 나머지 후보 구성원들은 선택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잠재된 배경이 된다. 따라서 '我'는 나머지 후보들과 구분되고 대조되며. 이는 '다른 후보들'이 가시적으로 출현하든 그렇지 않든 모두 그러하다. 그러므로 '다른 후보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대조의 의미는 대화에 함축되어 있다. Lambrecht(1994:291)에서도 대조는 문법 범주가 아니고, '대화 함축(conversational implicatures)'으로 지칭된 일반적인 인지처리과정의 결과라고 하였다.

그리고 박철우(2003:83)는 정보구조 구현 기제에 있어서 강세는 어순과 달리 입말에서 실현되는 특징이 있는데, 강세에 의한 초점 부여는 정보 제공의 강력한 수단으로 기능할 뿐 아니라 다른 것을 배제하는 의미 혹은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를 부정하는 효과까지 가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주어-초점구조인 'S+来/去+VP' 구문은 '대조'의미가 있어서 배타적(exclusive)인 특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하나의 한정된 영역에서 S가 선택되어서 S 외의 다른 후보들은 배제된다. 예문(129)가 성립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타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S+来/去+VP' 구문에 '대조'가 있는 것을 다시 검증할 수 있다.

(129) a. *这件事情'**我**来处理！'**你**也来处理！
b. *'**我**来刷碗！'**你**也得刷！
c. *责任'**我**去承担，'**你**也去承担！

결론적으로 주어-초점구조인 'S+来/去+VP'에 나타나는 대조는 주로 맥락에 한정된 범위가 존재할 때 함축된다. 또한 Bolinger(1961:87)가 언급했던 것처럼 넓은 의미에서 의미적 절정은 모두 대조적이고. 대안들이 제한될수록, 즉 담화에서 대조를 형성하는 대상들의 범위가 명확할수록 대조의미가 더 뚜렷하다.[77]

그리고 주어-초점구조인 'S+来/去+VP' 구문은 담화 영역에서 S가 초점이고 다른 성분은 공유된 지식이라서 S 외에 다른 성분은 모두 생략할 수 있다.

(130) A: 这个责任谁来/去承担?
이 책임은 누가 질래?
B: [F'**我**]来/去! b′: [F'**我**]！
내가 질게.
(131) A: 这个问题谁来回答一下？
이 문제는 누가 대답할까?

77) 현대 심리학 분야에서는 사람의 보편적인 인지적 심리 활동을 연상(association)이라고 정의하였다. 연상은 접근(close)연상, 대조(contrary)연상, 유사(similar)연상으로 나뉜다. 즉, 대조는 인류의 공통적인 사유 활동이고 언어 보편성을 가진다.

B: 老师！[F'**我**]来！ b′: 老师！[F'**我**]！
선생님! 제가 할게요.

예문(130-131)을 보면 문맥이 있으면 가끔 초점 '我'만으로 대답해도 된다. 그러나 언어적 맥락이 존재하지 않는 특정 발화환경에서는 '来'가 생략될 수 없다. 다음 예를 보자.

(한 여학생이 무거운 책상을 힘들게 밖으로 옮기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던 남학생의 말을 걸음)

(132) a. [F'**我**]*(来)吧！ a′. [F'**我**]*(来)！ [F'**我**]*(来)！[78]
내가 할게.

예문(132)는 여학생이 힘겹게 무거운 책상을 옮기는 것을 본 화자가 자신이 도와줘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고 여학생에게 다가가 한 발화이다. 이때 화자는 이미 상황을 통해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VP는 생략 가능하지만 '来'는 생략할 수 없다. 전제는 언어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환기된 것이다. 따라서 언어적 맥락이 없으면 '来'를 생략할 수 없고 언어적 맥락이 있으면 '来'를 생략해도 된다.

다음으로 맥락에 따라 초점뿐만 아니라 화제에도 '대조'를 부가하는 예를 보겠다.[79]

(丽丽와 芳芳이 小美의 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다.)[80]

(133) 小美: 吃饱了！咱们一起整理一下吧！
배불러! 우리 함께 정리하자!
芳芳: 行！两个人收拾厨房，一个人刷碗。
그래! 두 사람이 부엌을 치우고 한 사람이 설거지하자.
丽丽: 那...'**碗**[F'**我**]来刷吧! (厨房你们来负责！)
그럼... 내가 설거지할게. (부엌은 너희들이 정리해!)

78) *(X): 적합한 문장이 되려면 반드시 X를 포함시켜야 한다.
79) 사례(2019)에서는 화제에 대조라는 독립적 범주를 적용하면 대조적 화제라는 개념이 얻어진다고 했다. 그리고 대조 초점은 초점에 대조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80) 이러한 경우 사건이 청자와 화자가 함께 있는 공간에 발생하여 '去'를 사용할 수 없다. 사용하면 이동의미가 있는 '去v'로 해석된다.

대조를 이루는 초점 및 화제의 집합		
행위자(S)	丽丽 '我' (S1)	小美/芳芳 '你们' (S2)
화제(T)	화제인 刷碗 (T1)	收拾厨房 (T2)

담화를 보면 두 개의 활성화된 화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들 뒤에는 휴지나 어기사 '呢'를 삽입할 수 있다. 보통 화제적 성분은 생략되기 마련이지만 예문에서 '刷碗'은 활성화되었지만 생략할 수 없다. 이는 화자에 의해 선택된 '刷碗'과 선택되지 않은 '收拾厨房'이 대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점과 화제 모두 상황에 따라 대조를 함축할 수 있다.

대조되는 집합은 문장에서 명시되기도 한다.

(선생님이 정/부반장에게 자습시간에 칠판에 수학 문제를 써놓고 다른 학생들과 같이 문제를 풀라고 했다.)

(134) 小王: 我们把问题写在黑板上吧。一个人念，一个人写，怎么样？
문제를 칠판 위에다 쓰자. 한 사람이 읽고, 한 사람이 쓰는 거 어때?

小张: 行！[F'**我**]来'**念**，[F'**你**]来'**写**。
좋아! 내가 읽을게, 네가 써.

예문을 보면 화제는 현재 담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는, 선생님이 사전에 내주신 문제이고 다시 하위 화제인 '문제를 읽다'와 '문제를 쓰다'로 나뉠 수 있다. 그리고 小张의 발화를 통해 행위자들과 화제들 사이의 관계가 정해지고 '念'을 할 사람은 화자 자신이고 '写'를 담당하게 될 사람은 청자임을 명시해준다. 小张의 발화는 두 개 절의 연속체로 이루어지고 초점들이 모두 가시적으로 나타나서 이에 관련된 화제들도 가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은 맥락에서 화제 성분이 두 개가 있고 서로 동등한 화제 지위를 지니고 있어서 각각 다른 초점과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사도 반드시 출현해야 하고 다만 화제인 목적어(问题)는 흔히 생략된 형태로 나타난다.

주목해야 하는 것은 맥락에서 화제가 '대조'를 함축하면 화제적인 성분은 생략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강세를 부여받을 수 있다. Chao(1968:23)는 강세를 일반 강

세, 대조 강세, 약 강세(경성)로 나누었다.[81] 冯胜利(1997)에서는 문장 층위의 운율 강세 유형을 제시하였다.[82]

대조 강세 (Contrastive Stress)

부분 강세 (Narrow Scope Focal Stress)

일반 강세 (Wide Scope Focal Stress/Normal Stress)

일반 강세는 일반적인 언어 환경에서 실현되는 문장의 강세 형식을 가리키고 특수한 환경에서는 문장의 특정 성분에 대조/부분 등 강세가 실현된다고 했다. 따라서 일반 강세는 서술어-초점구조에 나타나는 강세에 해당한다. 부분 강세는 논항-초점구조에 나타나는 강세이고 대조 강세는 바로 위에서 제시한 '대조'의미가 있는 화제에 놓이는 강세다.

Lambrecht(1994:325)는 문장 강세의 담화 기능은 화자가 청자에게 외연의미와 명제 사이의 화용적 관계를 설정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문장 강세는 다시 초점 강세와 화제 강세로 구분할 수 있다.[83] 화제 구성성분의 경우 설정된 관계는 화제 지시체와 명제 사이의 관계이고 강세는 강세가 있는 구성성분의 지시체가 명제와 화제 관계를 맺고 있음을 표시한다. 예문(134)를 보면 '念(问题)', '写(问题)'는 모두 활성화되었지만 아직은 화제로 설정되지 않았다. 활성화된 성분이더라도 화제로 설정된 것과 설정되지 않는 것으로 나누어야 한다. 만약 이미 화제로 설정되면 강세를 놓으면 어색하다.[84] 만약 아직 화제로 설정하지 않았으면 강세를

81) Chao(1968:88-91)는 중국어의 술어 형식은 대조식(contrastive), 긍정식(assertive), 서술식(narrative)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술어 부분이 대조식일 때 (즉, 기타 술어와 대조를 이룰 경우) 대조를 강조하기 위해 특강 강세를 사용한다고 했다.

82) '是'를 사용하는 강조(Lexical Focal) 강세도 제시했는데 본고와 관련이 없어서 고려하지 않았다. 특수적 경우는 다음과 같이 예를 들었다.
강조: 他'是打了我一下。그는 나를(안 때린 것이 아니라) 한 대 때렸다.
대조: 他是打了我'一下。그는 나를(두 대 때린 것이 아니라) 한 대 때렸다.
부분: 你打了他'几下？너는 그를 몇 번 때렸니? (몇 번 때린 것인지에 대한 대답을 요구)

83) 초점 구성성분의 경우 설정된 관계는 초점과 명제의 비초점 부분 사이의 관계이고 강세는 강세가 있는 구성성분의 지칭물이 명제와 초점 관계를 맺는 것을 표시한다.

84) Lambrecht(1994:325)에서는 활성적 지시체를 가진 화제 구성성분의 경우에 운율적 두드러짐은 문장에서 예측된 조응적 관계에서의 일종의 불연속에 대한 도상적 신호로 간주할 수

부여하는 것을 통해 일반적 경우와 구별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활성화된 성분에 강세를 부여하여 화제를 설정하기 위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85] 화제가 강세를 수반하는 것은 의사소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최규수(2004)에서는 초점 성분 이외의 다른 성분을 강조하려는 특별한 의사소통의 의도를 덧붙이려는 목적이 있다면 초점이 아닌 화제 성분에 강세를 줄 수도 있다고 하였다.[86] 이와 같이 문맥에 한정된 대조 화제 영역이 있기 때문에 발화자인 '丽丽'와 '小张'은 의도성을 갖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강조하기 위해 강세를 붙여서 발화하였다.

그리고 만약에 예문(134)와 달리 앞에 전제적인 성분이 없으면 동사인 '念', '写'는 모두 답문에 처음으로 출현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누가 무엇을 할 것인지, 즉 행위자와 동작의 관계가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에 문장은 문장-초점구조이다.

(134′) 小王: 我们把问题写在黑板上吧。
문제를 칠판 위에다 쓰자.
小张: 行！[F'**我**来'**念**], [F'**你**来'**写**]。
좋아! 내가 읽을게, 네가 써.

지금까지 S를 강조하는 유형을 분석했다. S를 강조할 경우 보통 한정된 (초점/화제) 범주가 있어서 '대조'의미를 뚜렷하게 느낄 수 있으며 화제에 대조가 없을 때 문장은 유표적인 논항-초점구조이다. S는 초점이고 생략할 수 없는데 나머지 성분은 상황에 따라 쉽게 생략할 수 있다. 발화에서 환기된 전제는 동작을 X가 한다는 의미로 구문 전체는 책임 의미를 나타낸다. 반대로 만약 화제에도 대조가 있고 앞에 전제적인 정보가 없을 때 문장은 유표적인 문장-초점구조다.

'来/去'는 대부분의 경우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다(단지 '去'가 구체적인 경우 문

있다고 했다.

85) Lambrecht(1994:204)에서는 이러한 현상은 독일어에서 형식적으로 구분된다. 예컨대 삼인칭의 'he, she, it, they'를 표현할 때 'er, sie, es, sie'의 집합과 'der, die, das, die'의 집합이 있다. 일반적으로 'er'류의 대명사는 지시체가 활성적이고 이미 화제적일 때 사용되는 반면, 'der'류의 대명사는 지시체가 활성적이지만 아직 화제로 설정되지 않았을 때 사용된다.

86) 최규수(2004)에서는 화제는 문장의 다른 성분에 비해 늘 덜 중요한 성분으로 해석돼서 강세가 부여되지 않고 생략되기도 한다. 한국어에서 화제에 강세가 보통 부여되지 않고 특수한 경우에는 화제에 강세가 부여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화제의 '강조'로 해석된다고 했다.

장은 S를 강조하면서도 이동의미를 표현). 하지만 사건이 대화 참여자들이 모두 있는 공간에서 일어나면 '去'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S를 강조하는 'S+来/去+VP' 구문은 '去'보다 '来'에 제약이 적다.[87]

5.2.2. 주어가 초점이 아닌 경우

S를 강조하지 않을 때 보통 S에는 강세가 없고 생략할 수도 있다. 그리고 구문은 '来'만 사용하는 경우, '去'만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来/去'를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예문을 통해 '来'만 사용하는 경우를 알아보도록 하자.

(주말에 기숙사에 있는 두 학생이 저녁밥을 같이 먹었다.)

(134) A: 太无聊了！做点儿啥呢？
너무 심심해! 뭐 좀 할까?
B: (咱们)[F来看会儿剧]吧！
(우리) 드라마를 좀 보자.

(회식할 때 다들 계속 말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다.)

(135) A: 再来干一杯！
한 잔 더 하자!
B: 好啦！好啦！别喝了！(我们)[F来吃点儿东西]吧。
그만! 그만! 마시지 마! (우리) 뭐 좀 먹자.

(역사 선생님이 수업에서 동영상을 보여주려고 한다)

(136) 刚才我们一起学习了课文。下面(我们)[F来感受一下大唐盛世]。
방금 우리는 함께 본문을 공부했습니다. 다음은 (동영상을 통해)당 성세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87) S를 강조할 경우 '去'는 모두 '来'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문장은 매우 구어적이고 주로 일상적/구체적인 발화 상황에 사용한다. 동작은 구체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고 대화 참여자들은 모두 그 장소에 있어야 한다. 발화에서 환기된 전제는 '우리 X를 하자'이다. 여기서 '我们'은 화제이고 생략해도 된다. 그리고 술어 부분은 초점이고 전제된 열린 명제 '我们来X吧'에서 빠진 논항을 채운다. 이때 문장은 무표적인 서술어-초점구조다.[88] 의사소통의 차원에서 볼 때 화자가 이런 문장을 사용하는 목적은 발화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요청', '제안', '알림'을 하기 위함이다. 이때 행위자를 도입하는 '由'는 출현할 수 없다.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전제: [(我/咱们)来X]
단언: [X=看会儿剧/吃点东西/感受一下大唐盛世]
초점: 看会儿剧/吃点东西/感受一下大唐盛世

그리고 S는 생략 가능하고 S와 '来' 사이에 '先', '再', '就', '下面', '继续' 등 성분이 나타날 수 있다. S 뒤에 휴지나 어기사 '呢', '啊' 등을 삽입할 수도 있다.

(137) a. 行！咱们(啊/呢)[F就来打个赌]！
그래! 우리 내기하자!
b. 我们(呢)[F先来喝一杯]。喝完再说！
먼저 한 잔 하자! 마시고 나서 얘기하자!
c. 咱们(啊)[F再来看一下课文]。
다시 본문을 볼까요!
d. 我们[F下面来看最后一小段]。
다음 마지막 한 소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 '来'는 담화 표지로서 문장의 맨 앞에 위치할 수 있다.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담화 표지(Discourse Marker)는 화자의 의도나 태도, 감정까지 나타낸다.[89] 전

88) 화제-평언 유형에서 단언의 목적은 이미 확립된 담화 지시체에 대해 화용적으로 서술하는 것이다.

영철(2008)에서는 담화 표지 '자'는 의미적 차원에서 특별한 어휘적 의미가 없어서 문장의 명제적 의미에도 작용하지 않으면서 규칙적인 문법 기능도 없는 언어형식이라고 했으며 통사적인 차원에서 살피면 문장 내에서 출현 양상도 상당히 수의적이지만, 담화에서 화자의 의도, 목적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언어요소를 말한다고 했다.

(138) a. 来！聊会儿天儿！
자! 수다 좀 떨자!
b. 来！吃吧！
자! 먹자!
c. 来来来！尝尝味道！
자! 맛 좀 보자!

(139) a. 来！我们看下一题！
자! 우리 같이 다음 문제를 보자!
b. 来！咱们一起读一下！
자! 다 같이 읽어봐요!
c. 来！唱！
자! 불러!

(140) a. 来来来！我们[F来干一杯]！
자! 우리 한잔합시다!
b. 来！我们[F来坐会儿吧]！
자! 잠시 앉읍시다!
c. 来！这块儿(大的)[F'**你**]来吃！
자! 이 (큰) 것은 네가 먹어!
d. 来！(蛋糕)[F'**我**]来切！
자! (케이크) 내가 자를게!

여기서 예문(140)은 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담화 표지 '来'와 주어 뒤의

89) 그리고 담화표지는 주로 구어에서, 직접적으로 문장의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대화의 목적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전달하고자 문장 간의 응집성 및 연결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표지'라고 하였다.

‘来’는 함께 출현해도 된다. 그리고 S를 강조하든 강조하지 않든 담화표지 ‘来’는 모두 문장 첫머리에 위치할 수 있다. 이런 ‘来’의 용법은 일상생활에서 빈번하게 사용된다. ‘来’는 담화표지로서 특별한 어휘적 의미가 없지만, 화자의 의도를 전달하고 청자의 주의를 끄는 기능이 있다. 즉, 화자가 청자에게 무언가를 요청하거나 제안하기 위해서 먼저 청자를 집중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발화 공간은 실질적인 공간을 가리킬 수도 있고 온라인과 같은 추상적인 공간을 가리킬 수도 있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사람들은 짧은 동영상을 찍거나 라이브 방송 등 형식을 통해 시청자에게 자신의 생활을 공유한다. 라이브 방송을 할 때 화자는 혼잣말을 하는 형식으로 방송을 이어나가지만, 그의 발화는 결국 모두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의 사이버 공간에 같이 있게 되는 셈이다. 녹화된 동영상 및 기타 영상 미디어도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나레이터가 혼잣말을 하지만 이는 모두 시청자를 향하고 있어서 ‘我们’, ‘你’, ‘你们’ 등의 지시표현은 모두 시청자들을 암묵적으로 지칭하고 있다.[90] 방송뿐만 아니라 전화, 화상 채팅 등 역시 가상 공간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화자와 청자의 발화가 이루어진다. 아래 예문을 보자.

(훈련사는 훈련 전에 강아지의 행위를 전시했다.)

(141) a. 一个月过去了。现在(我们)[F来看一下它的训练效果]。
한 달이 지나갔어요, 이제 그의 훈련 효과를 봅시다.

b. 一个月过去了。来！[F一起见证一下效果]！
한 달이 지나갔어요. 자! 효과를 함께 봐요!

(1인 방송)

(142) a. (我们)[F先来尝尝这个]！
이것부터 먹어봐요.

b. ..., 今儿(咱们)[F就来看一下什么冻起来最好吃]。
..., 오늘은 어떤 게 얼렸을 때 가장 맛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90) 텔레비전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Human and Nature>)
a. 下面我们[F来感受一下大自然的神奇]。대자연의 신비로움을 느껴보겠습니다.

(전화/화상채팅)

(143) A: 我们出去逛街啊！
우리 쇼핑하러 나가자!

B: 最近新冠这么严重！别出去了！(我们)[F来打游戏]吧！
요즘 코로나 엄청 심해! 나가지 말자! (우리) 게임을 하자!

'S+来+VP' 구문은 문맥 없이 발어문으로 사용할 경우 문장-초점구조를 가진다.

(부부가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중 아내가 갑자기 배가 고프다.)

(144) a: [F咱们来点点儿东西吃]吧！你饿不？
우리 뭘 좀 시켜 먹자! 너는 배고파?

b. ?来点点儿东西吃吧！ 你饿不？

(음식방송)

(145) a: 大家好！今天[F我们来做部队火锅]。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대찌개를 만들어봐요.

b. ?大家好！今天来做部队火锅。

예문(144b)와 예문(145b)에서 S를 생략하면 문장이 조금 부자연스러워지고 S 뒤에 일반적으로 휴지나 어기사를 붙이지 않는다. 이때 문장에는 전제가 없고 단언은 전체 명제로 확대되므로, 단언과 초점이 일치한다.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전제: -

단언: 我(咱)们来点点儿东西吃/做部队火锅

초점: 我(咱)们来点点儿东西吃/做部队火锅

1인칭 단수인 '我'도 구문에 나타날 수 있는데 어떤 일을 누가 할 것인지 미리 정해져 있는 상황이 그러하다. 비록 문장에서 S에 '我'를 사용했지만 VP가 나타내는 사건은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도 함께 참여한다. 따라서 '来'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S에 '我(咱)们'를 많이 사용하고 문장은 대화 참여자들이 다 같이 VP를 함을 의미한다.[91] 먼저 발어문인 경우를 보자.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에서 사회자가 최종결과를 발표하려고 한다.)

(146) a: (请看大屏幕) [F我来宣布一下他们成绩]。
(스크린을 보세요) 제가 그들의 성적을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 (请看大屏幕) *来宣布一下他们的成绩。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다.)

(147) a: [F我来讲一下≪春晓≫]。
이번 시간에는 ≪춘효≫를 보겠습니다.

b. *来讲一下≪春晓≫。

예문(146)~(147)은 발어문으로 문장-초점구조이기 때문에 S를 생략할 수 없고 뒤에 어기사, 휴지, 다른 성분 등도 출현하지 않는다. 화자는 발화를 통해 행위자가 누구인지 소개한 후 이어서 곧 무엇을 진행할 건지에 대해 현장에 있는 청자에게 전달해준다. 그러나 만약 발어문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다.

(146′) (我)[F先来宣布一下A组的成绩]。
먼저 A팀의 성적을 발표하겠습니다.

(147′) (我)[F先来讲一下这首诗的写作背景]。
먼저 이 시의 작품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문(146′)~(147′)을 보면 발어문이 아닌 경우 S와 '来' 가운데 다른 성분이 들어갈 수 있고 S를 생략할 수 있다. 해당 경우 문장은 서술어-초점구조이고 청자들은 모두 행위자가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다.

'我', '我(咱)们'은 모두 'S+来+VP' 구문에 출현할 수 있지만, 차이점이 있다.

91) '我们'으로 바꿀 수 있다. '我们先来看一下这首诗的写作背景。' '我们来一起看一下他们的成绩。'

(148) a. *我先来散散步。
b. (我们)[F先来散散步]吧。
(우리) 먼저 산책 좀 하자.

a′. *我先来休息一下。
b′. 别做了！(咱们)[F来休息一下]吧！
하지 마! (우리) 좀 쉬자.

(149) a. *我来v散散步吧。
b. [F我们来散散步]吧。
우리 산책 좀 하자.

a′. *我来v休息一下吧。
b′. [F咱们来休息一下]吧！
우리 좀 쉬자.

예문(148)은 서술어-초점구조인 경우고 (149)는 발어문이고 문장초점인 경우다. S가 '我(咱)们'일 경우에 자동사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我'일 경우에 자동사가 나타날 수 없다.

정리하면 S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 'S+来+VP' 구문은 발어문으로 사용되면 문장-초점구조고 발어문이 아니면 서술어-초점구조이다. 또한 대화는 반드시 모든 참여자들이 모여 있는 현장에서 이뤄진다. 구문은 화자와 청자가 같이 어떤 일을 하자는 뜻이고, 이는 발화 직후 시작할 것이라는 의미를 전달한다.

다음으로 '去'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50) a. 我们正青春，[F勇敢地去奔跑，去欢笑，不要害怕失败...]
우리는 한창 청춘이니, 용감하게 달리고, 웃고, 실패를 두려워 하지 말자.
b. 你[F应该不断地去挑战自己]！
너는 끊임없이 자신에게 도전해야 해!
c. 不要放弃！[F去实现你的价值]吧！
포기하지 마! 너의 가치를 실현시켜!
d. 别伤心了！[F去适应这个社会]吧！
슬퍼하지 마! 천천히 이 사회에 적응해!
e. [F去经历，去成长]！
경험하고 성장해라!

'去'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발어문으로 사용할 수 없고 보통 연설이나 작문 등의 마지막 단계에 사용하고 취지를 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미래에 어떻

게 해야 할지에 대해 충고하거나 격려하는 의미를 나타낸다. 문장에서 S는 생략된 형태로 출현하는 경우가 많고 환기된 전제는 '나/너/우리는 (앞으로) X를 할 것이다'이다. 따라서 '去'만 사용할 수 있는 구문은 화제가 S이고, 초점이 서술어 VP인 무표적인 서술어-초점구조이다.92)

'去'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추상적이어서 실제적인 공간을 묘사할 수 없다. 동작도 추상적이어서 실현 가능성 역시 불확실하다. 따라서 '来'구문에서와 달리 VP는 발화 직후 실현될 동작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수도 있는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막연한 느낌을 준다.

'来'도 일부 추상적인 상황에 출현할 수 있고 '去'로 대체할 수 있다.

(151) a. (我们)[F来迎接美好的明天]吧!
(우리) 함께 아름다운 내일을 맞이하자!
b. (我们)[F来一起迎接2021]吧！
함께 2021을 맞이합시다!
c. 春(将)至人间, [F来一起迎接温暖的春天]吧。
봄이 곧 도래하니, 따뜻한 봄을 함께 맞이하자.

이러한 경우 문장은 일반적으로 발어문으로 사용할 수 없고 무표적 서술어-초점구조이다. '내일/2021/봄'을 맞이하는 것은 추상적인 동작이다. 그러나 내일, 2021년, 봄은 모두 반드시 도래할 미래이고 또 머지않은 미래를 나타내기 때문에 위에서 말한 '去'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와 달리 동작 발생은 확정성을 가진다. 따라서 화자의 인식 속에서 VP는 이러한 확정성을 가질 때 '来'도 추상적인 VP와 함께 출현할 수 있다. 이때 문장은 화자가 청자에게 동작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는 의미를 가진다. 상기 상황에서 '来'와 '去'는 서로 바꿔 사용해도 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来迎接明天'은 행위자 S가 다가올 '明天'을 피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去迎接明天'은 S가 능동적으로 '明天'을 맞이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다.

92) 2장에 제시했듯이 'S+去+VP' 구문에 다양한 인칭형식을 사용할 수 있다. '你'를 사용할 경우 청자뿐만 아니라 발화자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다. 그리고 화자를 포함한 이 말을 듣거나 읽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기도 한다.

종합하면 S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에 문장은 일반적으로 서술어-초점구조이다. 다만 '来'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만약 발어문으로 출현하면 구문은 문장-초점구조이다. 그리고 '来'와 '去'의 사용 환경이 다르다. 이들의 차이점은 아래 도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구체		추상
(현장성) 발화한 다음 확정성 '来'	→	먼 미래 불확정성 '去'

〈표5-2〉'来', '去' 사용 환경의 차이

본 장은 정보구조이론을 근거로 'S+来/去+VP' 구문을 분석했다. 분석을 통해 'S+来/去+VP' 구문이 발화 상황과 화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S 강조 여부에 따라 구문은 다른 초점구조를 가지고 '来', '去'와의 결합 관계도 달라지며 의미 또한 상이해진다. 간략히 정리하면 아래의 두 표와 같다.

		주어-초점	서술어-초점	문장-초점
S 강조		√	x	√
S를 강조하지 않음	'来'만 사용	x	√	√
	'去'만 사용	x	√	x
	'来/去'	x	√	x

〈표5-3〉'S+来/去+VP' 구문의 초점구조 유형

유형	의지	구문의미
주어-초점	(매우) 강	행위자 S가 누구인지를 강조한다. (책임 의미)
문장-초점	(상대) 약	발화하고 나서 당장(가까운 미래)/먼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이다.
서술어-초점		来: 알림/청유/제안 去: 조언/권유

〈표5-4〉'S+来/去+VP' 구문의 의미

제6장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来/去'의 문법화

제5장은 비이동 'S+来/去+VP' 구문의 초점구조 유형을 살피면서 '来/去'의 차이점도 제시했다. 본 장에서는 범언어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차이가 존재하는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6.1. 범언어적 이동동사의 문법화

본 절은 다른 언어에서의 이동동사의 문법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미래시간 표현은 두 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하나는 굴절적인(inflective) 형식이고[93], 다른 하나는 우언적인(periphrastic) 형식이다. 예를 들어 영어, 독일어를 비롯한 게르만어에는 형태론적으로 구별되는 미래시제가 없고 각종 우언적인 방법을 통해 표현된다. 영어 'be going to' 구조가 대표적인 예이다. 범언어적으로 보면 대부분 언어는 우언적인 방식으로 미래를 표현한다. Bybee(1994)에 따르면, 미래시제 구문은 한정된 수의 어휘들로부터 발전되어 왔으며, 발달 과정 또한 매우 제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Heine(1995)와 Bybee 외(1994)가 공시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제시한 미래시제 표지의 문법화 경로(grammaticalization channel)는 아래와 같이 간략히 도식화할 수 있다.

93) 예를 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등 로망스어군(Romance)에서는 굴절형태소(inflectional morpheme)로 미래를 표현할 수 있다. 프랑스어 등 일부 언어는 굴절적인 형식과 우언적인 형식을 모두 사용한다.

ABILITY		
OBLIGATION		
DESIRE	→ INTENTION	→ FUTURE
COME(TO)		
GO(TO)		

〈도식6-1〉 미래시제 표지의 문법화 경로 (Heine[1995]; Bybee 외[1994])

Bybee(1994)는 각 언어에서 미래 시간을 표현하는 문법 형식들을 '미래문법형태(future gram)'라고 지칭하였다. Bybee(1994:2)에 따르면, 문법형태는 동사와 관련된 문법적 형태소(grammatical morpheme)를 가리킨다.[94] 그리고 도식을 보면 이러한 미래문법형태는 보통 '의도'를 표현하는 단계를 겪고 미래의미까지 발전하는데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는 것은 미래에 그 일을 할 것이라는 의미를 함의하기 때문이다.[95] Hilpert(2008:4)에서도 문법구조는 단순히 하나의 기능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문법화 이론의 시각에서 본다면 문법구조의 다기능성은 통시적 발전의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했다.[96]

그리고 사건시간과 참조시간의 거리에 근거해 가까운 미래(immediate future)와 먼 미래(remote future)로 나눌 수도 있다. Bybee 외(1994:341)는 곧 닥쳐올 듯하거나 곧 발생할 사건을 나타내는 데 제약되는 미래 문법형태는 가까운 미래라고 지적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서의 총 39개의 미래문법형태는 가까운 미래 용법을 지니고 있고, 가까운 미래는 단순미래(simple future)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래 문법형태라고 하였다. 가까운 미래는 즉각적으로 발생할 사건을 지칭하는 미래고 '즉시미래'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Bybee 외(1994)에 따르면 먼 미래를 나타내는 문법형태는 하나밖에 발견

94) 문법적 형태소는 명사, 동사 등 크고 개방적인 품사와는 달리 폐쇄적 유형의 요소들로, 그에 속하는 성분들은 출현 위치, 공기 제약, 다른 요소들과의 상호 작용 등 특수한 문법적 기능에 의해 결정된다. 형식적으로 보면, 문법적 형태소는 접사(affix), 어간 변화(stem change), 중첩(reduplication), 조동사(auxiliary), 불변화사(particle) 혹은 영어의 'be going to'와 같은 복합 구조로 나타난다.

95) Bybee(1994:371)는 화자가 행위자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어딘가로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할 때, 그녀/그가 또한 그것을 하려는 의도를 말하고 있다고 했다.

96) 염죽균(2018:7)에서 재인용.

되지 않았다. 염죽균(2018)에서는 이에 대해 미래의 본질은 비실재적이어서 사건시간과 참조시간의 거리가 멀수록 사건의 불확정성이 높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발생시간을 예측하는 데 어려움이 커서 먼 미래를 나타내는 표지를 찾기 어려운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Fleischman(1982:20)에서는 의미 기능적 측면에서 미래 사건을 불확정 사건(contingent)과 확정사건(assumed)으로 구분하였다. 전자는 발생할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치 않은 사건이고, 후자는 반드시 발생할 사건을 나타낸다.[97]

이동동사 'go/come'이 미래의 개념 범주로 발전하는 것은 중국어만의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범언어적으로 많은 언어에서 발견된다. 그리고 Bybee 외(1994:372)에서도 가까운 미래표지의 가장 주요한 기원은 'come(to)'이고 'go(to)'에서 온 가까운 미래표지는 없다고 하였다.[98] 그리고 Heine & Kuteva(2002)에 따르면, 다양한 언어에서 'come(to)' 류와 'go(to)' 류는 미래표지로 발전한다. 저자는 해당 류에 속하는 표지들을 아래와 같이 나열하였다.

언어	'come'	미래	
Bambara	nà	> ná	(먼 미래)
	bɛ́: '조동사' + nà	> bɛna	(가까운 미래)
Kono	nà(+-à)	> náà	(가까운 미래)
Akan	ba	> bɛ, bé, bɔ, bó	(미래표지)
Wapa	bi	> bi	(미래표지)
Efik	-di-	> -di-	(미래표지)
koyo	yì	> yì	(미래표지)
Duala	ya	> -ya	(가까운 미래)
Zulu	za	> -za-	(가까운 미래)
Acholi	bino	> -bi-	(미래표지)
Teso	abunere(ko)	> -bun-	(미래표지)
Tamil	vaa	> varu-	(미래 조동사)

〈표6-1〉 범언어적 'come(to)' 류의 미래표지 (Heine & Kuteva[2002])

97) Bybee 외(1994)에서는 미래 확실성(future certainty)과 미래 가능성(future possibility)으로 명명한다고 했다.

98) 그에 의하면, 가까운 미래의 원형적인 해석은 'be about to do', 'be on the point of doing something'(막 ~을 하려고 하다)이다.

관련 예문은 아래와 같다.

(152) [Zulu]: za (가까운 미래표지)

U-	za-	ku-	fika
3:PL-	FUT-	INF-	arrive

'They will arrive'

(153) [Bambara]: bɛna (가까운 미래표지)

à	bɛna	sà
3:SG	FUT	die

'He will die(soon/or surely)'

다음으로 'go(to)'의 경우를 보자.

언어	'go'	미래	
Bari	tu	> tu	(미래표지)
Zulu	-ya	> -ya-	(먼 미래)
Margi	rà(rá)	> rà(rá)	(미래표지)
lgbo	gà	> gà	(미래표지)
klao	mú	> m	(미래표지)
Haitian CF	va	> va	(미래표지)
Tamil	poo	> poo-	(미래 조동사)
Teso	a-losit	> losi	(미래표지)

〈표6-2〉 범언어적 'go(to)' 류의 미래표지 (Heine & Kuteva[2002])

해당 예문은 아래와 같다.

(154) [Zulu]: ya (먼 미래표지)

Ba-	ya-	ku-	fika
3:PL-	FUT-	INF-	arrive

'They will arrive'

(155) [Margi]: rà (미래표지)

nì	àrà	wì
1:PL-	go	run

'I shall run'

예문을 보면 Zulu어에서는 같은 동사가 'za'와 결합하면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고 'ya'와 결합하면 먼 미래를 나타낸다. 그리고 'come(to)' 류는 가까운 미래표지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고 'go(to)' 류는 일반 미래표지로 발전하며, 먼 미래표지로 발전할 수도 있다. Botne(2006)는 BANTU 어족에 속한 11가지 언어에 있는 'come/go'의 미래시제에 대해 분석했다. 저자는 만약 'come/go'가 모두 문법화하고 미래표지가 되면 'come'은 가까운 미래로, 'go'는 상대적으로 먼 미래로 발전한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는 'S+来/去+VP' 구문의 '来'에 현장성이 있고 가까운 미래의 느낌이 있으며 '去'에는 현장성이 없고 상대적으로 먼 미래의 느낌이 난다는 필자의 분석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Bybee 외(1994:254)에 따르면 모든 '미래시제'는 의도를 표현하는 기능 단계를 거쳤다. 이동이 미래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동작주가 목표를 향해 이동하는 경로에 있어야 한다. Heine 외(2017)에서도 이동동사의 문법화 과정을 아래와 같이 표시했다. 이 중 V1은 이동동사다.

[main verb V1 - non - finite complement verb V2]

↓

[future tense auxiliary - main verb]

한 마디로 [V1+V2] 형식은 미래시제로 발전하는 중요한 구조형식이다.

뿐만 아니라 범언어적으로 보면 이러한 이동동사의 문법화 과정은 방향성(directionality)이 있다. Hilpert(2008:116-132)에서는 코퍼스를 통해 영어 'be going to'와 네덜란드어 'gaan'의 통시적인 문법화 과정을 고찰하여 비교를 통해 'V2'의 의미발전은 같지 않지만 'V1'의 의미발전이 같음을 발견하였다. 저자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영어 be going to	네덜란드어 gaan
Early usage	movement, intention	
Present usage(earlier phase)	-movement, +/- intention	
Present usage(later phase)	-intention	

〈표6-3〉 영어 be going to, 네덜란드어 gaan의 문법화 방향성 (Hilpert[2008])

하지만 Dahl(2000:322), Traugott(1978:378)은 Bybee의 관점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고, 일부 유럽 언어를 고찰하여 'come'은 미래 시제표지로 발전하기 전에 기동적(ingressive), 시작적(inchoative)인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Hilpert(2008:183, 126)는 통시 코퍼스를 통해 게르만어를 고찰하여 범언어적으로 의도성이 미래 구문의 발전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의미 성분임을 증명하였다. 그리고 저자는 스웨덴어 komma('come')에 대한 통시적인 연구를 통해 이러한 이동에 기반한 미래 구문은기동상 표지(ingressive aspectual marker)로도 문법화할 수 있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시간적 의미를 얻는다고 했다. 이는 'come-future'에 또 다른 문법화 경로를 하나 제공했다.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come(to) >	inchoative intention	> future tense
go(to) >	intention	> future tense

〈표6-4〉 범언어적으로 come(to), go(to)의 문법화 경로 (Hilpert[2008])

Heine 외(2017)는 이러한 문법화의 방향성에 대해 분석했다. 그에 의하면, 이것은 구조(constructions), 문맥(context), 추론 메커니즘(inferential mechanism), 의도성, 종결성(telicity), 유추(analogy), 빈도(frequency)와 관계가 없다고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go', 'come'의 근원(source) 개념과 미래시제의 문법적 목표(target) 개념 사이에 고정된 의미적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이 나타난다고 했다. 저자는 이러한 의미적 관계를 '거시적 전환(macro-shift)'이라고 지칭하며, 이러한 전

환이 자주 발생하지만 모든 언어에서 보이는 현상은 아니라고 하였다. 또한 목표 개념으로의 전환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미래시제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며 도중에 중단되는 경우도 존재한다.

Hilpert(2008:109)에서도 '정향 이동(directed movement)' 자체에는 일종의 내재적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come/go(to)' 뒤의 동작(V2)의 발생 시간은 참조시간보다 늦고 따라서 V2는 미실현된 동작, 즉 미래 의미를 내포한다고 했다.

본고는 이상의 관점에 동의하며 이에 입각하여 중국어의 '来/去'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6.2. 중국어 '来/去'의 문법화 기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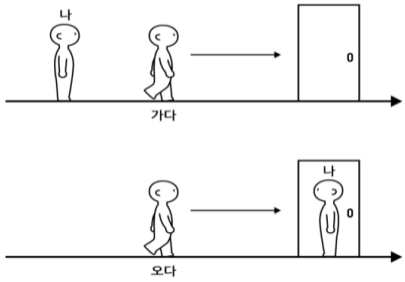
이 절에서는 중국어 '来/去'를 통하여 앞서 제시한 범언어적인 관점을 검증하고자 한다. Hilpert(2008:109), Heine 외(2017)의 관점을 종합하면, '미래의미'는 공간적 이동의미가 있는 'S+来v/去v+VP' 구문에 이미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来v/去v'는 의도성을 가진다. 왜냐하면 '来/去'는 화자의 시공간적 입장을 기준점(point of reference)으로 삼는 가장 기본적인 직시적(deictic) 이동동사이고 화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판단을 반드시 수반하기 때문이다. 김주희(2011)에서는 '来+VP' 구문에서 의도성은 '来v'가 이동의미가 없는 '来'로 문법화, 주관화하는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즉, '来v'에서도 의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원결정 가설(source determination)에 부합하기도 한다. 이성하(2016:202)는 어원결정 가설은 어원어의 의미에 의해서 문법소의 문법화 방향이 결정된다는 가설을 제시하였다. 즉, 한 문법화소가 문법화 되는 방향과, 그 문법소의 결과적인 문법의미는 그 어원어의 의미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가설이다.[99]

다음으로『现代汉语词典』(2012)에 수록되어 있는 '来v/去v'의 원형의미를 보자.

99) 이성하(2016:201)에서는 여러 연구에서, 한 어휘가 문법화 과정을 거쳐 문법소가 되려면 일단 그 어휘의 의미가 '보편적, 일반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자주 지적되었다고 하였다. 이 가설은 Bybee 외(1994)에서 제시된 일곱 가지의 가설 중 하나라고 하였다.

来v(오다): 다른 장소에서 화자의 위치로 이동하다.

去v(가다): 화자의 위치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



100)

〈도식6-2〉 '来v/去v'의 원형의미

다음 예문을 통해 '来/去'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자.

(156) A: 你怎么来v了？
너 왜 왔어?
B: 我来v吃饭。
밥 먹으러 왔어.

(157) A: 你去v哪儿？
어디 가?
B: 我去v吃饭。
밥을 먹으러 가.

예문(156)에서 발화시점에 '你'가 지칭하는 대상은 이미 A가 있는 장소(목표점)에 도착해 있고 아직 밥을 먹지 않은 상태이다. 즉, '我来v吃饭'에서 '来v'는 이미 실현되었고, '吃饭'은 아직 미실현 상태이다. 예문(157)에서는 B가 아직 목표점에 도착하지 않았고 밥도 먹지 않았다. 즉, '我去v吃饭'에서 '去v'는 실현되지 않았고 '吃饭'도 실현되지 않았다. 따라서 '来v/去v' 뒤의 VP는 모두 실현되지 않은 사건이고 '미래의미'를 함축한다.

100) 김효신(2018) 인용.

S	来v/去v	VP
행위자	来v: 실현	미실현
	去v: 미실현/진행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来v'의 경우 화자가 청자가 있는 공간에 도착하여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어서 목표점이 매우 명확하다. 게다가 '来v'는 이미 이루어져서 VP가 곧 발생하려는 단계에 있다. 때문에 '来'구문은 [+현장성]과 [+확정성], '곧 시작하려 함', '가까운 미래' 등 의미를 표현한다.

이와 달리 '去v'는 화자가 이동을 통해 청자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목표점은 불확실하다. 게다가 VP뿐만 아니라 '去v'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진행중이어서 VP가 금방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去'구문은 [-현장성]과 [-확정성], '먼 미래' 등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미래사건은 발생 여부가 확실치 않은 사건과 반드시 발생할 사건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来+VP'는 확정된 미래 사건이고, '去+VP'는 확정되지 않은 미래 사건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동의미가 있는 'S+来v/去v+VP' 구문에서 '来v/去v'는 이미 이동의미가 없는 '来/去'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S+来v/去v+VP' 구문에 있는 이동의미는 과연 어떻게 사라진 것일까? '来'는 일반적으로 행위자 S와 청자(들)가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사용하기 때문에 이동의미가 쉽게 사라진다. [+현장성]은 반드시 실제적일 필요는 없으며 '인터넷/전화' 등의 추상적 공간도 가능하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현장성]이 있어서 '来'는 '먼 미래'표지까지 확장하기가 어렵다.

'去'는 주로 [+추상성]을 가지고 시간적 이동을 나타낸다. 예로 '去经历, 去成长' 등이 있다. 추상적인 VP가 있어야 공간적인 이동의미를 느끼지 않는다. 화자는 해당 구문을 통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을 제시한다. 허성도(2002)에서는 중국인의 공간의식에 근거하여 '来/去+VP' 구문의 존재 이유를 밝혔다. 저자는 중국인에게는 어떤 행위가 발생하려면 행위자가 반드시 그 장소에 있어야 한다는 공간적인 의식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고 필자는 이에 동의한다. 하지만 '来/去' 모두 추상적, 심리적 이동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에는 허점이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去'는 추상적, 심리적인 이동을 나타내지

만 '来'는 그렇지 않다. 한 마디로 '去'는 추상적 이동을 표현하고, '来'는 [+현장성]을 나타내 구체적, 추상적 공간에 청화자가 함께 위치해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来	공간 추상화 (가상 공간)
去	이동 추상화 (심리 이동)

〈표6-5〉 공간의미가 없는 '来/去'의 추상화 차이

상기의 문법화 과정은 은유(metaphor) 기제와 관련이 있고 공간적인 영역부터 시간적인 영역으로 투사(mapping)한 결과이다. Fleischman(1982b)은 'come', 'go'의 은유의 차이를 밝혔다. 'go'-미래는 '이동하는 자아(moving ego)' 은유를 포함하며, 'come'-미래는 '이동하는 시간(moving time)' 은유를 포함한다고 했다. 이런 관점은 '来'가 [현장성 (가상 공간)]을 갖고 '去'가 [추상적 (이동)]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한다.[101]

마지막으로 Bybee 외(1994:244)는 '예측'이 미래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네덜란드 'gaan'의 문법화 과정을 분석하여 미래표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하였다. 첫 단계에서는 유정적인 행위자(animate subject)가 필요하고 VP도 행위자가 의지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정적인 행위자가 여전히 필요하지만, 비자주적인 동작도 나타난다. 즉, 동사의 [+자주성]이 점차 사라진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무정적인 행위자(inanimate subject)마저 출현하여 동작이 의도성을 완전히 상실한다. 'S+来/去+VP' 구문을 보면 S는 반드시 의지가 있는 행위자여야 하고 의지로 통제할 수 없는 VP는 출현할 수 없다. 따라서 구문에서 '来/去'가 아직 [+의도]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전형적인 미래표지로 발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102] 다시 말해 현대중

101) 우리는 S를 강조하는 경우는 주로 의사소통으로 인해 나타나는 용법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맥락에서 '대조'의미가 있는 것이고 S에 강세가 있다. 이때는 '来/去'의 의지성이 매우 강하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의 목표가 있을 때는 '去'보다 '来'를 더 많이 사용한다. 또한 '来'를 초점표지로 보는 관점은 있지만 '去'는 없는데 이는 '来'에 [+현장성]이 있어서 이동의미가 느껴지지 않기 때문이다.

102) Dahl(2000a:14-15)에 따르면, 문법화 정도에 따라 문법형태유형을 '핵심문법형태유형(core

국어에서 이동의미가 없는 '来/去'의 주요 기능은 발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아래 표와 같이 나열할 수 있다.

来v/去v	[+movement], [+intention]
来/去	[-movement], [+intention]

〈표6-6〉 현대중국어 '来', '去'의 주요 기능

gram type)'과 '주변문법형태유형(peripheral gram type)'으로 나눌 수 있다. '핵심 용법'은 강제성이 있고 보통 형태적인(주로 굴절적인) 표현을 가진다. '주변 용법'은 주로 우언적 방법을 통해 표현된다. 그리고 Dahl은 미래(future)는 '핵심문법형태유형'에 속하며, 준 미래(futuroids)는 '주변문법형태유형'에 속한다고 하였다. '미래문법형태'는 문법화 정도가 높으면 핵심 용법(미래)으로, 문법화 정도가 낮으면 주변 용법(준 미래)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제7장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이동을 나타내지 않는 ‘S+来/去+VP’ 구문의 전반적인 어법 특성을 규명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서 주어와 목적어의 지시성, 동사의 의미와 상적 특성, 동사구 내의 보어의 의미자질 및 문법화 정도, 구문의 정보구조적 특성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연구들은 ‘S+来/去+VP’ 구문에 나오는 명사성 성분과 동사성 성분의 선택제약에 관해서 많이 연구하지 않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는 단수형 인칭대명사 특히 ‘我’의 예문을 사용해서 연구했고, S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대화 참여자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는 간과하였다. 이 때문에 ‘S+来/去+VP’ 구문의 일부 용법 밖에 탐구하지 못했고, 전체적인 규칙성을 귀납하지 못하였다. 게다가 기존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적인 이동의미가 없는 ‘来/去’가 어떠한 기제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밝히지 않았고 ‘来’, ‘去’의 차이점도 밝히지 않았다. 본고는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크게 행위자 S가 누구인지를 강조하는 경우와 행위자 S가 누구인지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첫째, ‘S+来/去+VP’ 구문에 출현할 수 있는 명사성 성분을 살펴보면 주로 지시성 제약을 받는다. 우선 S에는 보통 한정적인 성분이 나타난다. 다만 S가 누구인지를 강조할 때, 소수 특수한 경우에 비한정적인 성분도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S를 강조하는 경우에는 목적어에 한정적인 성분이 나타나고, S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는 한정적이거나 비한정적인 명사성 성분이 모두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정보구조와 관계가 있다.

둘째, ‘S+来/去+VP’ 구문에 출현하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자주성], [-종결성] 자질을 지녀야 한다. 그리고 S를 강조하는 경우의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타동성] 제약이 잘 준수되고 있다. 반면 S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 자동사도 출현할 수 있다.

셋째, S를 강조하는 경우 구문은 주로 주어-초점구조이고 구문 전체가 책임 의미를 전달한다. 이때 행위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고 S는 뚜렷한 강세를 수반한다.

주의해야 하는 것은 화제에 대조가 있고 앞에 전제적인 정보가 없을 때 문장은 문장-초점구조다. 반면 S를 강조하지 않는 경우 구문은 주로 서술어-초점구조이지만 발어문으로 사용하는 'S+来/+VP' 구문은 문장-초점구조이다.

넷째, 주어-초점이 아닌 경우에는 '来', '去'가 사용되는 담화 맥락이 다르다. '来'의 사용 환경은 일반적으로 구체적이고 일상적이며 발화할 때 대화 참여자들이 함께 VP가 발생할 현장에 있는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현장성]은 인터넷 등 매개자를 통해 하나의 가상된 공간에 모이는 것도 허용하고 구문은 발화 후 대화 참여자들끼리 가까운 미래에 무엇을 같이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去'의 사용 환경은 추상적이고 문어적인 색채가 강하다. '去' 뒤의 VP는 '来' 뒤의 VP에 비해 불확정적이고 추상적이어서 구문은 VP의 발생 장소를 묘사하지 못한다. 구문의미는 발화하고 나서 화자가 청자/독자에게 먼 미래에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하거나 권유하는 것이다. 이러한 '먼 미래'는 불확정성과 관련 있다.

다섯째, 범언어적인 각도로 'come', 'go' 류 미래표지의 문법화 과정에서 방향성이 생겨난 원인을 규명하고 더 나아가 중국어 '来/去'로 이를 입증하였다. 'come'류는 주로 가까운 미래표지로 발전하고, 'go'류는 먼 미래표지로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현대중국어에서 '来/去'는 주로 의도성을 지니고 아직 미래표지로는 발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동의미가 없는 '来'는 [+현장성]과 관련되고 현장성은 실제적 공간과 가상 공간 모두를 포함한다. 공간적 이동의미가 없는 '去'는 [+추상성]과 관련되며 시간적이고 심리적인 추상 이동으로 실현된다.

전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주어-초점구조	서술어-초점구조
명사	O	[+한정]	[+/-한정]
	S	주로 [+한정]	[+한정]
동사		[+자주성] [-종결성]	
		주로 [+타동성]	[+/-타동성]
구문의		행위자 S가 누구인지를 강조함. (책임 의미) [화제에도 대조가 있고 앞에 전	발화하고 나서 가까운 미래/먼 미래에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나타냄. ▲来: 알림/청유/제안 (구어 색채)

미	제적인 정보가 없는 경우 → 문장초점구조]	[발어문인 경우 → 문장초점구조] ▲去: 조언/권유 (문어적 색채)
来/去	[-이동]	
	[+의지] (매우 강)	[+의지] (상대 약)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공간적 이동의미가 없는 'S+来/去+VP' 구문이 명사성 성분과 동사성 성분에 요구하는 선택제약을 밝혔고 정보구조의 관점에서 'S+来/去+VP' 구문을 유형화하면서 구문의미를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본고는 범언어적인 시각으로 '来v/去v'의 공간적인 이동의미가 어떻게 인간의 인지에 따라 사라지는지를 살펴보았다. 본고의 연구결과는 중국어 학습자들이 'S+来/去+VP' 구문을 보다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이동의미가 없는 'come'-미래, 'go'-미래의 언어 현상과 관련된 범언어적 연구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參考文獻】

1. 논문류

1.1. 국문 논문

김주희(2011), <‘人稱代詞+來+V(P)’의 의미기능>, ≪중국학논총≫ 34: 1-22.

김효신(2018), <한국어 상 보조용언 ‘가다’와 ‘오다’의 문법화 연구>, ≪담화와인지≫ 25(4): 31-53.

박정구(2003), <어문학부: 동보형식의 이원적 체계에 대한 고찰>, ≪중국학보≫ 47: 91-109.

백은희(2005), <중국어의 정보구조 구현방법에 대한 연구>, ≪중국어문학지≫ 17: 551-573.

사례(2019), <중국어의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에 대한 재고 - 용어 사용 양상을 출발점으로>, ≪중국언어연구≫ 85: 127-150.

이옥주(2007), <표준중국어 초점 실현에 관한 연구- 음향적 초점 표지와 초점 표지 是를 중심으로>, ≪중국어문학지≫ 23: 253-276.

전영철(2006), <대조 화제와 대조 초점의 표지 ‘는’>, ≪한글≫ 274: 171-200.

최규수(2004), <주제어와 대조초점 - 어순 및 강세와 관련하여>, ≪우리말연구≫ 15: 149-172.

허성도(2002), <現代漢語의 ‘來/去’ 구문 연구>, ≪중국언어연구≫ 15: 27-59.

1.2. 중문 논문

蔡维天(2004), <谈‘有人’‘有的人’和‘有些人’>, ≪汉语学报≫ 第2期, 16-25.

陈平(1987), <释汉语中与名词性成分相关的四组概念>, ≪中国语文≫ 第2期, 81-92.

陈平(1988), <论现代汉语时间系统的三元结构>, ≪中国语文≫ 第6期, 401-422.

陈平(2015), <语言学的一个核心概念“指称”问题研究>, ≪当代修辞学≫ 第3期, 1-15.

陈晓蕾(2010), <“人称代词+来2+V(P)”构式语义分析 — 以“我来2V(P)”为例>, ≪云南师范大学学报(对外汉语教学与研究版)≫ 第3期, 52-58.

郭春贵(1987), <试论连谓结构“来/去+VP”中的虚化动词“来/去”>, ≪第二届国际汉语教学讨论会论文选≫.

梁银峰(2005), ＜论汉语动补复合词的词汇化过程＞, ≪语言研究集刊≫ 第1期, 202-224.

刘丹青(1994), ＜“唯补词”初探＞, ≪汉语学习≫ 第3期, 23-27.

鲁晓琨(2006), ＜焦点标记“来”＞, ≪世界汉语教学≫ 第2期, 20-30.

陆俭明(1997), ＜关于语义指向分析＞, ≪中国语言学论丛≫ 第1期, 34-56.

陆俭明(1985), ＜关于“去+VP”和“VP+去”句式＞, ≪第一届国际汉语教学讨论会论文选≫, 18-33.

马庆株(1988), ＜自主动词和非自主动词＞, ≪中国语言学报≫ 第3期, 157-180.

马庆株(1997), ＜“V 来/去” 与现代汉语动词的主观范畴＞, ≪语文研究≫ 第3期, 17-23.

马庆株・王红旗(2004), ＜关于若干语法理论问题的思考＞, ≪南开语言学刊≫ 第1期, 42-52.

马真・陆俭明(1997), ＜形容词作结果补语情况考察 (三)＞, ≪汉语学习≫ 第6期, 7-9.

朴正九(2016), ＜从类型学视角看汉语形容词谓语句的信息结构＞, ≪中国语文≫ 2016年, 第4期, 387-396.

石毓智(2003), ＜汉语的“数”范畴与“有定”范畴之关系＞, ≪语言研究≫ 第23卷 第2期, 40-50.

石毓智・白解红(2007), ＜将来时的概念结构及其词汇来源＞, ≪外语教学与研究≫ 第39卷 第1期, 33-42.

汤廷池(1979), ＜‘来’与‘去’的意义与用法＞, ≪国语语法研究论集≫, 301-320.

王国栓(2005), ＜“来+VP”“VP+来”两格式中的“来”＞, ≪南开语言学刊≫ 第1期, 165-172.

王红旗(2015), ＜体词性成分指称性的强弱＞, ≪语言科学≫ 第14卷 第1期, 13-24.

吴福祥(1998), ＜重谈“动+了+宾”格式的来源和完成体助词 “了” 的产生＞, ≪中国语文≫ 第6期, 452-462.

吴福祥(2001), ＜南方方言几个状态补语标记的来源＞, ≪方言≫ 第4期, 344-354.

相原真莉子(2010), ＜失去位移义“来”的核心功能＞, ≪世界汉语教学≫ 第1期, 37-44.

辛承姬(1998), ＜连动结构中的“来”＞, ≪语言研究≫ 第2期, 53-58.

玄玥(2011), ＜现代汉语动结式补语是一种内部情态体—“完结短语” 假设对动结式结构的解释＞, ≪华文教学与研究≫ 第1期, 67-78.

张伯江(2000), ＜汉语连动式的及物性解释＞, ≪语法研究和探索 (九)≫, 129-141.

张和友・曹婉(2015), ＜“来＋VP＋来”结构与“来”的性质＞, ≪汉语学习≫ 第6期, 37-48.

朱景松(1998), ＜动词重叠式的语法意义＞, ≪中国语文≫ 第5期, 378-386.

左思民(2009), ＜动词的动相分类＞, ≪华东师范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第41卷 第1期, 74-82.

1.3. 영문 논문

Bisang, W.(2014). Overt and hidden complexity-Two types of complexity and their implications. *Poznan Studies in Contemporary Linguistics* 50(2): 127-143.

Botne, R.(2006). Motion time and tense on the grammaticalization of come and go to future markers in Bantu. *Studies in African Linguistics* 35(2): 127-188.

Dahl(2000). The grammar of future time reference in European languages. in Dahl(Ed.). *Empirical Approaches to Language Typology.* Berlin: Walter de Gruyter, 309-328.

Dahl(2000). Verbs of becoming as future copulas. Östen Dahl (Ed.). *Tense and Aspect in the Languages of Europe*. Berlin: Mouton de Gruyter, 309-28.

Heine, B., et al.(2017). Back again to the future: How to account for directionality in grammatical change. *Unity and diversity in grammaticalization scenarios* 16: 1.

Hopper, Paul J. & Sandraa. Thompson(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Vol.56, No.2. 251-299.

Huang, Shuanfan(1978). Space, time and the semantics of LAI and QU, *Proceedings of Symposium on Chinese Linguistics*, 1977 Linguistic Institute of the Linguistic Society of America, Student Book Co, 53-66.

Mezhevich, I.(2003). English resultatives: State versus location. In S. Burelle and S. Somesfalean (Eds.). *Proceedings of the 2003 Annual Conference of the Canadian Linguistic Association*. Québec: Université du Québec à Montréal, 166-177.

Traugott, Elizabeth C.(1978). On the expression of spatio-temporal relations in language. In J. Greenberg (ed.).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Vol.III.*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369-400.

2. 단행본 및 학위논문

2.1. 국문 단행본・학위논문

김주희(2012), <현대중국어 '来+VP'와 'VP+来'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지혜(2009), <'来/去+VP' 구문에 나오는 '来'와 '去'의 의미기능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철우(2003),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 역락.

염죽균(2018), <중국어 '要'와 '会'의 미래시제 용법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성하(2016), ≪문법화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장가영(2006), <'来' 와 '去'의 비대칭 및 유표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2. 중문 단행본・학위논문

陈贤(2007), <现代汉语动词"来、去"的语义研究>, 复旦大学 博士学位论文.

陈前瑞(2008), ≪动词体貌研究的类型学视野≫, 北京: 商务印书馆.

冯胜利(2009), ≪汉语的韵律, 词法与句法≫,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신수영・이옥주・전기정 옮김(2014),『중국어의 운율과 형태・통사』, 서울: 역락.

高名凯(1948), ≪中国语法论≫, 北京: 商务印书馆.

龚千炎(2000), ≪汉语的时相时制时态≫, 北京: 商务印书馆.

李沛(2011), <现代汉语连动结构间"来/去"使用情况之考察>, 华中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刘丹青・徐烈炯(1998), ≪话题的结构与功能≫, 上海: 上海教育出版社.

刘月华(1998), ≪趋向补语通释≫, 北京: 北京语言文化大学出版社出版发行.

陆俭明(1993), ≪现代汉语句法论≫, 北京: 商务印书馆.

吕叔湘(1999), ≪现代汉语八百词≫(增订版), 北京: 商务印书馆.

马庆株(1992), ≪汉语动词和动词性结构≫, 北京: 北京语言学院出版社.

石毓智(2003), ≪现代汉语语法系统的建立: 动补结构的产生及其影响≫, 北京: 北京语言大学出版社.

孙斐(2005), <"来"和"去"的语法化及其相关问题研究>, 上海师范大学 硕士学位论文.

王力(1980), ≪漢語史稿≫, 北京: 中華書局.

王统尚(2009), <汉语将来时标记的来源和语法化问题研究>, 武汉大学 博士学位论文.

徐烈炯(1995), ≪语义学(修订本)≫, 北京: 语文出版社.
赵元任(1996), ≪中国话的文法≫, 河北: 河北教育出版社.
朱德熙(2003), ≪语法讲义≫, 北京: 商务印书馆.

2.3. 영문 단행본・학위논문

Akmajian, A.(1973). The role of focus in the interpretation of anaphoric expressions, In S. R. Anderson & P. Kiparsky (Eds.), *A Festshrift for Morris Halle*.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Bybee 외(1994). *The Evolution of Gramma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박선자・김문기 옮김(2010),『문법의 진화: 시제, 상, 양태』, 서울: 소통.

Chafe, W. L.(1970). *Meaning and the structure of language*.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Dahl, Ö.(1973). *On generics*. University of Göteborg, Department of Linguistics, Research Project for Logical Grammar.

Fleischman, S.(1982). *The future in thought and language. Diachronic evidence from Romance*. Cambridge: Chicago University Press.

Goldberg,a. E.(1995). *Constructions: A construction grammar approach to argument structur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Heine, Bernd and Tania Kuteva(2002).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University of Cambridge Press.

Hilpert, Martin(2008). Germanic future constructions: A usage-based approach to language change. *Constructional Approaches to Language* 7. Amsterdam: Benjamins.

Lambrecht, Knud(1994). *Information structure and sentence form: topic, focus and the mental representations of discourse referents*, Cambridge University Press. 고석주 외 옮김(2000),『정보 구조와 문장 형식: 주제, 초점, 담화 지시물의 심적 표상』, 서울: 월인.

Langacker, Ronald W.(1991). *Foundations of Cognitive Grammar*(V2). Stanford University Press.

Li, C. and S. Thompson(1981). *A functional reference grammar of Mandarin Chinese*.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Find this author on. 박정구(외) 역(1989), ≪표준중국어문법≫, 서울: 도서출판 한울.

Packard, J. L.(2000). *The morphology of Chinese: A linguistic and cognitive approach*.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eed, John I.(1997). *Semantics*. Malden, MA: Blackwell Pub, 2003 2nd ed., 이상철 역(2004), ≪최신의미론≫, 서울: 한국문화사.

Smith(1997). *The Parameter of Aspect*(2nd Edition). Boston: Kluwer Academic Publishers.

Stockwell, Robert P., Paul Schachter and Barbara H. Partee(1973). *The Major Syntactic Structures of English*. Holt, Rinehart & Winston.

3. 사전류

≪现代汉语词典≫(第六版), (2002), 商务印书馆.

≪汉语动词用法词典≫, 孟琮, 郑怀德, 孟庆海, 蔡文兰(2000), 商务印书馆.

4. 인터넷 자료

표준국어대사전, 국립국어원, http://www.korean.co.kr.

北语汉语语料库, bcc.blcu.edu.cn.

北京大学中国语言学研究中心语料库, http://ccl.pku.edu.cn.

百度, www.baidu.com.

【中文摘要】

现代汉语非移动『S＋来/去＋VP』构式研究

首尔大学 中文系

花 明 姣

在现代汉语中，无空间移动义的“S+来/去+VP”构式的用法多样，使用频率也非常高。本文旨在究明无空间移动义的“S+来/去+VP”构式的整体语法特征。对此，我们进行了详尽的考察。

本文的主要结构如下：第一章提出问题并阐明研究方法及内容。第二章为了理清名词性成分的制约因素，分析主语和宾语的指称性。第三章为了掌握动词的制约因素，对其语义特征及其情状体(situation aspect)特征进行考察。第四章为了更清楚地了解何种动补式能够进入此构式，对其动词内部补语的语义特征，语法化程度等进行分析。第五章通过信息结构理论，总结“S+来/去+VP”构式所存在的焦点结构类型。与此同时，归纳出不同焦点结构类型的构式义。第六章从类型学的角度考察“come”，“go”类动词的语法化过程。并由此探索汉语无移动义“来”、“去”的意义功能及二者的区别。

研究结果如下：

第一，在“S+来/去+VP”构式中，主语通常是有定的。但在强调主语(S)是谁时，少数特殊情况下，主语也可以是无定成分。其次，强调S的情况下，宾语通常是有定成分，但不强调S的情况下，有定成分和无定成分皆可出现在宾语位置。

第二，在“S+来/去+VP”构式里的动词通常必须遵守【+自主性】和【-终结性】。在强调S的情况下，除了少数特例之外，基本上遵守【+及物性】，但是在不强调S的情况下，也可以出现自动词。

第三，根据信息结构理论，我们发现在强调S时，该构式主要是主语-焦点结构，整个构式具有责任义。这时重要的是强调行为者是谁，通常S可以伴随着明显的重音。但需要注意的是，如果话题也具有对比义，并且没有相应的预设信息时，构式则是句子-焦点结构。在不强调S时，该构式主要是谓语-焦点结构，但其中作为始发句使用的“S+来+VP”构式，则是句子-焦点结构。

第四，在非主语-焦点结构的情况下，“来”、“去”的使用环境有明显的差异。“来”的使用环境通常是具体的和日常的，要求在说话时听者和话者同时在VP发生的现场一起进行该活动。并且这种【+现场性】也可以借助网络等媒介组成的虚拟空间来实现。构式义是在发话之后，听者和话者(参与VP的人)在近将来一起做VP的提议和请求。相反，“去”的使用环境是很抽象的，具有很强的书面色彩。并且相比与“来”而言，“去”后的VP具有不确定性，也很难描述VP发生的场所。构式义是在发话之后，(对听者/读者)在相对远的未来应该如何做的勉励和劝告。这种远将来义是与不确定性有关的。

第五，从类型学的角度，整理出了“come”、“go”类将来时标志的语法化过程存在方向性的原因，进而在汉语中加以验证。“come”类主要会发展成近将来(immediate future)时标志，“go”类可以发展出远将来(remote future)时标志，汉语的“来”、“去”也存在这种倾向。但是通过考察，目前无移动义的“来/去”主要表达说话人的意志，还未脱离【+intention】的范畴。另外，本文指出无移动义“来”的产生和【+现场性】有关，可以是现实的现场，也可以是通过对空间进行虚拟抽象得到的现场。而无实际移动义“去”则与【+抽象性】有关，是一种在时间上心理上的抽象位移。

关键词：非移动“来/去”，指称性，情状体，自主性，终结性，及物性，语法化，信息结构，构式义，语法化，类型学

学　号：2017-26843